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3. 연구방법

공 백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오늘날 사회는 세계적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해지고 초국가적 활동 영역이 확대되면서 지구적 차원의 공동 해결 사안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를 무대로 능동적인 주체로 성장하여 지도적 위치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폭넓고 장기적인 안목과 시각을 지닌 세계시민으로서의 청소년 육성을 위한 기초연구는 당연한 주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세계화, 국제화를 화두로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세계시민에 대한 연구는 정치, 사회적 관점에서 몇몇의 시안적 논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또한 세계화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 타문화, 민족에 대한 태도, 관용, 평화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문화 감수성 함양 방안 등에 관한 몇몇 기초연구 성과가 있어왔다. 그러나 청소년 육성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세계시민성 자질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계시민의 자질 함양의 필요성은 급상하고 있는 반면, 세계시민의 명확한 개념과 육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향성의 도출은 아직까지는 미비한 실정이다. 세계시민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한 청소년의 역량의 파악은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 지도를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이다

또한 세계화와 블록화의 이중적 양상이 공동으로 진행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민족적 정체성 및 자긍심과 더불어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균형있게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청소년의 특성에 적합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육성의 관점에서 세계시민성을 구성하는 자질 요건을 구체화하고, 이러한 자질 요건에 따른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세계시민의 자질 실태를 파악해 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세계시민 자질 함양을 위한 청소년 지도와 정책 확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

1) 세계시민론

세계시민의식은 ‘국가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황태연, 1996) 인류 공동의 보편적 삶과 문제에 대한 의식이며 ‘평화와 안녕을 위한 세계 공동체 의식’(장현근1997)이다. 세계시민에 관한 논의는 세계화의 추세와 함께 최근 일어나고 있는 현상만은 아니며, 고대로부터 동양과 서양에서 세계시민의 이상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다만 과거에서는 세계시민이 ‘인류의식’의 보편적 인간에 관한 담론이 주를 이루었다면 현재의 세계시민은 보다 실질적으로 정치, 법적, 사회적인 실체로서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게 된다.

세계시민의 보편성은 세계 인권의 가치를 서구 중심적 사상으로 내세우고 자국의 공동 인식에서 우러나오는 문화적 특수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황태연, 1996). 서구의 세계시민성의 이상은 서구사회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자국문화 특수성의 논리로 보편성의 논리를 거부하는 것도 스스로 편협된 시각과 폐쇄주의로 흐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여기서 딜레마는 어떻게 민족의식과 세계시민의식을 양립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시민의식이 민족의식과 항상 상반된 입장인 듯한 전제에서 출발하는 부적절함을 해소하고 이러한 양립 가능성의 이론적 배

경이 되어주는 것이 최근 인식의 틀로서 인정받는 다문화주의 패러다임이다(라종일, 1997). 다문화주의적 공동체의 시각에서는 다양한 개별 집단의 문화들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상호공존 속에 교류하는 가운데 공동의 지향점을 찾아가게 한다. 민족의식을 지켜나가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위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2) 세계시민성 개념 및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 논하게 될 세계시민성은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구성요소, 즉 바람직한 세계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들을 의미한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이상은 동서고금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세계시민성의 구체적인 모습은 지구적 변화의 흐름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의 보편적 요구를 반영하여 세계시민의 성격과 내용이 규정될 때 진정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지구적 차원의 관심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인류 공동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요청되는 이상적인 세계시민의 자질을 상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세계시민이란 초국가적 활동영역에 속하는 그 무엇을 의미하고 그 존재의 실질적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는 아직 국가가 부여한 존재 기반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단지 상상적 실체에 불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따라서 현대 세계시민성에 대한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건대, 세계시민성은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한 국가의 시민성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확산 적용될 수 있는 형태로 상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세계화라는 흐름이 지역주의 심화와 함께 이중구조의 형태를 띠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다만, 한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성은 개별사회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양한 양상을 보일 것이며, 세계시민성으로서의 접근방식도 다원화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아시아권 시민이 세계시민성의 자질 배양을 위해 강조되어야 할 내용은 문화적 토양이 다른 미국시민이나 아프리카 원주민 또는 이슬람권의 시민과 자질요건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민족에게서 요구되는 개별사회의 시민성을 배제한 채, 시민성의 메타방식으로 추상화된 세계시민성이 추출된다면 그 실질적 기능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세계시민의 자질에 대한 논의는 문화적 토양을 공유한 개별 민족에게서 그들의 특정요구에 의해 합의된 세계시민성의 구성요소는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적 시민성을 바탕으로 한 세계시민성을 추출하는 것이 당연과제로 제시되게 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세계적 무대에서 바람직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배양하여 주도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세계시민의 자질은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세계시민성에 대한 본 연구는 세계시민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지식인들의 공동의 인식을 추출하고 이에 따라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시민성의 구성요소들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그기본적으로 네 가지 영역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지식, 가치, 태도, 기술 등의 영역이 그것이다. 지식의 영역에서는 외국문화,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지식 등이 해당되고, 가치영역은 인류공동체 인식의 중요성, 자각 정도, 공동의 문제해결의 필요성 인식 정도, 다문화적 가치 존중 정도 등이 속한다. 태도영역에서 다루는 내용은 세계 공동사안의 관심 정도, 참여도, 연대감, 자발적 협력의 태도 등이 될 것이며, 기술영역은 다양한 문화권 시민들과의 원만한 교류 능력, 정보수집력, 문제해결능력, 발표능력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자질요건들을 구체화하여 지식인들과 청소년들에 의해 세계시민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건들에 대해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세계시민 자질의 개별 구성요소의 중요도에 비교하여 각 요소들의 청소년의 자

질 실태와의 격차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아 어떠한 구성요소의 측면에서 청소년의 자질 함양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지를 파악하게 될 것이다.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동양과 서양의 세계시민에 관한 논의들을 개관하여 세계시민연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마련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세계시민성의 특성과 연관된 내용들을 참조하여 포괄적인 세계시민성의 요소들을 구성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연구과정의 전개와 설문지 구성의 틀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2) 전문가 자문

세계시민의 자질에 대한 개념 정립과 연구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설문지 구상의 과정에서 내용의 범위설정과 구체성,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문을 얻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합의에 이르는 측정도구를 고안하고자 한다

3)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모두 두 가지가 실시되는데, 세계시민 자질의 구성요소를 규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각계 지식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과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세계시민의 개념 인식, 민족의식과 세계시민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지식인과 청소년의 인식을 알아보는 질문도 두 설문조사에 포함되어 있다.

공 백

Ⅱ. 세계시민의 이론적 배경

1. 동서양의 세계시민론
2. 세계시민 자질의 영역 및 구성요소

공 백

II. 세계시민의 이론적 배경

1. 동서양의 세계시민론

이 절에서는 세계화의 진행과 더불어 세계시민 및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서양과 동양에서 각각 세계시민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기로 한다. 서양의 세계시민론과 관련해서는 첫째, 세계시민의 관점과 그 변화, 둘째, 세계화와 지구촌관리, 그리고 세계시민의식의 관계, 셋째, 세계시민사회의 등장과 기능을 다룰 것이다. 이어 동양의 세계시민론 부분에서는 첫째, 동양사상에서의 세계시민관, 둘째, 시민개념에 대한 사회적 변화 요구로서의 민족적 시민과 세계시민의 관계, 셋째, 시민교육의 목표와 내용준거로서의 세계시민을 논의할 것이다.

1) 서양의 세계시민에 대한 개념 및 논의

(1) 세계시민의 관점과 그 변화

사회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다양성과 통일성에 관한 물음의 기원은 개인·집단·정치적 결사체의 다원성이라고 하는 자명한 현상에 놓여 있다. 중세의 신학자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원용하면서 “도시국가, 그것은 다원성이다(Polis, id est pluralitas).”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다원성은 도시국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 등 다른 정치적 결사체 그 자체에도 역시 존재한다. 여기서 제기되는 윤리적·정치적 질문은

어떻게 이러한 다원성 속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의 통일성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Sutor, 1993, 43 참조)

고대 그리스에서는 자기 자신의 집에 있는 가정(오이코스)뿐만 아니라 도시국가로서의 국가도 역시 비교적 제한되어 있었고 따라서 개관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었다. 그 당시 사회·정치적 행위의 경험은 오늘날 진화이론의 관점에서 ‘중간세계(mesocosm)’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경험영역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 중간세계는 우리의 인간적인 감각을 통해 제한되어 있는 경험의 지평을 말한다. 진화과정에서 인간은 원래 이 중간세계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선택된 것이다. 그러므로 윤리적·정치적 행위의 기원은 바로 가정(오이코스)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윤리적·정치적 행위에 대한 기대가 갑자기 세계 전체를 포괄하는 지평으로 확대되었다. 이제 인류 전체를 위한 정치를 생각하고 또한 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무리한 요구이다. 인류라는 개념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말하자면 ‘선전(宣傳)’을 통해 발생한 것이다. 여기서 ‘선전’은 규범적이고 추상적이며 따라서 현실로 관찰하거나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전체로서의 ‘하나의 세계’는 매우 추상적이고 개관할 수 없는 상태를 예상하고 있으며, 따라서 도시국가(폴리스)의 수준에서 다양성의 개념 속에 이미 등장하는 문제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가정(오이코스)과 도시국가(폴리스)에서의 구체적인 경험과 비교해 볼 때 모든 사람의 세계공동체(코이노니아) 수준에서는 추상화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추상화된 세계공동체 수준에서는 정치권력의 중심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와 요인들을 안정화시키는 일이 해결하기 힘든 과제로 남아 있게 된다.

그런데 18세기의 계몽주의자들은 희망에 찬 진보이론을 통해

이러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대표적인 보기로서 칸트의 사상을 들 수 있다. 세계시민에 대한 그의 희망은 예를 들면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본 일반적인 역사에 대한 이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사고와 행위를 과학적으로 철저히 다룰 수 있다면 가정교육 및 공민교육과 더불어 세계시민교육도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서구의 계몽주의자들에게는 자명한 것으로 보였다.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에 관하여 예를 들어 피테는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표현한 바 있다. “오늘날 가정을 이롭게 하는 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 우리는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개념을 갖고 우리의 참된 인간적인 심성을 넓은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세계 전체로 시야를 확대함으로써 이제 시민과 시민교육에 대한 서양의 사상은 다음과 같이 논리적·경험적 활동공간을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

<표 1 시민과 시민교육의 논리적·경험적 활동공간>

가정 (오이코스, oikos)	가정교육	가정을 이롭게 함
국가 (폴리스, polis)	공민교육(시민교육)	국가·민족을 이롭게 함
세계공동체 (코이노니아, koinonia)	세계시민교육	세계를 이롭게 함

이러한 틀 속에서 세계시민교육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고대에는 가정과 국가에 국한된 관점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세계시민교육의 가능성에 대하여 비교적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서 보다 더 낙관적인 입장을 취한 근대 서구의 계몽주의자들은 공민교육뿐만 아니라 세계시민교육도 역시 필요하며 또한 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시민교육의 가능성에 대한 근거는 사실에 반(反)하는 수준에서, 즉 현실적으로 관찰하거나 경험할 수 없는 수준에서 제시되었다. 다시 말해서, 도덕교육으로서의 세계시민교육이 마치 가능한 것처럼 간주하거나 아니면 세계시민교육은 당위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규범적 요구에서 출발하였다.

근대 국민국가의 발전과정이라는 맥락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세계시민교육의 가능성과 기능을 이해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국민국가 형성이 국가질서의 틀을 위한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남아 있는 가능성은 국가의 체제적 기능과 성과를 세계수준으로 확대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계가 마치 하나의 국가인 것처럼 되어 말하자면 ‘세계내부정치’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가 가까운 장래에 충분히 실현될 가능성은 아직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Trembl, 1996, 120-121 참조).

세계시민에 관한 현대의 담론을 살펴보면, 국제법학자인 포크는 세계시민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범주화하고 있다 ① 세계정부나 세계국가 또는 더 강한 유엔을 옹호하는 지구적 개혁가, ② 세계화의 결과로 초국가적인 의식을 획득한 부류(국제적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엘리트), ③ 지구적 질서의 관리, 특히 생태적·경제적 차원에서의 질서관리에 관심을 가지는 부류, ④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적 정치의식이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부류, ⑤ 1980년대 이후 사회운동에서 중요해지기 시작한 초국가적 행동주의와 연관된 부류(Falk, 1994, 132-139; 노찬옥, 2003, 13-15 참조). 한편 히터는 20세기에 나온 세계시민의 개념을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이중 두 가지는 포크의 설명과 중복되며, 히터가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범주는 국제법·세계법에 의해 지위가 부여되는 세계시민과 지구적 책임의식을 갖춘 세계시민이다(Heater, 1996, 170-176; 노찬옥, 2003, 15 참조).

현대담론에서의 세계시민을 검토한 다음에 노찬옥은 세계시민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명제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세계국가의 시민과 같은 과거의 단순하고 이상주의적인 개념은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 오늘날은 세계화라는 복잡한 현실을 바탕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세계시민에 대한 단정적인 입장을 떨리하는 편이다. 둘째, 전통적인 시민성은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세계시민성도 국제법적인 지위와 관련하여 위상이 모색되고 있다. 셋째, 세계시민사회가 활성화되면서 여기서 활동하는 개인과 단체들이 명실상부한 세계시민으로 행위를 하게 된다. 넷째, 현대담론 중에서 특히 지구적 책임의식을 갖춘 세계시민의 개념이 교육적으로 가장 주목할 만하다(노찬옥, 2003, 16-17 참조).

(2) 세계화와 지구촌관리, 그리고 세계시민의식

세계적인 규모에서의 중앙집권국가, 즉 '세계국가'에 대한 기대는 실현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시민에 대한 관심이 새삼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흔히 '세계화'로 지칭되는 사회변동 과정을 거치면서 지구적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호연결과 상호의존으로 인하여 여러 국가와 민족이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구촌문제의 해결과 취급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국민국가 중심의 사고와 행위를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요

칭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국제관계에서 1989/1990년의 전환국면은 소위 '지구주의의 시대'를 알리는 신호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모든 생활영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구조변동을 많은 전문가와 출판물이 '세계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다루고 있으며, 각종 회의와 국제기구에서도 이 현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세계화라는 개념 뒤에 어떤 전개과정이 도사리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관점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구촌관리'(혹은 '세계통치체제')에 관한 논의를 위한 배경설명으로서 먼저 세계화와 관련된 경향·차원·파급효과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합의를 보고 있는 사항을 몇 가지 제시하기로 한다.

(가) 세계화의 합의

① 세계화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에 개시된 '세계의 서구화'가 가속화된 것이다. 세계화는 또한 운명적인 자연적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의도한 규제완화(혹은 탈규제) 전략의 결과이다. 세계화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왜냐하면 세계사의 발전경향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발전경향의 역학을 정치적으로 조정하고, 정치의 구성력을 강화하는 일은 절실히 요구된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는 것은 국민국가들이 점점 더 경계가 파괴된 공간에서 정치적 구성과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② 세계화는 위험과 기회를 안고 있으며, 승자와 패자를 수반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지역의 사회 내부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화의 비용과 이득이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갈등잠재성을 안고 있는데, 이러

한 양극화(兩極化)경향이 계속된다면, ‘세계는 하나’라는 규범적 구성개념에 도달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③ 세계시장은 경쟁력과 함께 각국의 개발능력을 평가하고 판정하는, 말하자면 ‘세계법원’의 기능을 하고 있다. 강화된 국제적 경쟁조건으로 인하여 세계 도처에서 사회복지와 환경기준이 압력을 받고 있다. 인권단체는 이미 도달한 인권기준을 세계화가 다시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경고한다.

④ 소위 ‘세계위협사회’(올리히 벡)에서 어떤 국가도 피할 수 없는 세계문제 혹은 지구촌문제를 통제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의 물음이 세계정치의 핵심적인 문제가 되었다. 경제·기술·의사소통·수송체계의 세계화와 더불어 부정적인 추세도 국제화되고 있다. 상호의존적인 세계에서 섬과 같이 고립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현실감을 상실하는 일이며, 다양한 상호의존의 도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외관상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생기는 문제들, 이를테면 빈곤화, 환경파괴, 빈곤으로 인한 이주 및 난민, 분쟁과 같은 문제들은 지구적 수준의 부메랑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들이 세계화된다면, 정치도 역시 세계화되어야 한다. 세계화의 도전에 대하여 해답을 찾으려는 시도를 어떤 사람들은 ‘지구정책’이나 ‘세계내부정책’이라고 부르며, 다른 사람들은 ‘세계질서정책’이나 ‘지구적 구조정책’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동안에 빌리 브란트의 정신을 이어받은 ‘지구촌관리 위원회(Commission on Global Governance)’가 국제적인 논의에 ‘지구촌관리(global governance)’라는 개념을 도입한 이래 이 개념도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유엔대학(UNU: United Nations University)의 연구프로그램에서 나온 잡지 “지구촌관리”에서는 지구촌관리의 개념을 다자간

협력주의의 증진과 동일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기구와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을 통한 국제적인 협력의 강화를 함축하고 있다. 여기서 국제연합이 지구촌관리의 중심을 형성하게 된다. 지구촌관리 위원회는 1995년에 “우리의 지구촌 이웃”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유엔체제 및 유엔헌장의 개혁을 전략적 숙고의 중심에 놓고 있지만, 보고서의 표제어가 암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이상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즉, 여기서는 유엔체제의 강화와 활성화를 통하여 지구정책을 확보한다는 관점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사회세계의 변화된 역할을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정치모형이 중요한 관건으로 제시되고 있다(Nuscheler 편, 2000, 239-241 참조).

(나) 지구촌관리의 전제조건

지구촌관리 위원회는 지구촌관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조건으로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장기적인 측면에서 평화를 확보하려면, 국가들이 법치국가의 구조와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법치국가의 구조와 체제를 갖춘다는 것은 국내에서는 선정(善政)(good governance: 통치자들의 책임의무, 사법권 독립, 기본권 존중)이 이루어지고, 국제관계에서는 국제법이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테러와 무정부상태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물리적 힘의 행사에 대한 독점을 회복하고, 민주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일을 지구촌관리가 감당하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지구촌관리는 세계 어느 곳에서(예를 들면, 1990년대의 르완다·코소보·동티모르)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그냥 묵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한 개입의 문화’에 대하여 의무를 지고 있다.

둘째, 평화능력이 있는 국제정치는 비록 ‘세계국가’를 필요로 하진 않지만, 자유공화국들의 연합 내에서 작용하는 국제법이 규율할 수 있는 힘과 구속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설치와 국제관계의 문명화를 위하여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법의 본거지로 간주되고 있지만, 심각한 구성적 결함을 갖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해당 국가들이 제재를 받을 우려가 없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재능력을 갖춘 초국가적 힘을 전제로 하는 ‘세계내부정책’의 개념도 역시 현재로서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이제 형성되고 있는 세계사회는 ‘세계시민권’을 포함한 ‘세계시민헌정’, 즉 보편적인 인권의 기초 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국제적인 협력문화의 형성은 협상체제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규칙체계 및 절차규칙 이외에 공동의 가치 및 행위원칙의 기반을 전제로 하며, 또한 최소한의 신뢰와 타협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정당한 이해관계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다. 구속력 있는 규칙체계는 국가적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서도 역시 모든 질서를 위한 전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의 보편성과 인권의 문화적 상대화(보기: ‘아시아적 가치’, ‘이슬람의 가치’)를 둘러싼 논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인권규약에 토대를 둔 윤리적 최소합의의 수립은 문화적 갈등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은 국제적인 문화투쟁 혹은 문명충돌의 시나리오에 따라 보편성원칙을 법적인 허구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는 반면에, 신학자 한스 쾅은 간문화적인 대화를 통해서 ‘지구촌윤리’를 탐색하고 확립할 수 있다는 희망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은 문화갈등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힘과 분배의 갈등이 안고 있는

본래의 원인을 간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면, 다른 한편은 대화를 통하여 무력행사와 문화갈등을 방지하려고 한다.

‘지구촌윤리’를 옹호하는 한스 쾨의 대안은 예전의 군비(軍備) 통제와 비슷하게 앞으로는 간문화적인 대화가 신뢰를 형성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간문화적 대화는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향하는 일방통로가 아니라, ‘공동의 학습문화’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우리 시대의 큰 도전들이 지니고 있는 지구적 성격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구적 수준의 학습 및 연구공동체가 필요하며, 선진공업국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어떤 것을 가르치려는 태도를 버리고, 스스로 ‘학습사회’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구적 책임윤리에 대한 옹호는 단순한 도덕적 호소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인류 공동의 생존에 대한 책임을 떠맡는 그러한 윤리가 없다면, 지구촌관리는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세계가 하나의 ‘운명공동체이며 책임공동체’라는 표현 뒤에는 그러한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정의·연대와 같은 전통적인 사회윤리의 개념은 이제 지구적 준거들을 얻게 된 것이다. 그래서 원칙적 수준에서 지구촌관리의 규범적 구조원리에 대한 합의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원칙수준에서의 합의가 바로 이 원칙에 따른 행위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다. 국제적인 협력문화를 추구하는 낭만주의를 종종 힘에 기초한 패권주의가 이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지구촌관리는 바람직한 미래에 투사한 목표개념이지, 국제체제의 현재상태를 기술하는 것은 아니다(Nuscheler 편, 2000, 244-246 참조).

(다) 지구촌관리의 구조

세계화를 구성하고, 세계평화를 조직하고, 세계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회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일부 ‘세계주의자들’은 세계국가에 대한 비전을 머리 속에서 버리지 못하고 있다. 소위 ‘세계연방주의자들’의 핵심적인 신조는 지속적인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부 위에 위치한 집행기관이 지구적 범규범을 직접 개인과 집단에 대해서 관철시킬 수 정도로 국가주권을 제한하는 세계질서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구총관리의 구조는 이러한 단서를 전제로 한 세계국가에 대한 옹호를 공유하지 않는다.

① 지구총관리는 지구적 정부, 즉 세계정부나 세계국가가 아니다. 그런 것은 현실적이지도 못하며, 추구할 가치가 있는 선택사항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관료적 ‘슈퍼당국’은 민주적 정통성을 획득하기 힘들며, 해결해야 할 문제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세계적 규모에서 정치적 개혁의제에 놓여 있는 것은 탈중심화이다. 세계화의 압력은 보호 및 저항을 위한 동맹세력으로서 지역기구의 평가절상을 촉진하고 있으며, 국가적·지방적 수준에서 자율적인 행위의 자유여지에 대한 필요를 동원시키고 있다. 세계국가의 형태를 갖춘 ‘세계 킹콩(World King Kong)’은 중앙집권주의와 관료중심주의의 온갖 폐단을 강화할 것이다.

② 지구총관리는 국제적 조정·협력·집단적 의사결정 탐색의 여러 다른 형식과 수준에 기초하고 있다. 국제기구가 이러한 조정기능을 떠맡을 것이며, 지구적 관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레짐은 협력에의 의지를 구속력 있는 규칙체제로 옮길 것이다. 그러한 국제레짐에서 국가들은 조약과 같은 합의를 통하여 공동의 문제를 다루려는 책임의식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국제레짐은 ‘정부 없는 통치(혹은 관리)(governance without government)’의 핵심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패권국가들

도 역시 이러한 레짐에 참여할 것이다. 왜냐하면 레짐은 그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중요한 것을 규율하고 그들 혼자서는 규율할 수 없는 것을 규율하기 때문이다.

③ 협력에 대한 강제는, 세계화의 효과와 상호의존구조가 이미 오래 전부터 강요한 것이지만, 어느 정도 주권의 포기를 요구한다. 강대국들도 역시 스스로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주권의 공유’와 타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유럽연합의 보기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러한 주권의 공유는 공동의 행위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 지구촌관리는 주권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시대착오적인 유물로 간주한다. 국가세계가 점점 더 경계파괴(혹은 탈경계)의 현상을 보이면서 전통적인 주권개념은 약화되고 있으며,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전통적인 ‘당구모형’은 ‘거미줄모형’으로 대체되고 있다.

④ ‘다극체제의 세계’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세계경제 및 세계정치 비중의 새로운 배분은 지역화라는 과정을 동반하고 있다. 이 지역화는 세계화의 압력을 통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세계화와 지역화, 그리고 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성은 세계사회와 세계정치의 구조적 발전경향에 속한다.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방화(localization)의 동시성을 가리키는 개념으로서 ‘세방화(glocalization)’라는 말도 생겨났다. 여러 지역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협력 혹은 통합지대가 성공적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유럽연합이 가장 많이 발전된 ‘지역관리(regional governance)’의 모범이 되고 있다.

⑤ 지구촌관리는 국제사회의 수단인 국제기구의 정부들만 참여하고 있는 기획이 아니다. ‘지구촌관리 위원회’가 새롭게 제시한 개념은 국가적으로 조직화된 다자간 협력주의에 국한되는 것

이 아니라, 지방수준에서부터 지구수준에 걸쳐 국가적 행위자와 비국가적 행위자가 협력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평적·수직적 네트워크의 구조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공사(公私) 동반자관계’는 지구적 수준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 그리고 지구적 원격통신을 통제하는 미디어 기업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이 초국가적으로 조직화된 비정부기구(NGO)와도 관련이 있다. 비정부기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세계회의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비교적 ‘부드러운’ 정치영역(환경·인권·개발정책)에서는 단순히 자문과 수정을 하는 기능을 넘어서서 함께 동참하여 사업을 구성하는 기능을 떠맡고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각 국가가 외교적인 배타성을 가지고 통치할 수 있는 세상이 더 이상 아니다. 그래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1999)도 국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용한 혁명’에 대해서 말한 바 있다. 예를 들면, 지뢰금지협약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비정부기구가 세계적인 규모에서 주도적으로 운동을 벌인 일, 국가 및 국제수준에서의 환경 및 인권정책에 비정부기구가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 등을 보면, 이미 ‘세계정치의 비정부기구화(NGO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이 제기되기도 한다. 유엔의 각종 위원회와 세계회의에서 비정부기구들이 이미 어느 정도 지구촌관리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세계정치의 비정부기구화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부기구는 여러 정책분야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잠재력을 상당한 정도 국제체제에 끌어들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국가적인 행동형태를 통해서 ‘반(反)패권적인 세계화’를 조직화하기도 한다. 특히 여성운동의 보기에서 이런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국민국가는 권위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국제정치的主要 행위자로 남아 있고, 지구촌관리의 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국가 는 경제세계 및 사회세계와 네트워크 방식으로 연결되지 않고서 는 더 이상 지탱능력이 없다. ‘공사 동반자관계’란 국가들이 사회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공동의 문제해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오래 전부터 참여지향적인 ‘밑으로부터 의(bottom-up)’ 의사결정 절차가 중앙집권적인 ‘위로부터의(top-down)’ 절차에 비해 성취능력이 더 많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Nuscheler 편, 2000, 242-244 참조).

(라) 지구촌관리의 전망

지구촌관리의 기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의가 제기 되고 있다. 그것은 이론이 없는 구성개념으로서, 각종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현실에 대하여 비판적인 분석을 하면서 별 근거도 없이 주의론(主意論)적인 방식으로 미래의 비전으로 도피를 한다는 비판이 있다. 그것은 힘의 요인과 패권적 이해관계를 소홀히 다루고, 따라서 세계정치와 세계경제에서 작용하는 현실적인 힘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내일의 세계를 위한 구체적인 이상향을 결코 제공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그것은 여성주의적인 개념을 무시하고 있으며, 해방적 갈등해결전략을 소홀히 하고, 지나치게 공공영역과 사적 영역의 협력적인 ‘동반자관계’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래서 정치 및 학문분야에서의 ‘현실주의자들’은 지구촌관리의 기획에 별다른 실현가능성을 기대하기 않고 있다. 그들은 세계화의 결과 오히려 경쟁상황, 규제완화의 경쟁, 그리고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런 것들은 지구촌관리를 통해서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다.

21세기 초의 시점에서 볼 때, 지구촌관리는 사실상 그렇게 확고한 기반을 갖고 있는 기획이라고 볼 수는 없다. 미국이 일방주의적인 패권주의 정책으로 선회라고, 지구촌관리 구조의 중요한 기둥을 형성하는 유엔체제가 흔들리는 경향을 보인다면, 다자간 협력주의에 입각한 안보의 개념은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그래서 ‘신국제질서’ 대신에 ‘신국제무질서’라는 말도 종종 사용되고 있다. ‘신국제질서’에서는 힘이 아니라, 국제법과 협력의 문화가 국가들의 행위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지구촌관리를 단순히 환상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는 발전경향도 역시 존재한다. 여러 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심화시키고 규율을 하는 일련의 레짐이 수립되고 있다.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세계적인 규모에서 징벌하는 데 목표를 둔 국제형사재판소가 설치되었다. 개발정책의 분야에서 필요한 조건 제시와 유인책을 통하여 인권상태의 개선과 범치국가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개입(혹은 간섭)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정치를 더 이상 국가에게 떠넘기지 않는 세계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있다. 절박한 지구촌문제들에 대한 협력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세계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압력과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의 압력을 받으면서 신자유주의적인 ‘워싱턴 합의’가 어느 정도 흔들리고 있다. 1999년 가을에 개최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통합회의는 두 국제기구로 하여금 빈곤문제의 퇴치를 위하여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여러 국제기구와 협상과정에서 협력적인 사고 및 행동유형이 연습되고 있으며, 각국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협력을 포기할 경우 교섭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구적 수준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 즉 ‘글로벌 플레이어(global players)’는 통제 받지 않고 진행되는 세계화의 고유역학을 어느 정도 조정하고 규율하려고 하며,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은 미국도 국제적인 협력에 동참하게 된다. 왜냐하면 미국이 홀로 혹은 나토와 결합하여 세계의 통치가능성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제테러리즘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연대의 수립에서 미국이 보여준 행위는 이러한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패권으로 세계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다중심적이고 불안한 세계에서는 장래성이 없는 것이다.

요컨대, 지구촌관리는 행복한 ‘지구촌이웃’을 위한 낭만적인 기획이 아니라, 세계화와 지구적 위협요인의 도전에 대한 현실적인 해답인 것이다. 그것은 단계적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진화적인 기획이다. 여러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초에는 유엔이 설립된 시기, 즉 냉전이 이미 개시된 시기와 비교해 볼 때, 신세계질서를 위한 기회가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지구촌관리는 따라서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바람직한 비전을 제시하는 방안이며 기획이다(Nuscheler 편, 2000, 259-260 참조).

(마) 지구촌관리와 세계시민의식

세계공화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지구촌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리고 지방·지역·국가·세계 수준의 정치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다(多)수준 체제에서 지구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계시민의식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세계시민의식은 세계의 모든 문화에서 개발되어야 한다. 세계시민의식이 생겨나려면 우선 지구적 수준의 상호의존과 세계위협사회의 도전(즉, 지구촌문제)을 고려할 때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또한 정의와 연대의 정신을 가지고 세계사회의 생활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여기서 특히 정치 그 자체와 교육 및 학문 관련 기관, 그리고 시민사회의 단체와 개인들에게 기대를 걸어야 한다(Hauchler 외편, 2001, 20-21 참조).

(3) 세계시민사회의 등장과 기능

세계화와 더불어 ‘지구촌’의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한 것이 ‘지구적 시민사회’ 혹은 ‘세계시민사회’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상의 발전, 세계적인 규모에서 전개된 민주화물결, 그리고 사회적 문제들과 도전의 증가, 그리고 이 문제들이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지구촌의식 등이 세계시민사회의 등장에 기여하였다.

세계시민사회는 지방·국가·세계수준에서 사회의 여러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기구(협회, 시민운동단체, 비정부기구)의 총칭이다. 그들이 하는 작업과 활동의 목표는 개인과 사회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데 있다. 세계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단체와 제도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생태문제, 남북관계, 인권문제와 같은 특정한 영역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문화적으로 서로 다른 기구나 단체가 초국가적인 수준에서 혹은 지구적인 수준에서 효과적인 협력형태를 개발하고 유지한다는 것이 언제나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 리우(Rio)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1992)와 그 후속회의인 요하네스버그의 ‘지속가능한 개발 세계정상회의’(2002)는 세계시민사회가 여전히 상당히 많이 흩어져 있고, 서로 조정이 잘 안 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분열되어 있다는 것

을 보여주었다. 이를테면, 남(개도국)과 북(선진공업국), 환경보호자와 개도국 개발주의자, 온건한 개혁주의자와 급진적 혁명주의자, 지방주의자와 세계주의자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세계시민사회는 적어도 다음 세가지의 근본적인 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그것은 지구적 수준의 양심 혹은 도덕의식을 각성시키는 기능을 떠맡고 있다. 물론 보편적인 종교와 그 산하 종교단체들을 그러한 도덕의식의 담당자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더 넓게 보면, 세계시민사회가 '세계인권선언'의 도덕적 원칙과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결집이 없다면, 세계적으로 정의를 대변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것이다.

둘째, 시민사회는 세계적 수준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필요와 소망,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함께 구성하는 데 있어서 대변자 노릇을 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민사회는 인간개발·자유·평등·평화·연대·정의의 물음에 대한 인류의 대변자 구실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세계적인 규모에서 기아와 식량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로생활과 가정, 그리고 공공영역에서 여성의 생활조건을 향상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 또한, 생태적 평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오존층파괴와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족이나 국가간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빈곤과 사회적 차별, 그리고 불관용의 사례를 줄여나가는 데 노력하고 있다.

셋째, 세계시민사회는 새로운 정치적 행동방식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세계적 수준의 활동공간을 제공한다. 세계시민사회의 기능은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데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일에

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행위방식을 통해서 세계시민사회는 문제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새로운 제도적·경제적·사회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회를 활용한다.

오늘날 국제무대에서 여전히 지배적인 행위자로 행세하는 각국 정부는 이제 지역적·국제적·지구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대결하거나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 단체들은 종종 기업과 국가들 사이의 경쟁관계를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들은 각국 정부와 다국적 기업의 일방적인 이해관계 타산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Die Gruppe von Lissabon, 1997, 37-43; 허영식, 2000, 131-134 참조)

예를 들면, 1999년 말 시애틀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3차 각료회의(소위 '뉴 라운드' 또는 '밀레니엄 라운드')를 맞아 세계무역기구와 비정부기구(NGO)가 일대 격돌을 벌인 현상, 그리고 2000년과 2001년 초 스위스의 다보스(Davos) 세계경제포럼(WEF) 개최 현장에서 시위를 벌인 비정부기구의 저항행동, 2000년 일본 오키나와와 2001년 이태리 제노바에서 개최된 주요 8개국 정상회의(G8)에서 비정부기구의 시위, 2000년 가을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 통합회의에서의 시위와 부상자 속출, 그리고 2000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서 비정부기구의 활동 등은 모두 이런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2) 동양의 세계시민에 대한 개념 및 논의

(1) 동양사상과 세계시민

동양사상에서 세계시민에 관한 연결고리는 특히 중국의 천하(天下)사상과 유가의 대동론(大同論)에서 찾을 수 있다. 천하사상은 춘추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인간사회의 보편적 질서를 의미하는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유가의 대동론은 천하사상에서 표방하는 세계의 궁극적 모습을 함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도덕공동체를 이룩하여 세계 곳곳에 평화가 깃들고 사람마다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태평천하를 그린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공동체는 인류 전체의 항구적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천하사상과 그 궁극적 이상인 대동론은 보편적 세계공동체로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서 출발하여 장현근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천하사상과 대동론에 함축되어 있는 인식과 가치는 개인의 절대화와 도구적 이성이 부른 현대 민주주의의 병폐를 구제하여 보편적인 세계시민에 관한 논의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 그렇지만 대동의 최고원칙인 공천하(公天下)를 이루어내지 못한 채 가천하(家天下)의 범주 내에서만 사고함으로써 끝내 중심관념과 위계질서적 세계관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한계점도 안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화(中華)로부터 흘러내리는 천하였으며, 군자로부터 흘러내리는 대동이었다. 그 결과 주변국가들이 대동한 입장에서 공동의 운명을 논의할 수 없어 보편적 세계질서를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다수민중이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 합의에 기초한 보편적 민주질서를 마련하는 데 곤란한 점이 있다.

이러한 내재적 한계를 의식하면서 중국의 천하관과 유가의 대

동론을 서양의 근대 민주주의 이념과 상호보완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다면 동서양을 아우르는 세계시민의 개념을 확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즉, 정치문화의 측면에서 서양 근대 민주주의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제도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동양정신과 적절히 결합시킬 수 있다면 개인적·사회적 측면에서 보다 발전된 문화세계의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장현근, 1995, 258-259 참조).

장현근은 또한 후속연구에서 세계시민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개념으로서 '군자(君子)'를 부각시키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장현근, 1997, 366-367 참조).

① 군자의 의미를 훌륭한 정치가로 정의할 경우 평화와 안녕이라는 세계공동체의 정치적 이상에 합치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군자가 갖는 강한 정치성과 사람들을 정치에 능동적으로 참여시키는 역할에 주의를 기울이고, 시민을 정치에 참여하고 비판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때, 군자는 논의의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자론은 개체와 세계를 동시에 포용할 수 있어 세계시민론에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다.

④ 유가사상가들처럼 군자를 강조하는 것 자체만으로 도덕적 윤리관계의 확장을 통한 세계시민의식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전통사상 내에서도 세계시민론을 유추해 낼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예를 들면 퇴계나 율곡의 소중화론(小中華論)에서도 우주적 세계질서를 구상하고 있으며, 조선후기 북학파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피력하였다. 따라서 만약 오늘날의 세계시민론이

민족주의나 애국주의의 연장선상에서 구상하는 일이 가능하다면, 한국에서의 세계시민 관련 논의는 한국적 정체성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장현근, 1997, 351 참조).

최근 국내에서 행해진 세계시민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를 지적하자면,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에서 1980년대에 수행한 연구프로젝트를 소개할 수 있다. 여기서 제기한 문제의식은 아직도 공적인 인간으로서 시민들의 궁극적인 행위규범은 애국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애국심 같은 공적인 규범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반면에 그에 대신하는 새로운 규범은 확실하게 떠오르지 않는 시대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세계시민교과서”(1986)가 발간되었으며, 이 연구결과는 적어도 실험적 수준에서 보편사상으로서의 세계공동체 이념을 보다 더 구체적인 세계시민론으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종일, 1997, 281-282; 장현근, 1997, 351 참조).

(2) 시민개념에 대한 사회적 변화요구: 민족적 시민과 세계시민

이인규는 현대적 시민개념이 민족적 시민에서 세계시민으로, 개인주의적 시민에서 공동체적 시민으로, 현세대의 시민에서 지속가능성의 시민으로, 가부장제적 시민에서 양성성의 시민으로 변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최종적인 귀착점은 민주주의의 완성이고 확장이라는 점도 역시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민족적 시민에서 대한 세계시민으로의 전환요구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 그는 한국교육 속의 시민개념이 세계화 현상에 따른 변화요구를 받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동안 민족과 국민의 테두리에 갇혀 있었던 시민의 개

념을 세계시민의 개념으로 확산시켜야 할 필요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맥락에서 이론적 기초로서 '세계화'라는 용어가 포함하고 있는 측면을 다음과 같이 원용하고 있다. ① 경제·정치 및 군사, 그리고 사회·문화 및 기술적 영역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지구적 차원의 객관적 추세로서, 인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전지구적 상관성의 심화, ② 이러한 객관적 변화추세 앞에서 이에 경쟁력 있게 대응하여야 하는 한 국민국가의 국가정책 방향과 시민교육 정책 등을 포함한 행위주체적 대응논리, 그리고 ③ 세계화시대의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의식 및 행위규범을 포함한 개인의 개발방향(라종일, 1995; 이인규, 1997, 98-99 참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아직 국민국가가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국가의 틀 속에서 국민들은 동일한 운명공동체를 체험한다는 점에도 역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한국은 아직 민족통일이라는 민족주의 과업도 성취하지 못한 채 개방화·세계화라는 새로운 세계주의로부터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방화 차원으로서 민족문화를 복원하고 이를 발전시킬 과제도 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 관점에서 보면 일견 배타성과 고립성을 함축하고 있는 듯한 한국 민족주의가 과연 폐기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격동과 고난의 근대사를 겪어오면서 이른바 '민족주의'를 정신적 이정표로 삼아온 우리에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모순된 양자의 결합은 '민족주의냐 아니면 세계주의냐' 하는 양자택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세계시민주의와 민족주의의 조화를 꾀할 것인가 하는

물음으로 귀착된다. 하지만 민족적 시민과 세계시민의 조화를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욱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청사항으로 끝을 맺고 있다(이인규, 1997, 98-113 참조).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좀더 자세한 논의는 이 글에서 나중에 민족의식과 세계시민의식의 연계성 문제를 다루는 절에서 행해질 것이다.

(3) 시민교육의 목표와 내용준거로서의 세계시민

이 부분에서는 세계시민의 개념이 우리나라 교육이념과 교육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물음에 중점을 두고, 특히 시민교육의 목표설정과 내용선정 및 구성을 위한 준거로서의 세계시민을 취급하기로 한다.

시민교육의 목표와 내용설정의 근거가 되는 규범과 법규를 살펴보면, 우선 헌법전문(1987)에서 명시적으로 밝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의 관련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가 세계시민의 개념과 직접 관련되는 문구가 될 것이다 여기서 참고로 헌법전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또한 일반적인 교육이념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기본법 제2조를 인용하기로 한다. 이 교육이념은 시민교육의 이념과 목표를 도출하고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역시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여기서도 ‘홍익인간의 이념’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이 세계시민을 함축하고 있는 부분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¹⁾

이러한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제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교육부, 1998a, 2).

①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1)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홍익인간, 전인의 육성 등이 교육의 이상으로 자리잡아 왔다. 해방 이후 우리 교육에서 가장 포괄적인 수준의 교육이념으로 제시된 것은 바로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이다. 교육이념이란 ‘교육적 행위 전체를 지휘하는 근본원리’로서, 혹은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수준의 활동이나 원리에 대한 교육적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가치체계’로서 이해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 제시된 교육이념에서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이념과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국가차원의 이념, 그리고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이라는 세계적 이념은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설정과 관련하여 꾸준히 재음미되어 왔다. 이러한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은 그 적절성과 의미 있는 역할에 대한 논의를 거듭하면서도 194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포괄적인 교육이념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좀더 분명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해 줄 다른 무엇을 찾게 되었고, 그것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설정하는 바탕이 되었다. 요컨대, 교육기본법에 제시된 이념은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걸쳐 추구하고 나아가 할 교육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과 각급 학교의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설정시 기저가 되고 있다(교육부, 1998b, 19-20 참조)

- ② 기초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 ③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④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 ⑤ 민주시민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여기서 다섯 번째 항목인 민주시민의식과 관련된 인간상에 대해 부연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민주시민 자질의 구성요소에는 타인을 존중하고 대화하는 시민성, 개인의 책임, 자율, 시민다운 마음, 개방적인 마음, 원칙 존중과 타협, 다양성에 대한 관용, 인내와 지구력, 정열, 관대함, 국가와 그 원칙에 대한 충성 등이 있다. 민주주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며, 존엄한 인간 삶의 조건을 부단히 재형성해 가는 과정 그 자체인 것이다. 즉,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을 위한 삶의 방법적 원리를 개방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해 나가는 공동체적 삶의 과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시민은 그들 자신과 그가 속한 공동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그들 스스로가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민주적 공동체는 모든 개인의 자유·평등·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되는 사회이다. 이러한 민주적 공동체의 이상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교육적 이상이다. 민주적 공동체는 모든 사람의 자유를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보호하고자 하며, 또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는 평등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대접받으며 살 권리를 보장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

는 인간,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 민주적 공동체의 이상이다. 제7차 교육과정을 통하여 추구하는 교육적 인간상은 자신과 차이를 가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간,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인간, 자신의 부를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인간이다. 이러한 인간은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교육부, 1998b, 90 참조).²⁾

몇 년 전에 교육부가 발간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1999.3.)을 보면,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주도하는 교육’을 표방하면서 ‘유능하고 창의적인 인간’, ‘양식과 인성을 갖춘 사람다운 사람’, 그리고 ‘우리 문화에 자긍심을 가진 세계시민’의 총화로서 ‘바람직한 홍익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적어도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물론 ‘세계시민’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바람직한 인간상으로서 ‘민주시민’이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렇지만 ‘홍익인간’이라는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을 현대적 의미로 바꾸면 그것이 바로 세계시민의식과 행동도 역시 포함하고 있는 ‘민주시민’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이념 및 교육목적과의 관계 속에서 학교급별 교육목표가 어떻게 진술되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여기서는 참고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목표 중 종합목표 부분만을 제시한다

▷초등학교 교육목표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배양과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중학교 교육목표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학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고등학교 교육목표 고등학교의 교육은 중학교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개척능력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교육부, 1998a, 3-4)

3) 민족의식과 세계시민의식

이 절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시대에 민족의식과 세계시민의식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지, 그 두 가지 개념 사이의 연계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물음에 주안점을 두고 몇 가지 측면 혹은 관점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우선 민주와 민족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민족정체성과 헌법애국주의의 관계를 논의한다. 그 다음에 민족의식과 간문화성의 관점을 서술하고 지구촌문제와 지구촌윤리의 문제를 다룬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마지막으로 세계시민의식에 포함시킬 수 있는 구성요소에 주의를 기울이기로 한다.

(1) 민주와 민족의 관계

여기서는 민주와 민족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민족의식 및 세계시민의식과 관련된 준거모형을 비교분석의 관점에서 제시한다. 민족과 민주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념형 수준에서 적어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준거모형을 구분할 수 있다.

그 첫째 모형은 보편주의적인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민족과 민주주의 관계이다. 이 모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최근의 이론적 기초로서는 보편적인 인권과 규칙에서 출발하는 소위 ‘자유주의적 입장’과 ‘공동체주의적·시민사회적 입장’을 지적할 수 있다 (Mickel, 2000, 10 참조). 이 입장에 따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원칙적인 동일시는 결코 근대성에서 도피하여 어떤 민족공동체 이데올로기로 빠져들지 않으며, 지나친 집단정체성의 강조나 국민교육적인 교화(教化: indoctrination)로 나아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대의 민주공동체는 “자신의 정체성을 일차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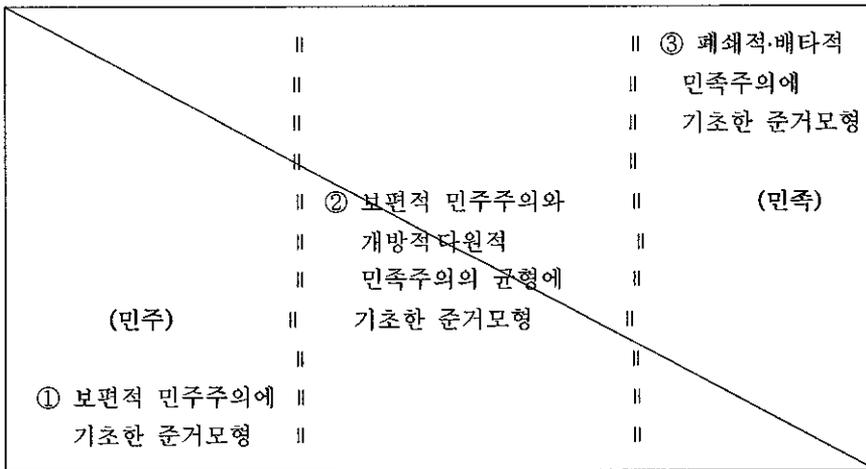
로 민족적·문화적 공통점에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민주적 참여 및 의사소통 권리를 능동적으로 행사하는 시민들의 실천 속에서 찾기 때문이다”(Habermas, 1992, 636)

이에 비해서 민주주의 문제와 민족의식에 관하여, 민족의 중요성에 지향을 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우리’ 의식과 연대, 전통적인 정서적 결속, 그리고 어느 정도의 국민적 동질성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여기서 다시 두 입장을 분화시킬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보다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민족주의 이념에 기초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다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 이념에 바탕을 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전자는 보다 순화된 혹은 정제된 입장이며, 후자는 보다 급진적이고 편협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폐쇄적·배타적 민족주의에 입각할 경우에는 ‘민주’라는 준거는 선언적·상징적 의미에 머물거나 아니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관철이나 권력유지를 위한 도구로 기능하기 쉽다.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흐르다 보면, 통일문제와 관련시켜 볼 때, 마치 개발을 위해서는 민주주의나 민주화를 잠정적으로 유보하거나 심지어 희생할 수도 있다는 논리에 입각한 소위 ‘개발독재’나, 아니면 환경보호 혹은 환경보전의 궁극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유보할 수 있다는 ‘생태독재’ 혹은 ‘환경독재’와 유사하게 민족통일의 가치준거를 절대시하는 ‘통일지상주의’, ‘감상적 통일론’ 혹은 ‘통일독재’의 위협에 빠질 수 있다. 한편 폐쇄적·배타적 민족주의의 극단적인 보기로는 과거 독일의 민족사회주의나 오늘날 이를테면 ‘외국인 혐오’ 행태를 보여주는 극우파를 들 수 있다.

이제 민족의식과 세계시민의식의 연계성 문제를 고려하면서, 이 두 입장을 보편적인 인권과 규칙 준수에 기초한 첫 번째 입장과 연결을 시도한다면, 우선 폐쇄적·배타적 민족주의는 논의

로 해야 할 것이며, 여기서 우리가 기대를 걸 수 있는 입장은 당연히 개방적·다원적 민족주의가 될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서 ① 보편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준거모형, ② 보편적 민주주의와 개방적·다원적 민족주의의 균형에 기초한 준거모형, 그리고 ③ 폐쇄적·배타적 민족주의에 기초한 준거모형을 구분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준거모형의 상호관계를 도식화한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민주와 민족의 관계>

위의 도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민주적 가치준거와 민족적 가치준거의 바람직한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보편적 민주주의와 개방적·다원적 민족주의의 조화와 균형에 기초한 준거모형 ②에 따라야 할 것이다. 여기서 민족(ethnos)이라는 특정문화 혹은 집단의 특수성과 '민중(demos)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보편성, 그리고 동포애나 민족애에 호소하는 정서적인 측면과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는 합리적인 측면의 긴장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함으로써 더 이상 뒤로 물러서게 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와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규범적인 과제가 이미 내포되어 있다.

준거모형 ②의 특징을 좀더 구체적으로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건전한 민족의식에 대한 믿음은 이를테면 “외국인에 대한 관용, 세계에 대한 개방성, 인권존중, 약자에 대한 연대의식, 국제기구와 같은 초국가조직에 대한 민족적 권리의 양도 등을 포괄한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민족문화와 언어의 보호 및 장려, 향토의식, 건전한 애국심과 민족적 이해관계의 옹호 등도 포함하고 있다. 밖을 향한 개방과 관용은 내면적인 자기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Ruether, 1993, 12).

(2) 민족정체성과 헌법애국주의

(가) 민족정체성과 헌법애국주의의 긴장관계

여기서는 먼저 논의의 편의상 본보기로 민족준거에 대하여 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입장과 보다 더 비판적인 입장을 대비시키면서 민족정체성과 소위 ‘헌법애국주의’의 긴장관계를 둘러싼 쟁점과 문제의식을 명료화하기로 한다.

슈나이더는 부분이익들을 포괄하면서 그것들을 뛰어넘는 정치조직의 운명에 대한 공동책임을 ‘공동체연대’라고 지칭하면서 이것을 시민교육의 준거로 삼으려 한다. 그는 이해관계의 개념을 개인 자신의 이해관계,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공감의 대상), 그리고 사회 전체에 대한 책임의 세 가지 수준으로 분화시킨다. 여기서 마지막 수준의 사회 전체에는 향토와 국가 그리고 정치적으로 아직 충분히 조직화되지 못한 인류 전체도 포함된다. 이렇게 볼 때 동일시의 준거는 향토, 지방, 지역, 국가, 민족, 대륙,

그리고 인류가 될 수 있으며, 이때 이를테면 민족과 같은 어느 하나의 동일시 준거가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유보적인 기본 원칙에도 불구하고 슈나이더는 민족 정체성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시민교육학자인 힐리겐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힐리겐은 시민교육의 목표를 논하면서 정치적 행위와 정치적 이해관계는 보편적으로 생각해야 할 규범, 가상적인 세계사회의 필요, 또는 모든 사람들의 생존과 인간다운 삶에 지향을 두어야 한다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공동체와의 동일시’ 문제를 취급하면서 힐리겐은 민족국가의 권력과 강대함에 대한 금지보다는 오히려 ‘헌법애국주의’, 즉 보편적인 이념을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Hilligen, 1985, 147-168, Hilligen, 1991, 46 참조).

민족적인 동일시 감정에 대한 바로 이 회의적인 태도에 대해서 슈나이더는 비난하고 나선다. 그에 따르면 힐리겐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민족이 세계적인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너무 작고, 지방적인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소위 ‘민족 이후의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슈나이더는 힐리겐이 왜 ‘헌법애국주의’를 민족감정과 떼어내려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한다(Schneider, 1991, 180-181 참조).

(나) 헌법애국주의

위와 같은 논쟁의 한 가지 사례에서 출발하여 이제부터는 민족 의식과 세계시민의식의 유기적인 연결을 추구하기 위한 접근방안으로서 제시된 ‘헌법애국주의’에 대하여 보다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① 헌법애국주의의 개념과 의미

헌법애국주의란 자기 자신의 나라에 대하여 가치합리적으로 계몽된 애착, 자기가 속하는 국민과 민족을 위하여 살기 좋은 질서를 마련하려는 의지, 국민과 민족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감수성, 즉 공동체의식 혹은 일반이익을 위한 감수성이라고 개념정의할 수 있다. 이것을 계몽된 공동체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역사적인 배경과 정치세계에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 다시 말해서 국가와 민족의 상태에 대한 인식과 통찰, 즉 국가와 민족의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에 놓여 있다. 이 계몽된 공동체의식의 윤리적 구성요소는 추구해야 할 살기 좋은 질서의 원칙과 가치가 보편적인 타당성을 요구한다는 인식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윤리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게 때문에 헌법애국주의는 다른 국민과 민족의 상태와 미래에 대하여 개방적이며, 이 살기 좋은 질서의 원칙이 사회·문화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곳에서 타당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기여하려고 한다. 따라서 헌법애국주의 그 자체는 자기 자신의 나라와 민족에 대한 지향의 권리와 한계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헌법애국주의에 입각한 사람이 될 수 있으려면 우리 자신의 국가와 민족이 다른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떠맡아야 할 책임에 대한 질문도 역시 제기해야 한다. 이것은 처음에는 자명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와 딜레마를 수반한다. 왜냐하면 좀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오늘날 세계적인 규모의 과장을 갖고 있는 문제, 이를테면 평화와 안보, 빈곤과 난민, 국제적인 수준의 사회정의, 환경파괴 등과 같은 문제를 고려할 때 도대체 책임의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는

지, 그리고 오늘날 국가와 민족의 한계가 여전히 어떠한 의미와 근거가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② 국가·민족의 다양성과 공동책임

예를 들어 인권을 보편적으로 타당하게 만들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물음은 우선 국가들 사이의 협력과 통합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에 관한 물음으로 바뀌 표현할 수 있다. 물론 이때 동시에 제기해야 할 질문은 그러한 공동의 연대의식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와 시민이 책임감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헌법에국주의에 입각한 사람은 국가·지역·지방 수준에서 행위를 하더라도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인 시각에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좀더 정확히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편적인 연대의식은 책임과 구속력의 차이와 등급을 모두 없앤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인간집단과 정치적 결사체의 다양성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연대의식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며 그 연대의식의 정도도 역시 서로 다를 것이다. 책임은 언제나 구체화를 요구한다. 이를테면 권리에 수반하는 의무의 형식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경계가 없는 책임은 막연해지기 쉽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물음은 우리의 정치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책임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책임을 계약이론의 사유모형에 따라 규정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상호성의 원칙에 따른 상호작용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직접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과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사람과 지역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려면 사람들 사이의 연대라는 원칙이 보편적으로 통해야 할 것이다.

③ 보편적 정의 대 문화적·역사적 상대성

헌법애국주의는 새삼스럽게 유럽의 공화적인 전통을 부각하면서 동시에 편협하고 옹졸한 민족주의를 극복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민족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오히려 헌법애국주의는 자유헌정국가에 적합한 민족정체성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 이 민족정체성은 그 자체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또한 다른 정체성과의 경쟁을 의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정치적으로는 보편적인 인권윤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깨닫고 있는 것이다. 결국 헌법애국주의는 자기 자신의 민족정체성이 지니고 있는 전통과 역사 그리고 상대성을 의식하면서 그것을 자유질서 속에서 펼칠 수 있는 정치문화 요소이다. 즉, 민족적 연대의식과 동시에 국제적인 협력과 통합을 위한 개방적 자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세계적인 규모의 문제와 과제를 고려할 때 이러한 자세는 한층 더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Sutor, 1993, 44-49 참조).

(다) 헌법애국주의와 시민사회

정치학자이며 시민교육학자인 사치벨리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위한 준거를 ‘헌법애국주의’와 ‘시민사회’에서 찾는다. 그에 따르면, 이 두 범주는 민주적인 공동체를 결집시킬 수 있는 핵심개념이며, 따라서 동시에 시민교육이 지향해야 할 정점(定點)이기도 한 것이다. 그는 다원주의 이론에 입각하면서 정치의 ‘논쟁적 영역’에서의 해결은 ‘비논쟁적 영역’에 대한 숙고 없이는,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내면적으로 결속시키는 것, 또는 ‘법의 정신’(몽테스키외)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반성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헌법애국주의’라는 개념은 원래 슈테른베르거(Sternberger)가

1970년대 말에 만들어 낸 말로서, 사치넬리의 해석에 따르면, 그 개념은 민족을 위한 어떤 ‘대체애국주의’ 또는 민족적 애국주의를 위한 대용물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정치적 정체성의 형식, 즉 인본주의적 애국주의 또는 보편주의적으로 통제된 애국주의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헌법애국주의’는 현대의 자유민주사회가 사실적으로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규범적으로 갖추어야 할 정치문화의 최소합의를 함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치넬리는 헌법애국주의를 일방적으로 보편주의적인 원리에 기초한 개념, 즉 모든 국가 및 제도의 준거에서 완전히 벗어난 개념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인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유의 기본적인 전제조건도 개인적·사회공간적인 동일시에 대한 인간의 필요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애국주의는 그것이 아무리 보편주의적인 원리에 입각한다고 할지라도 자유의 전제조건인 국가 및 제도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가 및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헌법애국주의는 이렇게 자유의 제도적인 전제조건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축하고 있다. 그렇지만 민주공동체에 있어서 사회적인 조건과 필요한 변화를 고려한다면, ‘헌법애국주의’는 동시에 ‘시민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함의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볼 때 ‘법의 정신’에 대한 동의, 내면적인 참여,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신뢰 등을 뜻하는 ‘헌법애국주의’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억지로 지지하거나 강요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개인적인 그리고 집단적인 동일시가 원칙적으로 볼 때 민주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면, 중요한 것은 공익을 찾는 데 필요한 이익표출 및 통합의 과정이 갖고 있는 성질이 어떤 것이냐에 달려 있다. 자유

민주주의가 유지·발전되기 위해서는 국가적·제도적 해결책과 시민적 해결책 사이에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시민사회'에 공동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이 계속 필요한 것이다(Sarcinelli, 1993, 25-28 참조).

요컨대, 사치넬리는 새로운 정치문화의 창출을 위해서는 민주 공동체를 결속시켜 줄 수 있는 준거로서 '헌법에국주의'와 '시민사회'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한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에국주의'가 함의하고 있는 두 측면을 강조하였는데, 그 하나는 국가적·제도적 수준에서 자유의 제도적인 전제조건을 인식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수준에서 '시민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일이다. 그리고 이 두 측면을 정치문화의 기본적인 계기로서 정착시키고 공고히 하는 것이 바로 시민교육의 주요과제가 된다.

(라) 공민 의식과 세계시민 의식

사회철학의 영역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두 가지 노선을 구분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기독교 및 이슬람교와 같은 유일신교가 보편주의를 대표한다. 이 유일신교는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하나의 신, 하나의 진리, 하나의 가치표준을 가정하고 있다. 다른 하나의 노선은 문화적 가치의 특수성을 더 많이 강조한다. 특히 힌두교와 불교가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진리와 가치, 권리와 생활양식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보다 더 많은 자유의 여지를 허용한다. 민족주의나 민족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도 역시 공간과 시간에 특정한 가치의 의미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각시킨다.

상대주의의 입장보다는 오히려 보편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국제기구가 세계적인 규모에서 인권보호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며, 특히 사회권과 개발권

을 고려할 때 초국가적인 정치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세계의 모든 지역과 국가에서 경제발전을 북돋우고 생활상태를 보다 더 고르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기존의 경계를 넘어서는 문화간 대화를 활성화하는 일은 세계화를 법적·제도적으로 조절하고 규율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1세기 세계사회의 정치문화는 국가나 민족 수준의 사회화과정과 정체성형성에서 기초가 되는 중요한 윤리적·정치적 차원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에 대한 세계적인 규모의 합의도 역시 국민과 국가의 틀 속에서 발생한 국가시민 혹은 공민으로서의 연대의식과 대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공민으로서의 연대의식은 특정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형성된 집단정체성에 기반을 둘 수 있는 반면에 세계시민의식 혹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연대의식은 예를 들면 세계인권선언에서 표현한 도덕적 보편주의에 입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사회철학자 마이클 왈저(Michael Walzer)는 전자를 ‘층이 두꺼운 도덕’, 후자를 ‘층이 얇은 도덕’이라고 지칭하였다. 층이 두꺼운 도덕은 시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능동적인 연대의식의 기초가 되며, 따라서 복지국가의 틀 속에서 부와 소득의 재분배 정책을 펼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 이에 비해서 세계시민의 보편주의적인 도덕, 즉 층이 얇은 도덕은 비록 어떤 국가에 의한 억압이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분개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세계적인 규모에서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재분배 정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즉,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부와 복지의 커다란 차이를 눈에 띄게 줄이거나 아니면 미래의 생태적 분배 갈등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것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국제적인 인권담론은 지구적 수준의 (분배)정의에 관한 대화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 둘째, 국민국가의 맥락 속에서 국가시민(혹은 공민)의 연대의식 또는 ‘층이 두꺼운 도덕’이 감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 셋째, 세계적인 수준에서 사회통합과 이해관계의 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 ‘층이 얇은 도덕’의 보편주의를 넘어서는 다층적(혹은 조망적) 집단정체성을 형성하는 일이 필요하다(Hauchler 외편, 2001, 34-35; Habermas, 1998, 160-164 참조).³⁾

(마) 세계화와 민족정체성

세계화가 민주주의에 대하여 갖고 있는 위험성의 한 측면은 민족정체성의 상실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빈곤하고 개발이 덜 된 지역에서 보다 부유하고 공업화된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과정 자체는 또한 세계화의 결과로서 간주

3) ‘정체성’의 개념을 호르nung은 서로 균형을 잡고 또한 서로 수정도 하는 동심원적인 동일시 관계들의 결과로 이해한다 이것을 그는 ‘조망적 정체성’이라고 지칭한다 이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그는 이를테면 민족정체성과 같은 단 하나의 사회적 공간에 전적으로 고정시키는 것을 경계하고자 한다. 동심원적인 사회공간은 부부관계, 가족, 친구관계, 협회, 일과 직업 등에서의 직접적인 집단경험에서 출발하여 문화언어종교, 민족국가 등과 같이 더 이상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대집단에까지 이르는데, 이 대집단들은 존속을 위해 통합적인 이념과 상징체계를 필요로 한다. 호르nung에 따르면, 이 모든 동일시 준거들은 인간의 뿌리깊은 욕구, 즉 귀속감, 포근함, 삶의 의미, 그리고 집단적인 과제에의 참여 등을 향한 욕구에 대하여 각자 독특한 방식으로 해답을 준다 그리고 이 ‘집단적인 동일시의 욕구’는 어떤 한 부분정체성에 고정시켜서가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조망적 정체성’을 통해서 가장 적절하게 충족시킬 수가 있다 민족정체성에 관한 논의와 관련하여, 호르nung은 민족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헌정의 종합, 민주적인 ‘헌법에국주의’와 민족의식의 종합에서 시민교육의 주된 과제를 찾는다 그는 시민교육이 민족정체성의 의식 역시 정치적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통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족정체성에 관한 의식이 다른 동일시 또는 사회화의 준거들과의 결합을 상실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유보사항을 덧붙인다 (Hornung, 1987, 91-92 참조)

되고 있다. 이주민의 증가는 이종의 위협을 안고 있다. 그 한 측면은 이주민을 수용하는 입장에 있는 나라나 지역에서 자민족중심적인 반응이 성행하고, 특히 세계화의 패자들이 실업률의 증가 원인을 이주민들에게 돌리고 이들을 핍박하려는 경향이다. 다른 측면은 특히 이주민과 이들을 받아들이는 지역의 사람들 사이에 문화적 차이가 현격하게 클 때, 국민국가 내에서의 사회통합이 점점 더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민족정체성과 민족의식의 감소는 그렇지 않아도 탈(脫)전통의 상태에 있는 국가에서 희소자원으로 남아있는 공민(公民)으로서의 연대의식을 급속히 줄어들게 만들 수 있다. 물론 민주주의가 처음부터 선(先)정치적인 운명공동체로서의 '민족'이라고 하는 정신적 뿌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국가 내에서 공민으로서 지녀야 할 연대의식의 감소는 민주적 질서와 관련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Pinzani, 2000, 35 참조).

(3) 민족의식과 간문화성

(가) 문화상대주의와 보편주의

지방과 개인의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구적 수준의 상호의존, 지방수준과 세계수준의 상호연결, 그리고 '하나의 세계'로의 통합 등이 오늘날 세계시민의식과 관련된 의사소통 및 담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한편에서는 다문화성,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혹은 심지어(부분적으로 극우성향을 지니고 있는) 민족다원주의(ethnopluralism)의 기치 아래 문화상대주의를 대표하는 포스트모던주의자들이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계몽주의적인 인류의 이상이 보편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보편주의자들이 있다.

1990년대에 개최된 세계인권회의를 계기로 하여 상대주의적 입장과 보편주의적 입장 사이에서 벌어진 격렬한 논쟁에 비추어 볼 때, 점점 더 상호 밀접한 관계의 망을 갖추고 있는 세계에서 간문화적인 대화는 다른 문화가 우리의 문화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일은 자기 자신의 문화적 배경이 지니고 있는 한계에 대하여 성찰을 하면서 보다 더 포괄적인 공동의 최소합의가 무엇인지 탐구하고 그러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지구적 수준의 위험공동체, 즉 세계위험사회는 공동으로 협력을 하면서 비로소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초국가적인 최소합의에 대한 상호이해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이다. 이 초국가적 최소합의는 어쩔 수 없이 때로는 기존의 전통문화나 민족의식과 모순관계에 놓여 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간문화학습은 공동의 문제와 주제를 다루면서 초국가적인 혹은 초문화적인 학습의 과정에 이르게 될 것이다. 결국 간문화학습은 세계사회의 다문화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하나의 세계'라는 관점에서 시야를 확대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지구사회 전체의 지평을 함축하게 된다(Seitz, 1996, 106-107 참조).

특히 민족원리와 간문화성 혹은 문화특수성과 간문화성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때 교육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기본문제는 자기 자신의 민족과 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다른 민족과 문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경향이다. 따라서 교육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문화의 다양성에 놓여 있는 긍정적인 가능성이 무엇인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특히 문화적·종교적·정치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일반적인 인간적 가치와 그 가치의

실현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민족원리의 의미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권리, 간문화적 만남을 위한 개방, 간문화적 교류, 간문화적 책임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별문화를 넘어서서 일반적인 가치원리에 지향을 두는 일이 중요하다(Klafki, 1999, 36-38 참조).

(나) 세계화와 문화적 다양성

오늘날 세계는 마치 하나의 마을처럼 좁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화’나 ‘지구촌’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 ‘초록별’이나 ‘우주선 지구’라는 비유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세계를 하나의 단위로,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간주하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개인적인 이기주의와 민족·국가를 중심으로 한 이기주의가 지배하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단순한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하나’라는 표현 뒤에는 다양한 의미와 견해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중 일부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주선 지구’라는 표현은 지구가 마치 우주선처럼 잘못하면 훼손될 수 있는 ‘배’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환경재앙을 통해서 파손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측면에서 지구적 수준의 동반자관계가 요구된다.

인터넷과 멀티미디어의 도움으로 세계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우리는 매일 그리고 거의 실시간으로 세계 여러 곳의 소식을 접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세계 곳곳을 ‘서핑’할 수 있다. 세계는 정말로 ‘하나’의 정보화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지구적 수준에서 생각하고, 지방적 수준에서 행동하라”라는 모토가 있다. 현장에서 혹은 지방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은 세계

에 대한 책임을 갖고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이 지구는 장래세대
대를 위해서도 살 만한 가치가 있게 된다.

세계화는 여러 경제부문에서 임금삭감을 초래하고, 사회보장의
축소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도 소위 '아이엠에프(IMF) 사태'를
통해 대량실업의 고통을 겪지 않았던가?

그리고, '세계는 하나'라는 말은 '세계문화'의 관점에서 이해해
야 할 것인가, 아니면 문화적 다양성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것
인가? 코카콜라, 맥도널드, 록음악과 텔레비전 광고는 세계적인
규모에서 관찰할 수 있다. 그에 반해서, 세계에는 약 5,000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적·문화적·종교적 전통과 생활습
관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인간은 문화라는 수단을 통해 환경에 적응하며, 이 문화는 다
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문화적 다양성이라고 부른다.
각 사회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다른 식
으로 해결해 나간다. 물론 여기에는 개인적인 차이도 있지만, 같
은 사회 내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규칙성도 있다. 예를 들
면,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하는 방식이 문화마다 다르
게 나타나며, 특정한 음식물을 먹는 습관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
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다양한 문화들 사이에는 어느 것이 더 좋고 옳은 것이
며, 어떤 것이 더 나쁘다거나 틀린 것이란 평가를 단정적으로 내
릴 수는 없다. 각 사회의 문화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는 상대적이
다. 그 사회의 문화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는 가치가 있지만,
다른 형식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기이한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따라서,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할 때, 우리
는 문화의 상대성도 역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요컨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화현상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규모에서 보편적이고 통일적인 문화요소가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서로 다른 문화적 요소가 공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문화적 다양성을 관찰할 수 있다.

세계화가 시대적 대세가 된 상황에서 문화적 동질성을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대착오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세계시민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문화적 동질성을 전제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분화시켜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문화의 의미를 도덕적·정치적 문화로 축소해서 해석한다면, 동질적인 문화가 요구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인류가 추구하는 도덕에 있어서는 공유점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정의·책임윤리·인류애·생태보호윤리·인류공동체 의식 등이 그런 것에 속할 것이다. 또한 공유되어야 할 정치문화 요소로서는 민주주의, 국제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도덕적·정치적 문화 이외의 영역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가능한 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때 문화적 다양성에 있어서 문화를 의복이나 주택과 같은 외형적인 것에만 한정시킬 필요는 없다. 우리의 인간관계방식·사교방식·음식조리법 등 무형의 문화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 어쨌든, 오늘날 세계화의 부정할 수 없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 문화적 상대주의와 보편주의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관건이 되는 문제인 것이다 (허영식, 2002, 317-319; 노찬욱, 2003, 79-81 참조).

(다) 간문화성의 관점

지구적 정보화사회의 발전경향에 비추어 볼 때, 세계가 필요로 하는 네트워킹의 과제는 윤리적인 준칙들을 문화들 사이의 관계에 적용시키는 일이다. ‘간(間)문화적’이란 우선 한 사회 내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여러 다른 문화들이 서로 잘 지내고 상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청소년문화에서 노인문화에 이르는) 세대의 문화, 지역의 문화,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과 환경의 문화, 그리고 여러 다른 민족의 문화가 있다. 특히 마지막으로 열거한 것은 세계적 규모의 간문화성으로 확대된다.

그런데 ‘인류의 지구’로서의 세계를 희망하고 있는 이 간문화성은 오늘날 근본주의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 근본주의는 상호이해와 공감 대신에 문화의 투쟁을 지향하고 있다. 여기서는 상대적 사고가 거부되고, 종종 종교적인 바탕을 깔고 있는 세계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려고 하며,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자신의 신념을 전도하려고 한다. 소위 ‘문명충돌론’을 주장한 미국의 정치학자 헌팅턴(S. Huntington)에 따르면, 7개의 문화권(文化圈)(중국, 일본, 힌두교, 이슬람교, 서구, 남미, 아프리카)이 서로 대결과 갈등잠재성을 안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문명충돌’이 아니라, ‘문명의 공존’(뮐러, 2000)을 추구한다면, 그리고 세계평화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보편성 혹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합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제도·실천을 탐색하고 확장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문화의 투쟁을 제한하고, 더 나아가서 단수(單數)로서의 문명, 즉 문명화된 상태의 수립에 기여해야 한다. 물론 여기서 단수로서의 문명은 도덕·종교·교육·예술·철학·기술·물질

적 복지 등 여러 요인이 혼합된 복합적 구조를 취하게 될 것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네트워킹’을 이해한다면, 그 본질은 이성적 존재로서의 잠재성을 갖춘 인간이 ‘총체적인’ 이성을 개발할 수 있다는 데 놓여 있다. 이 총체적 이성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 ① 분석과 분해만 하지 않고, 하위체제에만 관련시켜서 사고하고 행위하지 않는다.
- ② 순간적인 일이나 일시적인 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 ③ 어떤 주어진 목적을 지향한 도구로서만 작용하지 않는다.
- ④ 그 대신에 앞을 내다보면서 처리한다. 다시 말해서, 상상력을 동원하여 미래에 대한 대안들을 개발할 수 있다.
- ⑤ 함께 속하는 것들을 학문적인 이성을 활용하여 연결시킬 줄 안다.
- ⑥ 공통의 세계윤리 혹은 지구촌윤리를 위해 정서적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참여한다.
- ⑦ 수백 년에 걸쳐서 발생한 가치의식을 이해하면서, 현재와 미래에 그것을 유지하고 심화시키며, 실천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그것을 현실화시킨다.

이와 같은 ‘총체적’ 이성의 개발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는 비록 이상향으로 가는 열쇠를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나락(奈落)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물을 더 높게 쌓을 수는 있다. 개개인은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에 있어서 홀로 남아 있다가 무력감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비록 역설적이긴 하지만, ‘혼돈(카오스)이론’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역동적인 체제

에 있어서 미미한 편차나 변화가 시간이 가면서 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하는 혼돈이론의 인식은 본래 수학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 윤리적 파장 역시 중요하다.

미국의 기상학자인 로렌즈(E. Lorenz)가 사용한 비유, 즉 중국 상공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그것이 미국 남쪽 바다에서 허리케인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비유는 그러한 혼돈이론의 윤리적 의의를 잘 표현하고 있다. 문화적 활동과 그 지구적 효과와 관련시킨다면, 거꾸로 허리케인을 ‘막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 세계시민으로서의 개개인은 걸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취약한 것만은 아니다(Glaser, 1999, 5-9; 허영식, 2002, 324-326 참조).

(4) 지구촌문제와 지구촌윤리

(가) 지구촌시대와 지구촌문제

21세기로 접어든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세계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경제적·사회적·정치적·생태적 분야에서 많은 일이 상당한 정도로 지구적 맥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의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류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는 하나’라는 의식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세계적인 네트워크 관계는 사람들이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의 변화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매일 그리고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으며, 통신 및 교통의 기술적 수단은 지구적 규모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접촉과 연결을 가능케 하고, 사람들의

이동성 증가로 인하여 기존의 국가와 문화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변동이 문화와 문화 사이의 평화로운 공존을 가능케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한편으로는 지방적·지역적 정체성을 신장 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질적인 성격이 강한 어떤 새로운 '세계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존을 촉진시킬 것인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거꾸로 세계적 규모에서 특정한 문화나 문화권이 다른 문화나 문화권을 지배하는 문화 식민주의 현상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정보·통신기술상의 새로운 발전은 세계시민사회의 발생에도 기여하였다. 이 현상은 세계적인 규모에서의 새로운 민주화물결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들과 도전의 급속한 증가, 그리고 이 문제들이 오늘날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과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보기로서는 우리 모두가 '지구라는 우주선'에 살고 있으며, 하나의 '공통된 미래'를 갖고 있다는 새로운 지구촌의식을 들 수 있다.

세계화는 오늘날 환경문제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인구증가, 대량실업, 난민과 이주운동, 조직범죄의 확대, 국제테러의 발생, 핵무기확산에 대한 불안, 민족적·종교적 갈등, 에이즈·광우병·구제역(口蹄疫)·급성호흡기중후군(SARS)과 같은 질병의 확산과도 연결이 된다. 세계화는 또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큰 충돌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도 야기하고 있다(Die Gruppe von Lissabon, 1997, 17-20; 허영식, 2000, 73-75 참조).

이와 같은 문제들은 지구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다. 이 문제들은 어떤 한 나라나 대륙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규모에서 상호작용 관계에 놓여 있다. 예를 들어, 개도국의 빈곤문제는 선진공업국의 생활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다. 부유

한 사람들의 소비습관은 다른 사람들의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

지구적 수준에서 작용하는 위험요인들, 즉 지구촌문제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첫째, 초지역적이라는 점, 둘째, 해당 역에 사는 사람들의 다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 셋째, 현재는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장래세대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점, 그리고 넷째, 보험 같은 것을 들어서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지구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지구촌관리'가 필요하다. 이 지구촌관리가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지역·국가·세계 수준의 연결과 통합이 요구되며, 각국 정부, 정부간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협력이 요청된다. 그리고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 지구촌 문제에 대한 의식을 형성해야 하고, 지구촌윤리라는 의미에서의 책임의식이 필요하다(허영식, 2002, 327-328 참조).

(나) 지구촌윤리의 필요성

새 천년과 동시에 21세기로 접어든 이 시점에서 제기되는 핵심적인 윤리적 질문은 어떤 기본조건에서 우리 인류가 생존할 수 있으며,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과 사회적인 생활을 인간적으로 구성하고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어떤 전제조건 아래서 인간의 문명과 문화가 미래에도 존속할 수 있을까?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정치·경제·학문·종교 분야의 지도자들이 따라야 할 기본원칙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전제조건 아래서 개개인이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세계정치·세계경제·세계기술·세

계의사소통·세계문명으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지구촌시대는 세계윤리, 지구촌윤리 혹은 지구공동체윤리를 필요로 한다. 즉, 구속력 있는 가치, 움직일 수 없는 기준, 개인적인 기본태도의 관점에서 가치와 규범에 관한 기본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윤리적인 기본합의가 없다면, 공동체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어느 땐가는 무질서와 혼돈 아니면 독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지구공동체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지구촌윤리가 없이는 보다 더 나은 세계질서를 기대할 수 없고, 지구촌관리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이 지구촌윤리의 이념은 다음과 같은 기본신념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여러 문화들 사이의 평화는 없이는 국민들 혹은 국가들 사이의 평화는 없다. 둘째, 문화들 사이의 대화는 없이는 문화들 사이의 평화는 없다. 셋째, 여러 문화에 대한 기초연구와 필요한 지식의 습득이 없이는 문화들 사이의 대화는 보장할 수 없다.

20세기 동안에 우리 인류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경험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냉전과 냉전종결을 경험하였다. 그 동안에 파시즘·나치즘·군국주의·공산주의·식민주의의 붕괴도 역시 경험하였으며, 그 다음에 역사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인류는 오늘날 새롭고 더 살기 좋은 세계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적·문화적·정신적 자원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종과 민족간의 긴장관계와 사회적·경제적·종교적 갈등이 더 좋은 세계를 평화적으로 구성하는 데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오늘날에도 세계적으로 20군데 이상에서 지역분쟁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약 40개 국가가 연루되어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진보가 있었다. 하지만 인류는 세계적으로 빈곤과 기아, 실업, 자연파

- ① 사회적·생태적 차원: 비폭력의 문화와 모든 생명에 대한 경외심의 문화에 대한 책임
- ② 정치적 차원: 관용의 문화와 정직한 생활에 대한 책임
- ③ 경제적 차원: 연대의 문화와 정의로운 경제질서에 대한 책임
- ④ 동반자적 차원: 동등한 권리의 문화와 남녀 동반자관계에 대한 책임

이러한 윤리적 명령과 규범이 세계적 수준에서 실현되려면, 사람들의 의식이 일반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인간의 역사적 경험에 따르면, 개개인과 여론(輿論)수준에서 의식의 전환이 없이는 이 세계가 변화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전쟁과 평화, 경제와 생태, 남녀의 동반자관계와 같은 문제영역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바로 이러한 변화가 윤리의 전체영역에서 일어나야 하고 또한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개개인은 누구나 불가침의 존엄성과 불가양의 권리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자기행위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위를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비폭력의 문화와 모든 생명에 대한 경외심의 문화를 위하여 생명에 대하여 공경하고 어려워해야 하며, 관용의 문화와 정직한 생활을 위하여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연대와 정의의 문화를 위하여 정의롭고 공정한 행위에 지향을 두어야 하며, 동등한 권리의 문화와 남녀 동반자관계의 문화를 위하여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규범들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행하기를 바라는 것을 그들

에게 행하라.”라는 황금률을 준수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지구촌윤리 규범은 기본적으로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여기서 ‘권리’의 수준에서 진술된 것을 ‘윤리’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심화시키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 서명하기 전에 “인권의 갠지스강은 인간의무의 히말라야산맥에서 시작한다.”라는 비유를 통하여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표현했다고 한다.

지구촌윤리는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는 인류 모두가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여기서 전제로 하고 있는 가정은 첫째, 법과 규정 혹은 협약만 가지고는 보다 나은 세계질서를 마련할 수 없다는 것, 둘째, 평화와 정의, 그리고 지구보전의 실현은 권리를 유효하게 하려는 인간의 통찰과 자세에 달려 있다는 것, 셋째, 권리와 자유를 위한 노력은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의식을 전제로 한다는 것, 넷째, 권리는 윤리가 없이는 지속할 수 없으며, 따라서 새로운 세계질서는 세계윤리, 즉 현존하는 바람직한 가치·원칙·태도에 관한 기본합의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Kueng, 2000, 150-158; Schlensog, 2000, 102-105; 허영식, 2002, 342-346 참조).

(5) 세계시민의식의 구성요소

(가) 지구적 세계관

세계화의 모순은 ‘초록별’ 지구에서 가장 확연하게 나타난다. 우주 공간에 떠있는 지구는 분명히 둥근 경계를 갖고 있는 물체로서 그 유한성을 드러낸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런 경계도 없으면서 서로 연관되고 통일된 지구공간을 보게 된다. 이 둥그런

지구상에서는 정치적·문화적 경계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모습은 두 가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 하나는 물리적 의미에서의 한계설정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적 의미에서의 탈(脫)경계이다.

환경과 세계화는 우리 시대를 꿰뚫는 기본적인 갈등의 두 가지 측면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편에서는 지구의 생태적 한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적 세계화의 역동성이 모든 정치적·문화적 공간의 탈경계화 혹은 경계파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갈등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21세기의 모습이 결정될 것으로 추측된다.

지구의 유한성 혹은 한계설정에 대한 통찰이 1992년 리우(Rio) 환경개발회의를 개최하게 만든 계기로 작용했다면, 탈경계에 대한 상상은 1994년 모로코 마라케시(Marrakech)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되는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990년대를 되돌아볼 때, 리우에서의 회의가 마라케시에서의 세계무역기구에 패배했다는 결론을 머리 속에서 지울 수 없다. 기후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환경협정이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열세했다는 평가를 내리게 된다.

바로 이러한 사정이 바뀌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국제정치의 구조와 과정에서 '무역국제법'보다 '환경국제법'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초록별' 지구가 안고 있는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측면, 즉 유한성(한계설정)과 탈경계화(경계파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도를 찾을 수 없게 된다(Sachs, 2000, 5; 허영식, 2002, 347-348 참조)

환경과 세계화의 갈등관계에서 살펴보았듯이, 세계화시대에는 지구전체를 고려하는 이른바 '지구적 세계관' 또는 '지구적 관점'이 요청된다.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지구적 관점을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사태와 문제들을 세계적이고 총체적인 맥락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은 사고·판단·감정·행위의 측면을 포괄하며, 바람직한 미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능력을 포함한다.

전통적인 지역 중심적 세계관과 비교해 볼 때, 지구적 세계관에서 핵심적인 것은 '지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이다. 지구적 사고는 세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고, 인류를 하나의 같은 운명공동체로서 간주하며, 그 인류가 미래대비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따질 수 있다. 이 지구적 사고는 적어도 다음 네 가지 수준에서 관찰할 수 있다.

첫째, 국경을 넘어서는 사고. 여기서는 어느 한 나라와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의 다양한 관련성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중요한 수입·수출상품은 무엇인가? 국제무역과 자본시장을 고려할 때, 어떤 상호의존성이 존재하는가? (보기: 국제수지상의 흑자·적자 여부). 우리나라가 어떤 원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어떤 나라에 의존하여 원료를 조달하고 있는가? 세계 에너지 재고량에 비추어 볼 때, 각 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은 얼마나 되나?

둘째, 초국가적 사고. 전통적인 국가주권의 원칙이 인류의 공동 행복을 위한 도정에서 장애물로 작용하는 경우를 종종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더 높은 수준에서 인류의 공동이익을 위해 내려야 할 세계적 차원의 결정을 위해, 국가주권의 권한 중 어떤 분야를 부분적으로 포기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상호의존적이고 구조적인 사고. 여기서는 세계적인 발전 경향의 큰 노선을 결정하는 세계적인 요인들(예를 들면, 경제성장·고용·교육·식량·보건·원료·에너지·인구 등)을 찾아내

는 일이 중요하다. 각 요인들은 원인과 결과의 밀접한 관계의 망, 즉 상호작용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한 관계와 의존성을 찾아 내야 비로소 ‘세계가 하나’라는 의식을 계발할 수 있다. 지구적 사고는 상호의존적이고 구조적인 사고의 특징을 띠고 있다. 따라서 지구촌문제의 상호의존관계 혹은 상호연결의 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조망(眺望)을 할 수 있는 사고 ‘조망적 사고’는 세계의 유한성과 그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망적 사고는 세계의 유한성과 인류의 생존이익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미래의 확보를 정치적·사회적 행위의 세계적인 과제로서 파악해야 한다. 사람들이 자연과의 새로운 ‘공생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생활방식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는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상황과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반작용적 혹은 적응적 사고와 행위로는 부족하며, 사고와 행위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갖추어야, 비로소 바람직한 미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지구적 사고와 조망적 사고는 따라서 우리에게 친숙한 기존의 의식 및 행동방식을 필요한 경우에는 버리고, 자연적 생활 근거를 유지하고 보전하려는 관점에서 사회상태를 재정립하고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대안적인 사고로 나아가간다(Weinbrenner, 1995, 412-413; 허영식, 2002, 348-349 참조).

(나) 인권과 다양성존중

권리와 의무, 권리와 책임의 연관성은 인권과 ‘세계인권선언’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이 충분한 것 같지 않다. 이런 배경에서, 1990년대에 일부 전직 정부수반들이 ‘국제행동위원회(InterAction Council)’라는 단체를

결성하였으며, 이들은 세계인권선언을 보완하기 위하여 ‘세계인간의무선언’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 제안은 권리와 의무, 권리와 책임의 관계에 대한 논쟁을 위해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자기책임’의 의미가 더 중요한데, ‘의무선언’은 잘못하면 의무를 외부에서 주입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데 있다. 의무부여와 책임은 인권에 대해서 바깥에서 덧붙이거나 더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의무부여와 책임은 이미 언제나 인권에 속하는 것이다. 인권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의무와 책임을 인권의 논리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세계인권선언이 명시적으로 이 사항을 확실히 하고 있다.

인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다른 사람들의 동등한 인권도 역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은 권리와 의무, 권리와 책임의 이중적인 차원을 암시하고 있다. 인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의 권리를 신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이다. 나의 자유는 무한정한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들의 권리가 시작하는 곳에서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더 나아가서 인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지니고 있는 가능성의 범위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나설 수 있는 책임도 역시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권리와 의무를 함께 생각하는 인권의식을 위해서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인권을 동등하게 인정하려는 자세를 정착시키는 일이다.

인권개념 속에는 이미 관용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불관용이 나타나는 상태가 세계도처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유네스코는 1995년에 ‘관용의 해’를 선언하였으며,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계관용의 날’(11월 16일)을 설정하였다.

인권과 관용의 내재적인 관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히 평등의 인정과 다양성 혹은 차이의 허용을 연결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자유와 ‘다름’에 대한 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 안 된다. 관용이란 “아무래도 좋다”는 식으로 임의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각 혹은 관점이 타인을 위해 가질 수 있는 정당성 및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다른 시각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용의 태도를 보여주려면, 내면적으로 ‘열린 자아(open ego)’의 바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시민들이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관용은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세계의 여러 사회에서 시민들은 다양성과 차이의 증가를 수반하는 근대화의 결과에 직면하여, 자기 자신의 자유를 구성하고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공포증이나 혐오증, 인종차별주의, 민족주의, 근본주의, 극우주의 등의 발생은 관용이 얼마나 희소가치를 지닌 재화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관용은 보통 경험할 수 있는 정상적인 경우라기보다는 오히려 잘못하면 쉽게 부서지는 문화적 상태이며, 따라서 특수한 경우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관용은 단순히 요구한다고 해서 보장되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권은 다양성존중과 관용을 이미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권은 인종 혹은 민족차별주의나 극우주의와 같은 불관용의 경향에 대한 예방책으로서도 구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이 함축하고 있는 자유와 평등의식을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성공한다면, 그러한 불관용의 고유한 특징인 불평등 및 권위주의 이데올로기에 현혹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단순히 호소를 하는 과정이 아니라, 능력을 키워주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때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에 대한 존중감, 즉 자아존중감을 갖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과 불안정의 조건에 처해서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자기와는 다른 생활방식과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관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쨌든 관용은 언제나 인권적인 토대를 갖고 있다. 이 토대는 바로 타인을 동등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상호 인정하는 것이다. 관용은 다원주의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의 핵심요소이다. 그리고 어떤 조건이 관용할 수 없으며, 어떤 행동이 억제되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사회적 책임의 형식과 목표를 명시하는 것이 인권의 개념과 표준이다. 그래서 인권은 관용의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이기도 한 것이다.

관용은 소극적인 관점과 적극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 관용의 소극적인 측면은 그것이 불관용의 정반대라는 데에서 찾게 된다.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반응 혹은 배타적인 반응은 개인이나 사회 속에서 억제되어야 한다. 관용의 가치는 개인과 사회로 하여금 그러한 억제에 대한 책임을 떠맡도록 한다. 인권은 정부가 시민들에게 무엇을 해서는 안 되며,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에게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지시해 준다.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관용은 인권과 평화의 실현을 위해 없어서는 아니 될 관용의 조건을 창출하기 위하여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관용은 열린 태도, 차이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기를 것을 요구한

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정의롭지 못한 일을 깨닫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차이점을 건설적으로 해소하며, 갈등상황을 화해와 사회적 재건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위해 말하자면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Fritzsche, 1995, 16; Fritzsche, 2000, 75-76; 허영식, 2002, 350-352 참조).

참고로,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는 불관용의 형태와 종류를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성(性)차별주의: 여성을 사회에서 충분히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모든 인권을 향유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과 행동. 이것은 보통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우월하다는 가정에 의해 합리화된다
- 인종차별주의 인종에 기초한 인권거부 이것은 어떤 인종집단이 다른 인종집단보다 더 우월하다는 주장에 의해 합리화된다.
- 자민족(문화)중심주의 문화나 언어에 의한 배척. 이것은 문화 사이에 가치와 '진보'의 수준이 서로 다르다는 관점에 의해 합리화된다.
- 반(反)유대주의: 유대인에 대해서 행해지는 편견·차별·박해의 태도 및 행동
- (배타적) 민족주의: 한 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우월하며 우선권이 있다고 보는 신념.
- 파시즘 국가는 반대(이의)나 다양성을 용납할 수 없고, 시민들의 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신념
- 외국인(또는 이방인)혐오증 외국인이나 다른 문화권 출신의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것. 국외자(局外者)는 우리 사회에 해를 준다고 믿는 생각.
- 제국주의: 예속된 국민들의 부와 자원을 통제하기 위하여, 어떤 국민이 다른 국민 또는 여러 국민들을 예속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 착취 공정한 보수 또는 보답 없이 사람들의 시간과 노동을 이용하는 것, 또는 자원과 천연자원을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낭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 종교적 억압 어떤 특수한 신앙이나 그 가치 및 실천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그 신앙의 구성원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편애하는 일을 가리킨다. 이것은 해당되는 신앙이 종교적 진리에 관하여 유일하게 진정한 해석을 제공한다는 시각에 의해 합리화된다.

(다) 배려와 평화적 갈등해결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공동생활을 하려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의식할 수 있는 기능(技能)과, 타인의 감정과 권리를 존중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기능은 타인에 대한 배려의 기능과 친(親)사회적 기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문화와 문화 사이의 국제적인 교류상황뿐만 아니라, 한 사회 내에서 여러 문화와 민족이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이다. 그러한 간(間)문화적 상황에서는 특히 간문화적인 공감(共感)능력이 요구된다. 간문화적 공감이란 다른 문화에 속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 사람의 감정과 사고, 그리고 가치관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자기 자신의 이해지평에서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공감능력을 갖추게 되면, 자기 자신 및 자신의 필요와 이해관계에만 유의할 뿐만 아니라, 함께 사회생활을 하는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문제를 인지할 수 있게 된다. 타인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말하자면 마음의 문을 열고, 의식의 지평을 확대한다. 그리고 타인의 상황과 처지를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을 타인의 입장에 놓아 생각하고 느낄 수 있으며, 그의 운명과 사정을 공동 체험할 수 있으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를 동일한 가치와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정의, 상호성, 인권의 평등, 그리고 개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감은 이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요구하도록 한다. 결국 타인의 대리역할을 하거나 그의 편을 들게 되면서 인간도덕의 기초로 간주할 수 있는 상호성의 정신에

따르게 되는 것이다 타인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세와 능력,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당사자적인 생각과 느낌(즉, 배려와 정의감)은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국가·민족·인종에 속하거나, 서로 다른 피부색·종교 등을 가진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동생활을 하고,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속하는 것이다.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지침 혹은 방법에 따르거나 그것들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갈등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을 변화시켜, 갈등을 단순히 무시하거나,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간주해 버리거나, 아니면 은폐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의 기회로 삼는다.
- 가능하면 물리적 힘이나 폭력을 행사하려 하지 말고, 폭력을 가지고 위협하지 않는다
-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를 유일하게 옳은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 필요한 경우에는 갈등상황에 제3자를 중재자로서 포함시킨다.
- 기정의 사실을 고집하지 말고, 갈등 당사자 사이에 공동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 해결책을 모색할 때, 참여자와 당사자 모두의 필요와 이해관계에 지향을 둔다.

유네스코는 2000년을 ‘평화문화의 해’로 정하고, 2001~2010년을 ‘세계아동을 위한 평화와 비폭력의 10년간’으로 정하였다.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를 위한 선언 2000’(줄여서, ‘평화문화선언

2000')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평화문화선언 2000

◆ 2000년은 새로운 시작이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전쟁과 폭력의 문화를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이어야 하기 때문에,

◆ 이 전환은 우리 모두의 참여를 요구하며,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정의, 연대, 자유, 존엄성, 조화, 그리고 번영에 기초한 세계를 만들어 가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가치를 젊은이와 장래세대에게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 평화의 문화는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보호, 그리고 개개인의 복지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 인류의 미래에 대한 책임, 특히 오늘과 내일의 아동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일상생활 가정·직장·지역사회·나라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

◇ 차별이나 편견이 없이 모든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을 존중한다

◇ 모든 형태의 폭력(신체적·성적·심리적·경제적·사회적 폭력, 특히 아동 및 청소년과 같이 가장 혜택받지 못하고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폭력)을 거부하면서 능동적인 비폭력을 실천한다.

◇ 배제, 부정, 정치적·경제적 억압을 끝내기 위하여 아량을 발휘하여 나의 시간과 물질적 자원을 공유한다

◇ 광신, 명예훼손, 타인의 거부보다는 오히려 대화와 청취에 언제나 우선권을 부여하면서, 의사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옹호한다.

◇ 책임질 수 있는 소비자행동을 장려하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형태의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의 균형을 보존하는 개발실천을 장려한다

◇ 새로운 형태의 연대를 함께 창출하기 위하여, 여성을 충분히 참여시키고 민주적 원리를 존중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유네스코 홈페이지 및 '평화문화선언 2000' 관련 사이트

<http://www3.unesco.org/manifesto2000>)

2. 세계시민 자질의 영역 및 구성요소

세계시민의 자질 요건은 미국, 유럽, 국내의 세계시민의 자질에 관한 논문 및 문헌연구를 통하여 각 연구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세계시민의 자질 요건을 일차적으로 모두 추출하고자 하였다. 각 연구문헌에서는 대체로 주요 항목들은 중복되어 언급되어 있었으며, 일부 보다 폭 넓게 제시되었거나 몇 개로 한정지어 제시하는 정도로 연구마다 자질요건의 항목 수에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세계시민의 자질 영역은 유사하게 제시되고 있었다.

특히 세계시민의 자질 요소를 몇 개국의 학자들이 공동 연구를 통하여 추출한 연구가 주목할 만 하였는데, Parker(1999)는 9개국의 182명의 각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Delphi 조사를 통해 도출된 8가지 글로벌시대 시민의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학자를 대상으로 세계시민 자질을 요건을 구성하기 위하여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연구가 있었는데, 신현국(1998)은 교육관련 전문직 종사가 75명을 대상으로 세계교육의 지식, 태도, 기능 영역의 목표를 중심으로 세계시민의 자질을 추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파커와 신현국의 연구에서 추출된 세계시민의 자질 구성요소와 기타 여러 문헌에서 추출된 자질의 구성요건들을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유형별로 종합하였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1) 인지영역(지식과 인식):

○인간의 보편적 가치의 이해:

인간의 기본적 욕구의 공통성, 인권의 평등, 자결권에 대한 지식과 이해

○인간의 문화와 인식의 다양성 이해:

문화의 다양성, 타인의 의식의 다양성에 대한 지식과 이해,

○세계적 문제에 대한 자각:

개발문제, 환경문제, 평화와 분쟁, 권리와 책임문제 빈곤, 인권, 공평성, 자원소비, 인구,

○문제해결을 위한 미래 대안 의식, 간문화적 인식과 적응(다른 문화적 배경을 통해 사물관찰, 인지능력), 세계 속의 자신의 위치(지위)인식, 지구적 의식, 국제적 변화에 대한 감각, 세계적인 이슈와 문제에 대한 이해

(2) 가치영역:

○다양성, 관용, 이타주의, 공동의 인류애, 공통적인 인류애, 정의로운 공동체 등에 대한 가치 부여, 공공의 선에 대한 공헌, 상호작용에 대한 가치의 의미확립,

(3) 태도영역:

○열린마음, 수용력, 중용, 전체사회로의 정체성, 반영(reflection), (국제)지역사회 관찰 태도, (국제)사회참여, 지구적 경향과 이슈에 대한 관심, 편견 인식, 합리적이고 유연한 사고의 추구, 감정이입 지구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윤리적 태도

(4)기능영역(고등사고력/기술)

○문제분석력, 비판력, 종합적 사고력, 응용력, 합리적 평가능력
 ○정보수집 처리 능력, 정보활용 능력,
 ○협상능력, 비폭력적 해결능력, 합의 도출 능력, 협동력, 지구촌 사회의 의사표현 능력, 토론 능력, 다른 사회 구성원과의 네트워킹. 공동의 영역 확립

Ⅲ. 연구방법

1. 연구방법
2. 조사 대상 및 설문조사 방법
3. 연구설계
4. 설문지 구성

공 백

Ⅲ. 연구방법

1.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동양과 서양의 세계시민에 관한 논의들을 개관하여 세계시민연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마련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세계시민성의 특성과 연관된 내용들을 참조하여 포괄적인 세계시민성의 요소들을 구성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연구과정의 전개와 설문지 구성의 틀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2) 전문가 자문

세계시민에 대한 개념 정립과 연구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설문지 문항구상의 과정에서 설문내용의 범위설정과 구체성,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문을 얻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객관성을 지니고 합의에 이른 설문지를 고안하고자 한다

3)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두 가지로 나누어 지식인과 청소년들에게 각각 실시하게 된다. 첫째, 지식인을 대상으로 세계시민의 자질 요건의 중요도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추출한 세계시민의 자질 요건들이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판단했을 때 세계시민의 자질 요건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정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검증

해 내하고자 한다. 둘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식인들이 응답한 세계시민의 자질 요건들에 대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질은 어느정도인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지식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는 세계시민의 개념 및 용어에 대한 인식, 세계시민과 민족에 대한 관계 인식 등에 관한 설문조사 문항이 포함되게 된다

2. 조사대상 및 설문조사 방법

조사대상은 지식인과 청소년으로 한다. 여기서 지식인이라 함은 인문사회계열, 이학, 공과계열 등 학문의 각 전공영역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지식인에 대한 용어는 합의된 바는 없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2002년 한국비영리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지식인의 정의에 따르면, Benda의 “현실적 목적이나 관심으로부터 초월하여 예술이나 학문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 Mannheim의 “세계에 대한 해석을 사회에 부여하는 과제를 가진 사회집단”, Sartre의 “자신의 지적 작업으로 사회적 명성을 얻은 사람들로 기존의 사회와 권력을 비판하는 사람들” 등으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참조: 한국비영리학회 2002년 춘계학술대회, 정보기술, 시민사회, 그리고 지식인의 역할). 본 연구에서는 인문사회계열 뿐 아니라 이.공계열을 포함한 각 전문 분야에서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학자들을 지식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설문조사 실시를 위한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각 학문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만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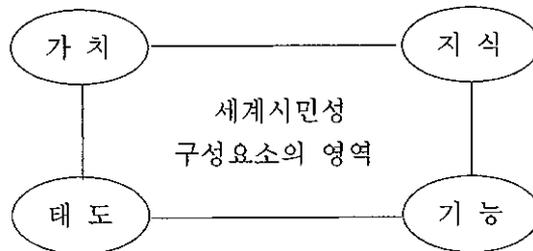
첫째, 지식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조사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약 4만명에 이르는 각 계의 박사학위 과정 중이거나 학위 소지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하

이브레인넷(www.hibrain.net)에 설문지를 탑재하여 박사학위소지자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탑재한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이 대체로 30-40대인 점으로 미루어, 각계 전문가 중에서도 신진 학자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대상이 되었다

둘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 1-2 학년을 중심으로 모두 600명에게 실시하였다 서울지역의 서울대, 명지대, 중앙대 학생 300명과 중소도시인 순천지역 청소년 300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대학의 강의 시간에 담당 강사가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3. 연구설계

청소년들이 세계적 무대에서 바람직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배양하여 주도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세계시민의 자질 요건들은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이러한 세계시민자질의 구성요소들에 대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어느정도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세계시민성의 구성요소들은 그 성격 면에서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지식, 가치, 태도, 기술 등의 영역이 그것이다. 지식의 영역에서는 외국문화,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지식 등이 해당되고, 가치영역은 인류공동체 인식의 중요성 자각 정도, 공동의 문제해결의 필요성 인식 정도, 다문화적 가치 존중 정도 등이 속한다. 태도영역에서 다루는 내용은 세계 공동사안의 관심 정도, 참여도, 연대감, 자발적 협력의 태도 등이 될 것이며, 기술영역은 다양한 문화권 시민들과의 원만한 교류 능력, 정보수집력, 문제해결능력, 발표능력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자질요건들을 구체화하여 설문지 문항을 작성하였는데, 구체적 항목들은 다음의 설문지의 구성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본 연구를 통하여 알아 보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시민의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어떠한 요건들이 필요하며 각 요건들은 어느정도 중요하다고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인들의 공동의 인식을 추출하여 세계시민의 자질 요건을 규정하게 될 것이다. 둘째, 세계시민의 자질 요건들에 대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세계시민의 자질은 어떠한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게 될 것이다. 셋째, 지식인이 응답한 세계시민 자질의 중요도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들의 세계시민 자질의 실태와 그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떤 자질 요건들인지, 즉 청소년이 세계시민의 자질로서 가장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는 요건들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의 지식인과 청소년들이 세계시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한 민족의식과 세계시민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대한 지식인과 청소년의 인식에 차이가 있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될 것이다.

4. 설문지 구성

영역	요인	문항
인지영역 (인식/ 지식)	국제적 이슈 이해	환경, 평화, 빈곤, 인권, 형평성, 자원소비, 인구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이해	간문화성, 변화감각, 위치
	문화적 다양성 & 보편성 이해	다양성, 공통성, 문화적 가치의 평등성, 문화적 편견 인식
가치 영역	공공성	인류공동체, 공공의 선, 상호작용 등에 대한 가치
	다양성	다양성, 관용, 이타성,
태도 영역	열린자세	열린마음, 중용, 숙고(reflection), 유연성(flexibility)
	사회참여	관심, 참여, 책임감
	관계 존중	감정이입, 합리성, 윤리적 태도
기능 영역	고등사고력	분석, 비판, 종합, 평가, 응용,
	정보사용력	정보수집, 처리, 활용력
	상호작용 능력	협상, 협동, 표현력, 토론, 네트워크
세계시민 vs 민족의식	세계시민의식	개념, 용어, 필요성
	민족의식과의 관계	민족의식, 보완성, 세계시민의식
인구구성 학적 특성	연령, 성별, 거주지, 전공, 외국생활 경험	

공 백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세계시민의 자질 요건 및 중요도
2. 청소년의 세계시민의 자질 실태
3. 청소년의 세계시민의 개념에 대한 인식
4. 청소년의 세계시민자질의 중요도와 실태
격차 비교
5. 지식인과 청소년의 세계시민의 개념
인식 비교

공 백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세계시민의 자질 요건 및 중요도

1) 지식인의 인구구성학적 특성

청소년의 세계시민의 자질 구성요건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지식인들의 인구구성학적 특성은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타났다. 연령을 보면, 만 31세에서 40세 미만이 69.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성별을 보면, 여자가 24.91% 남자가 72.2%로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많았다. 대상자들의 거주지역을 보면, 서울/경기 지역이 46.9%, 국내 서울/경기이외 지역이 41.9%, 북미지역이 4.6%, 유럽지역이 0.8%, 아시아지역이 1.7%, 기타지역이 1.2%로 국내지역이 88.8%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국외지역은 총 7.2%로 소수에 불과하였다. 또한, 국내지역 내에서 서울/경기지역과 서울/경기이외 지역은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대상자들의 전공을 보면, 공과계열이 30.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이학계열이 23.7%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한편, 사회계열과 인문계열은 각각 19.5%, 12.4%로 인문사회계열을 합쳐 31.9%이었다. 그밖에 의학계열이나 예체능계열은 매우 적었다. 따라서 전공을 보았을 때 의학계열과 예체능계열을 제외하고는 인문사회, 공학, 이학계열에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상자들의 외국경험정도를 보면, 1년 미만인 경우가 총 대상자의 49.0%를 차지하였으며, 1년 이상인 경우가 46%로 외국경험의 측면에서도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학위정도를 보면, 박사과정 이상이 78.8%

로 대부분이 각 전공영역이 박사학위 소지자로 구성되었다.

<표 I -1> 지식인의 인구구성학적 특성(전체 241명)

인구구성학적 변인		빈도(명)	백분율(%)
연령	만 30세미만	12	5.0
	만31세-40세 미만	167	69.3
	만41세 이상	55	22.8
	무응답	7	2.9
성별	여자	60	24.9
	남자	174	72.2
	무응답	7	2.9
거주지역	서울/경기지역	113	46.9
	국내 서울/경기지역	101	41.9
	북미	11	4.6
	유럽	2	.8
	아시아	4	1.7
	기타	3	1.2
	무응답	7	2.9
전공	인문계열	30	12.4
	사회계열	47	19.5
	이학계열	57	23.7
	공과계열	74	30.7
	의학계열	8	3.3
	예체능계열	11	4.6
	기타	7	2.9
	무응답	7	2.9
외국경험	없음	29	12.0
	1년미만	94	39.0
	1년이상-3년미만	36	14.9
	3년이상-5년미만	13	5.4
	5년이상	62	25.7
	무응답	7	2.9
학위	석사	44	18.3
	박사	190	78.8
	무응답	7	2.9

본 연구에서 표집한 지식인집단의 인구구성학적 특성을 정리 하면, 연령면에서 만31세에서 40세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남성들의 구성인원이 좀 더 많았으나 이것은 박사학위 소지자가 남성 비율이 훨씬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며, 전공이나 외국경험에서는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었다.

2)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 구성요소 및 중요도

지식인의 응답을 통해서 청소년의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요인 및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표 I-3>에서부터 <표 I-6>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지식인의 세계시민 자질의 구성요소 및 중요도는 모두 44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얻은 4개의 영역과, 영역별로 다시 요인분석하여 얻어진 10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는데 각 요인의 명칭과 분류는 <표I-2>와 같다

<표I-2> 요인분석을 통한 세계시민 자질의 영역 및 요인 분류

영역	요인
국제적 사고	분석 및 판단
	국제적 관여
	정보처리기능
국제적 이해	조망 및 통찰
	다문화 인식
	국제문제 이해
가치 및 태도 영역	인류애
	개방적 태도
	합리적 태도
	문화교류
사회적 관계 영역	사회적 기능

요인분석 결과, 국제적 사고 영역의 경우 <표 I -3>을 보면, 국제적 사고 영역내의 첫번째 하위 요인인 분석 및 판단에서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비판적 사고능력,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분석능력,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능력의 평균점수는 각각 5.35, 5.40, 5.51로 '약간 중요하다'에서 '비교적 중요하다'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 사고 영역내의 두 번째 하위 요인인 국제적 관여에서 관심있는 세계적 사안에 대한 심사숙고하는 자세, 지구적 경향과 세계 공동 이슈에 대한 관심, 국제 사회 이슈에 대한 유연 사고로의 대응은 각각 5.47, 5.51, 5.68로 역시 '약간 중요하다'에서 '비교적 중요하다'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구적 이슈를 다루는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할 자세, 지구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세계문제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중요도는 5.05, 5.29로 '약간 중요하다'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 사고 영역내의 세 번째 하위요인인 정보처리기능에서 국제사회 관심사에 관한 필요한 정보의 효과적인 수집능력, 국제사회 관심사에 관해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기본적인 지식이나 원리를 다양한 국제상황을 이해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의 평균점수는 각각 5.44, 5.48, 5.45로 나타나 역시 '약간 중요하다'에서 '비교적 중요하다'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 사고 영역내의 하위 요인인 분석 및 판단, 국제적 관여, 정보처리 기능별로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5.41 평균 5.40, 5.45로 '약간 중요하다'에서 '비교적 중요하다'에 걸쳐 있으면서 대체로 세 요인이 중요도면에서 유사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국제적 사고 영역은 대체로 '약간 중요

하다'에서 '비교적 중요하다'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제적 사고 영역의 두 번째 하위요인인 국제적 관여 중 지구적 이슈를 다루는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할 자세와 지구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세계문제에 대한 책임감은 '약간 중요하다'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국제적 사고 영역의 평균 점수는 5.42로 나타났다.

<표 I -3>세계시민자질 중요도-국제적 사고 영역

요인	하위요인	문항	평균	표준편차
국제적 사고 영역 (5.42)	분석 및 판단 (5.41)	이슈비판	5.35	1.11
		이슈분석	5.40	1.03
		이슈평가	5.51	.98
	국제적 관여 (5.40)	단체참여	5.05	1.21
		세계책임	5.29	1.09
		심사숙고	5.47	1.10
		공동관심	5.51	1.00
	정보처리기 능 (5.45)	유연사고	5.68	1.03
		정보수집	5.44	1.17
		정보활용	5.48	1.14
		원리적용	5.43	1.08

주. ()의 수치는 영역 및 요인의 평균값.

국제적 이해영역의 경우 <표 I -4>을 보면 국제적 이해 영역내의 첫 번째 하위요인인 조망 및 통찰에서 하위 변인 중, 세계 공동의 문제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인식할 수 능력, 여러 국제협력기구와 역할에 대한 지식, 세계자원의 소비에 대한 지식의 평균 점수는 각각 5.72, 5.47, 5.77로 대체로 '약간 중요하다'에서 '비교적 중요하다'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속에서의 자

신의 위치 조망능력과 국제적 변화에 대한 감각의 평균점수는 5.84, 5.98로 '비교적 중요하다'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하위 요인인 다문화 인식에서 다양한 문화의 보편적 특성에 대한 이해, 문화적 편견에 대한 인식, 세계의 다양한 생활방식에 대한 평등한 가치의식, 다양한 문화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력, 선진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양상에 대한 이해의 평균점수는 각각 5.54, 5.75, 5.87, 5.78, 5.70으로 '약간 중요하다'에서 '비교적 중요하다'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계의 다양한 생활방식에 대한 평등한 가치의식의 평균점수는 5.87로 '비교

<표 I-4> 세계시민자질 중요도-국제적 이해 영역

요인	하위요인	문항	평균	표준편차
국제적 이해 영역 (5.84)	조망 및 통찰 (5.76)	위치인식	5.84	1.12
		변화감각	5.98	1.13
		다각도	5.72	1.06
		국제기구	5.47	1.14
		자원지식	5.77	1.08
	다문화 인식 (5.70)	문화보편	5.54	1.15
		문화편견	5.75	1.09
		문화평등	5.87	1.01
		문화차이	5.78	1.10
	국제문제 이해 (6.01)	선진문화	5.70	1.06
		환경인식	6.39	.86
		인권이해	6.27	.82
		인구이해	5.27	1.26
		빈곤문제	5.81	.99
	사회인지	6.29	.85	

주: ()의 수치는 영역 및 요인의 평균값

적 중요하다'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하위 요인인 국제문제 이해에서 하위 변인 중, 세계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사회적 현실을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세계인권문제에 대한 이해의 평균점수는 6.39, 6.29, 6.27로 '비교적 중요하다'에서 '매우 중요하다'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러 국제협력기구와 역할에 대한 지식의 평균점수는 5.81로 '비교적 중요하다'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 인구문제에 대한 이해는 5.27로 '약간 중요하다'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 이해 영역내의 하위 요인인 조망 및 통찰, 다문화이해의 평균점수는 각각 5.76, 5.73으로 '비교적 중요하다'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문제 이해의 평균점수는 6.01로 '비교적 중요하다'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국제적 이해 영역은 '비교적 중요하다'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거나, '비교적 중요하다'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문제 이해의 세계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현실을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세계인권문제에 대한 이해는 '비교적 중요하다'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제적 이해 영역의 전체 평균은 5.84이다.

가치 및 태도 영역의 경우 <표 I-5>를 보면, 가치 및 태도영역내의 첫 번째 요인인 인류애에서 하위변인 중 인류공동체라는 의미의 중요성 인식, 세계적 갈등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인류 공공의 선에 공헌하는 것에 대한 가치의식의 평균점수는 각각 5.45, 5.78, 5.73으로 '약간 중요하다'에서 '비교적 중요하다'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신과 차이 있는 행동에 대한 관용자세의 중시의 평균점수는 6.10으로 '비교적 중요하다'이상인 것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 하위 요인인

개방적 태도에서 낮은 문화에 대한 수용적 자세,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력 및 감정이입능력, 문제해결에 있어서 흑백논리보다 중용자세 중요시의 평균점수는 각각 5.62, 5.61, 5.68로 ‘약간 중요하다’에서 ‘비교적 중요하다’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적 욕심보다 타인 배려를 가치있게 여기는 것은 5.87로 ‘비교적 중요하다’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하위요인인 합리적 태도에서 국제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 국제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윤리적 태도 의 평균점수는 5.65, 5.54로 ‘약간 중요하다’에서 ‘비교적 중요하다’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하위요인인 문화교류에서 문화적 동질성보다는 다양성에 대한 가치 의식과 서로 다른 문화간의 상호작용 중시의 평균점수는 5.68과 5.69로 ‘약간 중요하다’에서 ‘비교적 중요하다’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5>세계시민자질 중요도-가치 및 태도 영역

요인	하위요인	문항	평균	표준편차
가치 및 태도 영역 (5.71)	인류애 (5.78)	공동체	5.45	1.21
		갈등평화	5.78	1.01
		인류가치	5.73	1.10
		관용자세	6.10	.93
	개방적 태도 (5.70)	수용자세	5.62	1.00
		감정이입	5.61	1.2
		배려가치	5.87	1.10
		중용	5.68	1.23
	합리적 태도 (5.59)	합리태도	5.65	.91
		윤리태도	5.54	1.13
	문화교류 (5.68)	다양가치	5.68	1.16
		상호작용	5.69	1.06

주: ()의 수치는 영역 및 요인의 평균값.

가치 및 태도 영역내의 네가지 하위 요인인 인류애, 개방적 태도, 합리적 태도, 문화교류별로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5.78, 5.70, 5.59, 5.68로 ‘약간 중요하다’에서 ‘비교적 중요하다’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가치 및 태도 영역은 대체로 ‘약간 중요하다’에서 ‘비교적 중요하다’에 걸쳐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방적 태도의 하위 변인인 개인적 욕심보다 타인 배려를 가치있게 여기는 것은 ‘비교적 중요하다’에 가까운 것으로, 인류애의 하위 변인인 나와 차이 있는 행동에 대한 관용자세의 중시는 ‘비교적 중요하다’이상인 것으로 가치 및 태도 영역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사회적 관계 영역 경우 <표 I -6>를 보면, 사회적 관계 영역내의 첫 번째 요인이자 유일한 요인인 사회적 기능에서 국제적인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협동심의 평균점수는 5.79로 ‘약간 중요하다’에서 ‘비교적 중요하다’에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능력과 외국인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외국어 구사능력의 평균점수는 5.95, 5.93으로 ‘비교적 중요하다’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고, 합의 도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는 토론과정에 원만하게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여러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6.06, 6.13, 6.23으로 ‘비교적 중요’하다 이상인 것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 -6> 세계시민자질 중요도-사회적 관계 영역

요인	하위요인	문항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관계 영역 (6.01)	사회적 기능 (6.01)	토론참여	6.13	.82
		의견표현	6.23	.87
		네트워킹	5.95	1.00
		합의도출	6.06	.92
		문제협동	5.79	.97
		외어구사	5.93	1.12
전체(총 44문항)			5.73	.60

주. ()의 수치는 영역 및 요인의 평균값.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사회적 관계 영역은 국제적인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협동심을 제외하고 ‘비교적 중요하다’에 가깝거나 혹은 ‘비교적 중요하다’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지식인으로부터 세계시민자질 중요도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세계시민 자질에 대한 중요도의 전체적인 평균은 7점 척도에서 5.73으로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세계시민 자질을 중요한 자질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둘째, 상위 요인인 국제적 사고 영역내의 모든 하위변인, 상위 요인인 국제적 이해 영역내의 조망 및 통찰 중 여러 국제협력기구와 역할에 대한 지식, 상위 요인인 국제적 이해 영역내의 다문화 인식 중 다양한 문화의 보편적 특성에 대한 이해, 선진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양상에 대한 이해, 상위 요인인 가치 및 태도영역 내의 인류애 중 인류공동체라는 의미의 중요성 인식, 상위 요인인 가치 및 태도 영역내의 개방적 태도 중 낯선 문화에 대한 수용적 자세,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력 및 감정이입능력, 문제해결에 있어서 흑백논리보다 중용자세 중요시, 상위 요인인 가치 및 태도 영역내의 합리적 태도 중 국제사회와 외국인에 대

한 합리적인 태도, 국제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윤리적 태도, 상위 요인인 가치 및 태도 영역내의 문화 교류 중 문화적 동질성 보다는 다양성에 대한 가치 의식, 서로 다른 문화간의 상호작용 중시는 평균점수가 전체 평균 점수인 5.72보다 낮아 비교적 중요도면에서 다른 하위변인들에 비해 떨어지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요인인 국제적 사고 영역내의 국제적 관여 중 지구적 이슈를 다루는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할 자세와 지구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세계문제에 대한 책임감은 중요도면에서 가장 낮게 인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반면, 상위 요인인 국제적 이해 영역내의 국제문제 이해 중 세계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세계인권문제에 대한 이해, 사회적 현실을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상위 요인인 가치 및 태도 영역내의 개방적 태도 중 나와 차이 있는 행동에 대한 관용 자세의 중시, 사회적 관계 영역내의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는 토론과정에 원만하게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여러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과 서로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적극성은 6점이상으로 매우 중요하게 간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 요인인 국제적 이해 영역내의 조망 및 통찰 중 세계속에서의 자신의 위치 조망능력, 국제적 변화에 대한 감각,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능력도 거의 6점으로 중요하게 간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하위요인별로 볼 때, 상위 요인인 국제적 사고 영역내의 분석 및 판단요인, 국제적 관여요인, 정보처리기능요인이 다른 요인에 비해 비교적 중요도면에서 낮게 인식되었으며, 상위 요인인 국제적 이해 영역내의 국제문제이해요인과 상위 요인인 사회적 관계 영역내의 사회적 기능요인이 6점 이상으로 가장 중

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7>요인별 세계시민자질에 대한 중요도 순위

순위	하위요인	평균	해당 상위 영역
1	국제문제이해요인	6.01	국제적 이해 영역
1	사회적 기능요인	6.01	사회적 관계 영역
3	인류애요인	5.78	가치 및 태도 영역
4	조망 및 통찰요인	5.76	국제적 이해 영역
5	다문화이해요인	5.73	국제적 이해 영역
6	개방적 태도요인	5.70	가치 및 태도 영역
7	문화교류요인	5.68	가치 및 태도 영역
8	합리적 태도요인	5.59	가치 및 태도 영역
9	정보처리기능요인	5.45	국제적 사고 영역
10	분석 및 판단요인	5.41	국제적 사고 영역
11	국제적 관여요인	5.40	국제적 사고 영역

이같은 중요도를 하위요인별로 순위를 정리하여 보았다. <표 I -7>에서와 같이, 국제문제이해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국제적 관여요인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상위요인별로 볼 때, 대체로 국제적 이해 영역과 사회적관계영역이 중요한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국제적 사고 영역은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중요도를 하위변인별로 순위를 정리하여 보면, <표 I -8>에서와 같이, 세계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본 사회적 현실에 대한 인식 및 세계인권에 대한 문제이해등이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국제적 이해 영역내의 국제문제이해요인의 하위변인이었다.

<표 I -8> 문항별 세계시민자질에 대한 중요도 순위

순위	개별문항	평균	상위요인-하위요인
1	환경인식	6.39	국제적 이해 영역-국제문제이해요인
2	사회인지	6.29	국제적 이해 영역-국제문제이해요인
3	인권이해	6.27	국제적 이해 영역-국제문제이해요인
4	의견표현	6.23	사회적 관계영역-사회적 기능요인
5	토론참여	6.13	사회적 관계영역-사회적 기능요인
6	관용자세	6.10	국제적 이해 영역-인류애요인
7	합의도출	6.06	사회적 관계영역-사회적 기능요인
8	변화감각	5.98	국제적 이해영역-조망 및 통찰요인
9	네트워킹	5.95	사회적 관계영역-사회적 기능요인
10	외어구사	5.93	사회적 관계영역-사회적 기능요인

3) 지식인의 세계시민의 개념에 대한 인식

지식인의 세계시민의 개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식인의 세계시민의 개념에 대한 인식은 <표 I -9>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세계시민의 개념 중 ‘세계 공동의 활동 영역이 증대하는 오늘날에 세계시민의식의 필요성은 증대할 것이다’, ‘세계시민은 세계의 공동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는 자세를 가진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을 의미한다’, ‘세계시민은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는 세계 여러 국가의 모든 시민을 총칭하는 말이다’,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일은 세계를 무대로 활용해야 하는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와 같은 개념의 평균점수는 5.68, 5.39, 5.46, 5.66으로 이 같은 세계시민의 개념에 대해 보통이상의 동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세계무대에서 주도적으로 앞

서가려면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문항의 평균점수는 5.93으로 이 개념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의식 중시요인에 해당되는 개별 문항에서는 '민족의식은 세계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는데 장애가 된다',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일은 세계를 무대로 활용해야 하는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문항의 평균점수는 3.40, 3.26으로 민족의식 중시에 관한 개념 및 용어에 대해서는 보통이하의 동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9> 지식인의 세계시민에 대한 인식

요인	문항	평균	표준편차
세계시민 개념 (5.63)	의식필요	5.68	1.02
	자질중요	5.93	1.04
	참여사람	5.39	1.17
	시민총칭	5.46	1.24
	민족공존	5.66	1.11
민족의식 중시 (3.34)	민족의식	3.40	1.68
	민족적합	3.26	1.67
세계시민 중시 (3.92)	민족앞서	4.01	1.71
	용어적합	4.41	1.64
	시민중요	3.31	1.67
전체(총 10문항)		4.67	.69

주 ()의 수치는 영역 및 요인의 평균값.

세계시민 중시요인 중 '민족의식은 세계시민의식보다 앞서야 한다', '세계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현재 사회에는 적합하지 않다'의 평균점수는 4.01, 4.41로 세계시민 중시에 관한 개념 및 용어에 대해서는 보통정도의 동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의 민주시민의 역할에 충실한다면 세계시민에 대한 의식과 자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의 평균점수는 3.31로 이에 대해 보통이하의 동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보면, 세계시민 개념의 평균 점수는 5.63으로 전체적으로 세계시민 개념 및 용어에 대해 비교적 보통 이상의 동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족의식 중시요인과 세계시민 중시요인의 평균 점수는 각각 3.34, 3.39로 보통이하의 동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세계시민에 대한 개념과 용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족의식만을 중시하거나 민족성을 배제한 세계시민만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이하의 동의 수준을 나타냄으로써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족의식보다 세계시민의식을 더 강조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과 민족의식을 더욱 중시하는 입장에서 보는 세계시민의 자질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 각 항목별로 t-검증을 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세계시민의 자질 실태

1) 청소년의 인구구성학적 특성

앞서, 지식인들에 의해 세계시민의 자질로서 중요하다고 인식된 항목들에 대하여 청소년의 세계시민자질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해보았다. 응답자인 청소년의 인구구성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Ⅱ-1> 청소년의 인구구성학적 특성(전체 496명)

인구구성학적 변인		빈도(명)	백분율(%)
연령	만 18세 미만	1	0.2
	만18-20세미만	93	18.8
	만20-22세미만	204	41.1
	만22-24세미만	129	26.0
	만24세이상	65	13.1
	무응답	4	0.8
성별	여자	323	65.1
	남자	170	34.3
	무응답	3	0.6
지역	서울/경기	282	56.9
	서울/경기 이외	211	42.5
	무응답	3	0.6
전공	인문계열	258	52.0
	사회계열	81	16.3
	이학계열	75	15.1
	공과계열	35	7.1
	예체능계열	3	0.6
	기타	36	7.4
	무응답	8	1.6
외국경험	없음	340	68.5
	1년미만	118	23.8
	1년이상-3년미만	18	3.6
	3년이상-5년미만	7	1.4
	5년이상	10	2.0
	무응답	3	0.6

<표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연령별 특성을 보면, 20세 이상에서 22세미만, 그리고 22세 이상에서 24세 미만 대상자들이 각각 41.1%와 26.0%이며,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대상자들의 성별을 보면, 여자가 65.1%, 남자가 34.3%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많이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거주지역을 보면, 서울/경기 지역이 56.9%, 서울/경기 이외지역이 42.5%로 서울/경기 지역

거주자들이 좀 더 많았으나 그다지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대상자들의 전공을 보면, 인문 및 사회계열이 각각, 52.0%와 16.3%를 차지하여 인문계열 학생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으며, 총 대상자의 2/3이상이 인문사회계열 전공자였다. 대상자들의 외국경험정도를 보면, 1년 미만인 경우가 총 대상자의 92.3%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외국경험이 적거나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인구구성학적 특성은 요컨대, 주로 20세 이상에서 24세 미만의 대상자들로서 여자가 좀 더 많았으며, 외국경험이 거의 없는 대상자들이었으나, 거주 지역의 면에서 볼 때는 서울/경기 지역과 서울/경기지역 이외 지역 거주자들이 비교적 유사한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2)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 실태

청소년의 세계시민자질 실태를 분석한 결과 <표Ⅱ-2>에서부터 <표Ⅱ-5>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앞서 연구방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소년의 세계시민자질 실태는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전체 44문항에 대한 총 세계시민 자질 수준의 평균은 3.27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적 사고 영역의 경우 <표Ⅱ-2>를 보면, 국제적 사고 영역 내의 첫 번째 하위 요인인 분석 및 판단요인에서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비판적 사고능력과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능력의 평균점수가 각각 3.16, 3.04로 3점 이상임으로 보통이상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슈 분석의 평균점수는 2.99로 3점 미만으로 보통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 사고 영역내의 두 번째 하위요인인 국제적 관여요인에서 관심있는 세계적 사안에 대한 심사숙고하는 자세와, 지구적

경향과 세계 공동 이슈에 대한 관심, 그리고 국제 사회 이슈에 대해 유연한 사고로의 대응에 관한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3.12, 3.17, 3.29로 보통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구적 이슈를 다루는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할 자세와 지구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세계문제에 대한 책임감의 평균점수는 각각 2.78과 2.78로 보통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관심은 가지고 있으나 적극적인 참여나 책임의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Ⅱ-2> 청소년의 세계시민자질 실태-국제적 사고 영역

요인	하위요인	문항	평균	표준편차
국제적 사고 영역 (3.01)	분석 및 판단 (3.07)	이슈비판	3.16	.86
		이슈분석	2.99	.86
		이슈평가	3.04	.80
	국제적 관여 (3.05)	단체참여	2.78	1.03
		세계책임	2.78	.96
		심사숙고	3.12	.88
		공동관심	3.17	.84
		유연사고	3.29	.79
	정보처리기능 (2.84)	정보수집	2.85	.88
		정보활용	2.65	.83
		원리적용	2.98	.86

주. ()의 수치는 영역 및 요인의 평균값

한편, 국제적 사고 영역내의 세 번째 하위요인인 정보처리기능 요인에서 국제사회 관심사에 관한 필요한 정보의 효과적인 수집 능력, 국제사회 관심사에 관해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기본적인 지식이나 원리를 다양한 국제상황을 이해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2.85, 2.65, 그리고 2.98로 3점 미만인 보통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것은 국제사회 관심사에 관해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 자질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제적 사고 영역내의 세 가지 하위 요인인 분석 및 판단요인, 국제적 관여요인별로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3.07, 3.17로서 보통이상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제적 사고 영역내의 정보처리기능요인의 평균점수는 2.84로 세 개의 하위 요인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국제적 사고 영역은 보통정도의 수준이지만, 정보처리기능요인의 모든 하위 변인인 국제사회 관심사에 관해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정보처리, 원리는 보통이하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석 및 판단요인의 하위 변인인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분석능력과, 국제적 관여요인의 하위 변인인 지구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세계문제에 대한 책임감과 지구적 이슈를 다루는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할 자세는 보통이하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적 사고 영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것은 정보처리기능요인의 하위 변인인 국제사회 관심사에 관해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평균점수가 2.65이었으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은 국제적 관여요인의 하위 변인인 국제 사회 이슈에 대한 유연 사고로의 대응의 평균점수가 3.29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 이해 영역의 경우 <표II-3>을 보면, 국제적 이해 영역내의 첫 번째 하위 요인인 조망 및 통찰요인에서 다섯 개의 하위 변인 중 세계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 조망능력에 대해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3.01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 네 개의 하위 변

인인 국제적 변화에 대한 감각, 세계 공동의 문제해결 방안을 다각적으로 인식할 수 능력, 국제 기구, 세계자원의 소비에 대한 지식에 대해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2.75, 2.65, 2.62, 2.67로 3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 이해 영역내의 두 번째 하위 요인인 다문화 이해요인에서 모든 하위 변인인 다양한 문화의 보편적 특성에 대한 이해, 문화 편견, 세계의 다양한 생활방식에 대한 평등한 가치의식, 다양한 문화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력, 선진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양상에 대한 이해에 대해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3.36, 3.61, 3.60, 3.55, 3.11로 보통수

<표Ⅱ-3> 청소년의 세계시민자질 실태-국제적 이해 영역

요인	하위요인	문항	평균	표준편차
국제적 이해 영역 (3.19)	조망 및 통찰 (2.74)	위치인식	3.01	.99
		변화감각	2.75	.89
		다각도	2.65	.89
		국제기구	2.62	.89
		자원지식	2.67	.81
	다문화이해 (3.46)	문화보편	3.36	.86
		문화편견	3.61	.81
		문화평등	3.60	1.12
		문화차이	3.55	.87
		선진문화	3.11	.86
	국제문제 이해 (3.35)	환경인식	3.75	.79
		인권이해	3.26	.79
		인구이해	3.03	.88
		빈곤문제	3.21	.82
		사회인지	3.47	.92

주 ()의 수치는 영역 및 요인의 평균값.

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 이해 영역 내의 세 번째 하위 요인인 국제문제 이해요인에서도 두 번째 하위 요인인 다문화 이해요인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하위 변인인 세계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세계인권문제에 대한 이해, 세계인구문제에 대한 이해, 여러 국제협력기구와 역할에 대한 지식, 사회적 현실을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3.75, 3.26, 3.03, 3.21, 3.47로 보통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 이해 영역내의 하위 요인인 다문화 이해요인, 국제문제 이해요인별로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3.46, 3.35로 보통이상이면서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조망 및 통찰요인의 평균점수는 2.74로 세 개의 하위 요인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 국제적 이해 영역의 평균 점수는 3.19로 나타났다. 즉, 국제 문제에 대한 조망 및 통찰 요인은 청소년의 세계시민의 자질로써 가장 낮은 실태를 보이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국제적 이해 영역은 보통정도의 수준이지만, 조망 및 통찰요인의 하위 변인인 국제적 변화에 대한 감각, 세계 공동의 문제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인식할 수 능력, 국제 기구, 세계자원의 소비에 대한 지식이 보통이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문화 이해요인과 국제문제 이해요인의 모든 하위 변인은 보통수준 이상을 보이고 있다. 국제적 이해 영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것은 조망 및 통찰요인의 여러 국제협력기구와 역할에 대한 지식으로 평균점수가 2.74이었으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은 국제문제이해요인의 세계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으로 평균점수가 3.75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 및 태도 영역의 경우 <표II-4>을 보면, 가치 및 태도 영역 내의 첫 번째 하위 요인인 인류애 요인에서는 모든 하위 변

인인 인류공동체라는 의미의 중요성 인식, 세계적 갈등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인류 공공의 선에 공헌하는 것에 대한 가치의식, 나와 차이 있는 행동에 대한 관용자세의 중시 항목에 관한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3.37, 3.77, 3.84, 3.73으로 모두 보통 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 및 태도 영역 내의 두 번째 하위 요인인 개방적 태도 요인에서도 모든 하위 변인에 해당되는 낯선 문화에 대한 수용적 자세,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력 및 감정이입 능력, 개인적 욕심보다 타인 배려를 가치있게 여기는 것, 문제해결에 있어서 흑백논리보다 중용자세를 중요시한다는 항목에 대해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3.44, 3.60, 3.50, 3.71로 나타났다. 가치 및 태도 영역내의 국제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 요인에서도 역시 모든 하위 변인에 해당되는 국제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 국제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윤리적 태도에 대한 평균점수 각각 3.36, 3.47로 나타났다. 가치 및 태도 영역 내의 문화교류 요인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하위변인에 해당되는 항목인 문화적 동질성보다는 다양성에 대한 가치 의식, 서로 다른 문화간의 상호작용 중시 항목에 대한 평균점수가 각각 3.84, 3.91로 나타났다.

가치 및 태도 영역 내의 하위요인인, 인류애, 개방적 태도, 합리적 태도, 문화교류 등 요인별로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3.70, 3.57, 3.42, 3.87로 보통이상의 수준을 보였으며, 가치 및 태도 영역내의 문화교류 요인의 평균점수는 3.87로 네 개의 하위 요인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가치 및 태도 영역의 평균은 3.65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가치 및 태도 영역은 보통이상의 수준이었고, 어떠한 하위 변인도 보통이하의 수준을 보인 것은 전혀 없었다. 또한, 가치 및 태도 영역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문화교류 요인의 하위 변인인 ‘서로 다른 문화간의 상호작용 중시’로 평균점수가 3.9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II-4> 청소년의 세계시민자질 실태-가치 및 태도 영역

요인	하위요인	문항	평균	표준편차
가치 및 태도 영역 (3.65)	인류애 (3.70)	공동체	3.37	.88
		갈등평화	3.77	.83
		인류가치	3.84	.82
		관용자세	3.73	.81
	개방적 태도(3.57)	수용자세	3.44	.86
		감정이입	3.60	.86
		배려가치	3.50	.86
		중용	3.71	.84
	합리적 태도 (3.42)	합리태도	3.36	.79
		윤리태도	3.47	.77
	문화교류 (3.87)	다양가치	3.84	.81
		상호작용	3.91	.76

주 ()의 수치는 영역 및 요인의 평균값.

다음은 청소년의 세계시민의 자질 중에서 사회적 관계 영역에 해당되는 세계시민 자질의 실태를 알아보기로 하겠다. <표II-5>을 살펴보면, 사회적 관계 영역내의 한 개의 요인인 사회적 기능 요인의 하위 변인 중에서 외국인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외국어 구사능력에 대해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2.76로 나타났고, 그 외 하위 변인에 해당되는 항목들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토론과정에 원만하게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여러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과 서로 의견차

이가 있는 경우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적극성, 국제적인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협동심발휘의 항목에 대해 평균치가 각각 3.28, 2.34, 3.09, 3.33, 3.26으로 나타났다.

<표Ⅱ-5> 청소년의 세계시민자질 실태-사회적 관계 영역

요인	하위요인	문항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관계영역 (3.17)	사회적 기능 (3.17)	토론참여	3.28	.85
		의견표현	3.23	.91
		네트워킹	3.09	.87
		합의도출	3.33	.86
		문제협동	3.26	.81
		외어구사	2.76	1.13
전체(총 44문항)			3.27	.43

주 ()의 수치는 영역 및 요인의 평균값.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사회적 관계 영역은 보통정도의 수준이며, 사회적 기능요인의 하위 변인인 외국인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외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어떠한 하위 변인도 보통이하의 수준을 보인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관계 영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것은 외국인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외국어 구사 능력으로 평균 점수가 2.76이었으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것은 사회적 기능요인의 하위요인인 다른 사람과 서로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적극성으로 평균점수가 3.3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사회적 관계 영역의 평균점수는 3.17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청소년의 세계시민자질 실태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의 세계시민자질의 평균은 3.27로 보통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제적 사고 영역내의 분석 및 판단요인의 하위변인인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분석능력, 국제적 사고 영역 내의 국제적 관여요인의 하위변인인 지구적 이슈를 다루는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할 자세와 지구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세계문제에 대한 책임감, 국제적 사고 영역내의 하위요인인 정보처리기능요인의 하위변인인 국제사회 관심사에 관한 필요한 정보의 효과적인 수집능력, 국제사회 관심사에 관해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기본적인 지식이나 원리를 다양한 국제상황을 이해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국제적 이해 영역내의 조망 및 통찰요인의 하위변인인 국제적 변화에 대한 감각, 세계 공동의 문제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인식할 수 능력, 국제기구, 세계자원의 소비에 대한 지식, 사회적 관계영역내의 사회적 기능요인의 하위변인인 외국인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외국어 구사능력은 평균점수가 3.0미만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서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다.

국제적 사고 영역 내의 분석 및 판단요인의 하위변인인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능력,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비판적 사고능력, 국제적 사고 영역내의 국제적 관여요인의 하위변인인 관심있는 세계적 사안에 대한 심사숙고하는 자세, 지구적 경향과 세계 공동 이슈에 대한 관심, 국제적 이해 영역 내의 조망 및 통찰요인의 하위변인인 세계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 조망능력, 국제적 이해 영역 내의 다문화 이해요인의 하위변인에 해당되는 선진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양상에 대한 이해, 국제적 이해 영역 내의 국제문제 이해요인의 세계인권문제에 대한 이해, 세계인구문제에 대한 이해, 여러 국제협력기구와 역할에

대한 지식, 사회적 관계 영역내의 사회적 기능 요인의 하위변인인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능력, 여러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과 서로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적극성은 3.0이상으로 보통이상은 되지만 전체 평균인 3.27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위요인별로 볼 때, 국제적 사고 영역내의 정보처리기능요인과 국제적 이해 영역내의 조망 및 통찰요인은 평균 3.0미만으로 나타나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국제적 사고 영역의 분석 및 판단요인과 국제적 사고 영역내의 국제적 관여요인도 전체 평균인 3.27미만으로 나타나 비교적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요인을 비교해 볼 때, 국제적 사고 영역이 평균 3.01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제적 이해 영역 내의 국제문제 이해요인의 하위요인인 세계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가치 및 태도 영역 내의 인류애요인의 인류 공공의 선에 공헌하는 것에 대한 가치의식, 가치 및 태도 영역내의 문화교류요인의 하위 요인인 문화적 동질성보다는 다양성에 대한 가치의식과 서로 다른 문화간의 상호작용 중시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자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치 및 태도 영역내의 인류애요인과 문화교류요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자질수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치 및 태도 영역이 평균 3.65로 가장 높은 의식수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성별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 실태

다음에서는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실태가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Ⅱ-6>에서부터 <표Ⅱ-9>에 제시되었는데, 이를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적 사고 영역의 경우 <표Ⅱ-6>를 보면, 국제적 사고 영역 내의 국제적 관여요인의 하위변인인 지구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세계문제에 대한 책임감 변인만이 청소년의 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하위요인 및 하위변인에서는 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제적 사고 영역 내의 첫 번째 하위요인인 분석 및 판단요인의 하위 변인인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비판적 사고능력,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분석능력, 이슈 평가에 대해 성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3.13과 3.23, 2.98과 3.01, 3.01과 3.10으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국제적 사고 영역 내의 두 번째 하위요인인 국제적 관여요인의 하위 변인인 지구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세계문제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 성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2.85와 2.66으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변인 중 지구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세계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제외한 단체 참여, 관심있는 세계적 사안에 대한 심사숙고하는 자세, 지구적 경향과 세계 공동 이슈에 대한 관심, 국제 사회 이슈에 대한 유연 사고로의 대응에 대해 성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2.78, 과 2.76, 3.11과 3.13, 3.18과 3.15, 3.28과 3.32로 성별에 따라 어떤 일관성도 없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국제적 사고 영역

내의 정보처리기능요인의 하위 변인인 국제사회 관심사에 관한 필요한 정보의 효과적인 수집능력, 국제사회 관심사에 관해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기본적인 지식이나 원리를 다양한 국제상황을 이해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성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2.82와 2.90, 2.65와 2.66, 2.97과 2.9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Ⅱ-6>성별 청소년의 세계시민자질 실태-국제적 사고 영역

요인	하위 요인	문항	여자		남자		t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국제적 사고 영역	분석 및 판단	이슈비판	3.13	.84	3.23	.90	
		이슈분석	2.98	.83	3.01	.93	
		이슈평가	3.01	.76	3.10	.87	
	국제적 관여	단체참여	2.78	1.02	2.76	1.06	
		세계책임	2.85	.94	2.66	1.00	2.12*
		심사숙고	3.11	.86	3.13	.93	
		공동관심	3.18	.84	3.15	.85	
	정보처리기능	유연사고	3.28	.79	3.32	.78	
		정보수집	2.82	.86	2.90	.92	
		정보활용	2.65	.83	2.66	.85	
	원리적용	2.97	.87	2.99	.85		

*p<.05, **p<.01

이같은 결과를 하위요인별로 보았을 때, 국제적 사고 영역 내의 분석 및 판단요인, 국제적 관여요인, 국제사회 관심사에 관해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요인에 대해 성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3.04와 3.11, 3.06과 3.02,

2.82와 2.8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국제적 사고 영역내의 국제적 관여요인의 하위변인인 지구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세계문제에 대한 책임감에서 남자대학생보다 여자대학생이 더 낮은 수준에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의 어떤 하위요인 및 하위변인에 대해서도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국제적 이해 영역 경우 <표Ⅱ-7>을 보면, 국제적 이해 영역내의 조망 및 통찰요인의 하위변인인 세계자원의 소비에 대한 지식, 다문화 이해요인의 하위변인인 문화적 편견에 대한 인식, 국제문제 이해요인의 하위변인인 세계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서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 보면, 국제적 이해 영역 내의 조망 및 통찰요인이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하위요인 및 하위변인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제적 이해 요인내의 첫 번째 하위요인인 조망 및 통찰요인에서 하위변인 중 세계자원의 소비에 대한 지식에 대해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2.56과 2.88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조망 및 통찰요인에서 하위변인인 세계속에서의 자신의 위치 조망능력, 국제적 변화에 대한 감각, 세계공동의 문제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인식할 수 능력, 여러 국제협력기구와 역할에 대한 지식에 대해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3.00과 3.03, 2.67과 2.90, 2.56과 2.87, 2.58과 2.6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국제적

이해 요인 내의 두 번째 하위요인인 다문화 이해요인에서 하위변인 중 문화적 편견에 대한 인식에 대해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3.70과 3.45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7>성별 청소년의 세계시민자질 실태-국제적 이해 영역

요인	하위 요인	문항	여자		남자		t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국제적 이해 영역	조망 및 통찰	위치인식	3.00	.96	3.03	1.05	
		변화감각	2.67	.84	2.90	.97	
		다각도	2.56	.82	2.80	.98	
		국제기구	2.58	.87	2.68	.94	
		자원지식	2.56	.76	2.88	.86	-4.15**
	다문화 이해	문화보편	3.40	.85	3.30	.89	
		문화편견	3.70	.80	3.45	.80	3.20**
		문화평등	3.59	1.14	3.60	1.08	
		문화차이	3.57	.86	3.52	.88	
		선진문화	3.13	.86	3.05	.84	
	국제문제이해	환경인식	3.80	.77	3.63	.83	2.29*
		인권이해	3.26	.79	3.24	.80	
		인구이해	3.00	.87	3.09	.88	
		빈곤문제	3.23	.81	3.16	.85	
		사회인지	3.51	.90	3.42	.95	

* $p<.05$, ** $p<.01$

그 외 다문화 이해요인에서 하위변인인 다양한 문화의 보편적 특성에 대한 이해, 문화적 편견에 대한 인식, 다양한 문화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력, 선진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양상에

대한 이해에 대해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3.40과 3.30, 3.70과 3.45, 3.57과 3.52, 3.13과 3.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 이해 영역내의 세 번째 하위요인인 국제문제 이해에서 하위 변인인 세계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3.80과 3.63으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국제문제 이해요인에서 하위 변인인 세계인권문제에 대한 이해, 세계인구문제에 대한 이해, 여러 국제협력기구와 역할에 대한 지식, 사회적 현실을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3.26과 3.24, 3.00과 3.09, 3.23과 3.16, 3.51과 3.4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를 하위 요인별로 볼 때, 국제적 이해 영역 내의 조망 및 통찰요인만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의 평균점수가 각각 2.68과 2.86으로 $p < .01$ 수준에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 이해 영역내의 다문화 인식요인과 국제문제이해요인은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의 평균점수가 2.68과 2.8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 및 태도 영역의 경우 <표Ⅱ-8>을 보면, 가치 및 태도 영역 내의 인류애 요인의 하위변인인 인류공동체라는 의미의 중요성 인식, 세계적 갈등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인류 공공의 선에 공헌하는 것에 대한 가치의식, 나와 차이 있는 행동에 대한 관용자세의 중시, 개방적 태도의 하위변인인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력 및 감정이입능력, 문화교류요인의 하위변인

인 서로 다른 문화간의 상호작용 증시에서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류공동체라는 의미의 중요성 인식은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의 평균이 각각 3.45와 3.21로 $p < .01$ 수준에서, 세계적 갈등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는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의 평균이 각각 3.84와 3.61로 $p < .01$ 수준에서, 인류 공공의 선에 공헌하는 것에 대한 가치의식은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의 평균이 각각 3.91과 3.71로 $p < .05$ 수준에서, 나와 차이 있는 행동에 대한 관용자세의 증시는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의 평균이 각각 3.78에서 3.61로 $p < .05$ 수준에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 및 태도 영역내의 두 번째 하위요인인 개방적 태도요인의 하위 문항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력 및 감정이입능력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의 평균이 각각 3.67과 3.46으로 $p < .01$ 수준에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개방적 태도요인의 하위 변인인 낯선 문화에 대한 수용적 자세, 개인적 욕심보다 타인 배려를 가치있게 여기는 것, 문제해결에 있어서 흑백논리보다 중용자세 중요시에 대해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3.44와 3.44, 3.50과 3.50, 3.73과 3.65로 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에 있어서 흑백논리보다 중용자세를 중요시 여긴다는 문항에 대해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가치 및 태도 영역내의 합리적 태도 요인의 모든 하위변인인 국제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 국제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윤리적 태도에 대해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3.39와 3.30, 3.51과 3.39로 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제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와 국제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윤리적 태도는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가치 및 태도 영역내의 네 번째 하위요인인 문화교류요인의 하위 변인인 서로 다른 문화간의 상호작용 중시에서 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로 다른 문화간의 상호작용 중시는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의 평균이 각각 3.99와 3.74로 $p < .01$ 수준에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문화교류요인의 하위 변인인 문화적 동질성보다는 다양성에 대한 가치 의식의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3.86과 3.74로 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같은 결과를 하위 요인별로 볼 때, 가치 및 태도 영역내의 인류애요인과 문화교류요인은 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인류애 요인은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의 평균이 각각 3.75와 2.58로 $p < .01$ 수준에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교류요인은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의 평균이 각각 3.92와 3.76으로 $p < .05$ 수준에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또 다른 하위요인인 개방적 태도요인과 합리적 태도요인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3.59와 3.52, 3.46과 3.35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치 및 태도 영역은 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의 평균이 각각 3.69와 3.57로 $p < .05$ 수준에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가치 및 태도 영역내의 인류애 요인의 하위변인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방적 태도요인의 하위변인인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력 및 감정이입능력, 문화교류요인의 하위변인인 서로 다른 문화간의 상호작용 증시에서 그리고 전체 가치 및 태도 영역에서 남자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 영역의 경우를 보면 <표Ⅱ-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떠한 요인과 하위문항에서도 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즉, 사회적 관계 영역 내의 한 개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기능요인의 개별 문항으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는 토론과정에 원만하게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여러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과 서로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적극성에 대해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3.25와 3.33, 3.21과 3.25, 3.32와 3.35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II-8>성별 청소년의 세계시민자질 실태-가치 및 태도 영역

요인	하위 요인	문항	여자		남자		t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가치 및 태도 영역	인류애	공동체	3.45	.84	3.21	.93	2.82**
		갈등평화	3.84	.76	3.61	.85	2.95**
		인류가치	3.91	.80	3.72	.91	2.41*
		관용자세	3.78	.79	3.61	.85	2.15*
	개방적 태도	수용자세	3.44	.84	3.44	.90	
		감정이입	3.67	.82	3.46	.92	2.61**
		배려가치	3.50	.85	3.50	.88	
	합리적 태도	중용	3.73	.80	3.65	.92	
		합리태도	3.39	.80	3.30	.75	
	문화교류	윤리태도	3.51	.78	3.39	.76	
		다양가치	3.86	.77	3.80	.88	
		상호작용	3.99	.72	3.74	.81	3.50**

*p<.05, **p<.01

이와 반대로 사회적 기능요인의 하위변인인 국제적인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협동심, 외국인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외국어 구사능력에 대해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3.29와 3.22, 2.77과 2.75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역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관계 영역내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기능요인과 모든 하위변인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일관성있는 경향성이나 혹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세계시민자질 실태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의

세계시민자질의 전체 평균은 각각 3.28과 3.25이었는데, 전체 평균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9> 성별 청소년의 세계시민자질 실태-사회적 관계영역

요인	하위요인	문항	여자		남자		t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사회적 관계 영역	사회적 기능	토론참여	3.25	.86	3.33	.85	
		의견표현	3.21	.90	3.25	.93	
		네트워킹	3.06	.89	3.14	.84	
		합의도출	3.32	.82	3.35	.95	
		문제협동	3.29	.89	3.22	.85	
		외어구사	2.77	1.15	2.75	1.10	

*p<.05, **p<.01

국제적 사고 영역 내의 국제적 관여요인의 하위변인인 지구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세계문제에 대한 책임감, 국제적 이해 영역 내의 다문화 이해요인의 하위변인인 문화적 편견에 대한 인식, 국제적 이해 영역 내의 국제문제 이해요인의 하위변인인 세계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가치 및 태도 영역 내의 인류애 요인의 하위변인인 인류공동체라는 의미의 중요성 인식, 세계적 갈등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인류 공공의 선에 공헌하는 것에 대한 가치의식, 나와 차이 있는 행동에 대한 관용자세의 중시, 가치 및 태도 영역 내의 개방적 태도요인의 하위변인인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력 및 감정이입능력, 가치 및 태도 영역 내의 문화교류요인의 하위변인인 서로 다른 문화간의 상호작용 중시에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 이해 영역 내의 조망 및 통찰요인의 하위변인인 세계 자원의 소비에 대한 지식에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 및 태도 영역 내의 인류애 요인과 문화교류 요인에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국제적 이해 영역 내의 조망 및 통찰요인에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요인별로 보면, 유일하게 가치 및 태도 영역에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거주지별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 실태

청소년의 세계시민자질의 실태를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Ⅱ-10>에서부터 <표Ⅱ-13>에 제시되었는데 이를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적 사고 영역의 경우 <표Ⅱ-10>에서와 같이 거의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제적 사고 영역내의 분석 및 판단요인의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비판적 사고능력,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분석능력,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능력, 국제적 관여 요인의 지구적 이슈를 다루는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할 자세, 지구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세계문제에 대한 책임감, 지구적 경향과 세계 공동 이슈에 대한 관심, 국제 사회 이슈에 대한 유연 사고로의 대응, 국제적 사고

영역내의 정보처리기능요인의 국제사회 관심사에 관해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기본적인 지식이나 원리를 다양한 국제상황을 이해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능력에서, 하위요인별로 보면, 분석 및 판단요인, 국제적 관여요인, 정보처리기능요인 및 전체 국제적 사고 영역에서 거주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 사고 영역 내의 첫 번째 하위요인인 분석 및 판단요인의 모든 하위변인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비판적 사고능력,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분석능력,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능력에서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비판적 사고능력은 서울/경지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각각 3.28와 3.00으로 $p < .01$ 수준에서,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분석능력은 서울/경지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각각 3.11과 2.83으로 $p < .01$ 수준에서,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능력은 서울/경지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각각 3.14와 2.90으로 $p < .01$ 수준에서,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가 서울/경지지역 거주자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 사고 영역내의 두 번째 하위요인인 국제적 관여요인의 하위변인 중 관심있는 세계적 사안에 대한 심사숙고하는 자세를 제외한 지구적 이슈를 다루는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할 자세, 지구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세계문제에 대한 책임감, 지구적 경향과 세계 공동 이슈에 대한 관심, 국제 사회 이슈에 대한 유연 사고로의 대응에서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적 이슈를 다루는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할 자세는 서울/경지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

자의 평균이 각각 2.96과 2.53으로 $p < .01$ 수준에서, 지구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세계문제에 대한 책임감은 서울/경지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각각 2.96과 2.54로 $p < .01$ 수준에서, 지구적 경향과 세계 공동 이슈에 대한 관심은 서울/경지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각각 3.23과 3.08로 $p < .05$ 수준에서, 국제 사회 이슈에 대한 유연 사고로의 대응은 서울/경지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각각 3.37과 3.18로 $0 < .01$ 수준에서,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가 서울/경기지역 거주자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있는 세계적 사안에 대한 심사숙고하는 자세에 대해 서울/경기 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3.17과 3.0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국제적 사고 영역내의 세 번째 하위요인인 정보처리기능요인의 하위 변인중 국제사회 관심사에 관한 필요한 정보의 효과적인 수집능력을 제외하고 국제사회 관심사에 관해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기본적인 지식이나 원리를 다양한 국제상황을 이해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능력에서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 관심사에 관해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서울/경지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각각 2.27과 2.56으로 $p < .05$ 수준에서, 기본적인 지식이나 원리를 다양한 국제상황을 이해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은 서울/경지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각각 3.05에서 2.88로 $p < .05$ 수준에서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가 서울/경기지역 거주자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 관심사에 관한 필요한 정보의 효과적인 수집

능력에 대해 서울/경기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지역이외 거주자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2.90과 2.7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0> 거주지별 세계시민자질 실태-국제적 사고 영역

요인	하위요인	문항	서울/경기 지역		서울/경기 이외 지역		t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국제적 사고 영역	분석 및 판단	이슈비판	3.28	.84	3.00	.86	3.62**
		이슈분석	3.11	.88	2.83	.81	3.66**
		이슈평가	3.14	.76	2.90	.83	3.25**
	국제적 관여	단체참여	2.96	1.02	2.53	1.00	4.51**
		세계책임	2.96	.95	2.54	.93	4.76**
		심사숙고	3.17	.86	3.04	.91	
		공동관심	3.23	.83	3.08	.86	1.98*
		유연사고	3.37	.78	3.18	.80	2.57**
	정보처리기능	정보수집	2.90	.83	2.78	.94	
		정보활용	2.72	.80	2.56	.88	2.17*
		원리적용	3.05	.85	2.88	.88	2.12*

*p<.05, **p<.01

이같은 결과를 하위요인별로 볼 때, 국제적 사고 영역내의 분석 및 판단요인과 국제적 사고 영역내의 국제적 관여요인 그리고 국제적 사고 영역내의 정보처리기능요인에서 거주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및 판단요인은 서울/경기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각각 3.18과 2.91로 p<.01수준에서, 국제적 관여요인은 서울/경기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각각 3.16과 2.89로 p<.01수준에서, 정보처리기능요인은 서울/경기

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각각 2.89와 2.75로 $p < .05$ 수준에서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가 서울/경기지역 거주자보다 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국제적 사고 영역에서도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국제적 사고 영역내의 국제적 관여요인의 하위변인인 관심있는 세계적 사안에 대한 심사숙고하는 자세를 제외한 모든 하위변인과 모든 하위요인, 그리고 전체요인에서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가 서울/경기지역 거주자보다 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관심있는 세계적 사안에 대한 심사숙고하는 자세도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서울/경기이외 지역거주자가 서울/경기지역 거주자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국제적 감각 배양에 있어서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제적 이해 영역의 경우 <표II-11>를 보면, 국제적 이해 영역 내의 조망 및 통찰요인의 하위변인인 세계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 조망능력, 국제적 변화에 대한 감각, 세계 공동의 문제해결 방안을 다각적으로 인식할 수 능력, 여러 국제협력기구와 역할에 대한 지식, 세계자원의 소비에 대한 지식, 국제적 이해 영역내의 다문화 이해요인의 하위변인인 다양한 문화의 보편적 특성에 대한 이해, 문화적 편견에 대한 인식, 세계의 다양한 생활방식에 대한 평등한 가치의식, 다양한 문화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력, 선진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양상에 대한 이해, 국제적 이해 영역내의 국제문제이해요인의 세계인권문제에 대한 이해, 사회적 현실을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거주 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보면, 조망 및 통찰 요인, 다문화 이해요인에서 거주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제문제이해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국제적 이해 영역내의 조망 및 통찰요인의 하위변인 중 세계 자원의 소비에 대한 지식을 제외한 모든 하위변인인 세계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 조망능력, 국제적 변화에 대한 감각, 세계 공동의 문제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인식할 수 능력, 여러 국제협력 기구와 역할에 대한 지식에서 청소년의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 조망능력은 서울/경지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각각 3.18과 2.79로 $p < .01$ 수준에서, 국제적 변화에 대한 감각은 서울/경지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각각 2.89와 2.57로 $p < .01$ 수준에서, 세계 공동의 문제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인식할 수 능력은 서울/경지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각각 2.73과 2.52로 $p < .01$ 수준에서, 여러 국제협력기구와 역할에 대한 지식은 서울/경지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각각 2.72와 2.46으로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가 서울/경지지역 거주자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하위 변인인 자원 지식에 대해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와 서울/경지지역 거주자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2.79와 2.63으로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국제적 이해 영역내의 두 번째 하위요인에 대해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양한 문화의 보편적 특성에 대한 이해는 서울/경지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각각 3.47과 3.22로 $p < .05$ 수준에서, 문화적 편견에 대한 인식은 서울/경지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

주자의 평균이 각각 3.70과 3.49로 $p < .01$ 수준에서, 세계의 다양한 생활방식에 대한 평등한 가치의식은 서울/경지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각각 3.73과 3.42로 $p < .01$ 수준에서, 다양한 문화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력은 서울/경지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각각 3.70과 3.36으로 $p < .01$ 수준에서, 선진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양상에 대한 이해는 서울/경지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각각 3.18과 3.01로 $p < .05$ 수준에서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가 서울/경기지역 거주자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 이해 영역 내의 세 번째 하위요인인 국제문제 요인의 하위 변인 중 세계인권문제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현실을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에서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인권문제에 대한 이해는 서울/경지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각각 3.34와 3.13으로 $p < .01$ 수준에서, 사회적 현실을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은 서울/경지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각각 3.57과 3.35로 $p < .05$ 수준에서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가 서울/경기지역 거주자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하위변인인 세계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세계인구문제에 대한 이해, 여러 국제협력기구와 역할에 대한 지식에 대해 서울/경기 지역 거주자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3.75와 3.72, 3.04와 3.00, 3.21과 3.19로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가 서울/경기지역 거주자 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II-11> 거주지별 세계시민자질 실태-국제적 이해영역

요인	하위 요인	문항	서울/경기 지역		서울/경기 이외 지역		t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국제적 이해 영역	조망 및 통찰	위치인식	3.18	.97	2.79	.98	4.34**
		변화감각	2.89	.91	2.57	.84	3.99**
		다각도	2.73	.87	2.52	.89	2.63**
		국제기구	2.72	.91	2.46	.85	3.24**
		자원지식	2.70	.77	2.63	.86	
	다문화 이해	문화보편	3.47	.82	3.22	.91	3.25**
		문화편견	3.70	.78	3.49	.83	2.98**
		문화평등	3.73	1.07	3.42	1.15	3.08**
		문화차이	3.70	.83	3.36	.88	4.36**
		선진문화	3.18	.84	3.01	.87	2.22*
	국제문제이해	환경인식	3.75	.75	3.72	.85	
		인권이해	3.34	.76	3.13	.81	3.07**
		인구이해	3.04	.86	3.00	.89	
		빈곤문제	3.21	.86	3.19	.77	
		사회인지	3.57	.89	3.35	.94	2.60*

*p<.05, **p<.01

이같은 결과를 하위요인별로 볼 때, 국제적 이해 영역 내의 조망 및 통찰요인과 국제적 이해 영역 내의 다문화 이해요인에서 거주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망 및 통찰요인은 서울/경기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각각 2.85와 2.581로 $p<.01$ 수준에서, 다문화 이해요인은 서울/경기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각각 3.56과 3.31로 $p<.01$ 수준에서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가 서울/경기지역 거주자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제문제이해요인에 대해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3.39와 3.29로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가 서울/경기지역 거주자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가 서울/경기지역 거주자 보다 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전체 국제적 이해 영역에 대해서도 거주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 및 태도 영역의 경우 <표Ⅱ-12>를 보면, 가치 및 태도 영역 내의 인류애요인의 하위변인인 인류공동체라는 의미의 중요성 인식, 개방적 태도요인의 하위변인인 낯선 문화에 대한 수용적 자세, 문제해결에 있어서 흑백논리보다 중용자세 중요시, 합리적 태도요인의 하위변인인 국제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 국제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윤리적 태도, 문화교류요인의 하위변인인 문화적 동질성보다는 다양성에 대한 가치 의식, 서로 다른 문화간의 상호작용 중시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위요인별로 볼 때, 인류애요인, 개방적 태도요인, 합리적 태도요인, 문화교류요인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가치 및 태도 영역에서도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 태도 영역내의 첫 번째 하위요인인 인류애요인의 하위변인 중에서 인류공동체라는 의미의 중요성 인식에서 서울/경기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각각 3.48과 3.24로 $p < 01$ 수준에서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가 서울/경기지역 거주자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하위변인인 세계적 갈등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인류 공공의 선에 공헌하는 것에 대한 가치의식, 나와 차이 있는 행동에 대한 관용자세의 중시에 대해 서울/경기 지역 거주자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3.83과

3.68, 3.86과 3.82, 3.81과 3.61로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치 및 태도 영역내의 두 번째 하위요인인 개방적 태도요인의 하위 변인 중에서 낯선 문화에 대한 수용적 자세는 서울/경기 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각각 3.54와 3.30으로 $p < .01$ 수준에서, 문제해결에 있어서 흑백논리보다 중용 자세 중요시는 서울/경기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각각 3.83과 3.57로 $p < .01$ 수준에서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가 서울/경기지역 거주자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하위변인인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력 및 감정이입능력, 개인적 욕심보다 타인 배려를 가치있게 여기는 것에 대해 서울/경기 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3.65와 3.53, 3.54와 3.44로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가 서울/경기 지역 거주자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치 및 태도 영역내의 세 번째 하위변인인 합리적 태도요인의 하위변인에 해당되는 국제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와 국제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윤리적 태도에서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는 서울/경기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각각 3.46과 3.22로 $p < .01$ 수준에서, 국제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윤리적 태도는 서울/경기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각각 3.54와 3.30으로 $p < .05$ 수준에서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가 서울/경기지역 거주자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 및 태도 영역내의 문화교류요인의 하위변인에 해당되는 문화적 동질성보다는 다양성에 대한 가치 의식, 서로 다른 문화간의 상호작용 중시에서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동질성보다는 다양성에 대한 가치 의식은 서울/경지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각각 3.92와 3.72로 $p<.01$ 수준에서, 국제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윤리적 태도는 서울/경지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각각 3.99와 3.80으로 $p<.01$ 수준에서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가 서울/경기지역 거주자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2> 거주지역별 세계시민자질 실태-가치 및 태도 영역

요인	하위요인	문항	서울/경기 지역		서울/경기 이외 지역		t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가치 및 태도 영역	인류애	공동체	3.48	.82	3.24	.92	2.98**
		갈등평화	3.83	.75	3.68	.91	
		인류가치	3.86	.75	3.82	.90	
		관용자세	3.81	.80	3.61	.82	
	개방적 태도	수용자세	3.54	.82	3.30	.89	3.10**
		감정이입	3.65	.86	3.53	.85	
		배려가치	3.54	.82	3.44	.90	
	합리적 태도	중용	3.82	.79	3.57	.88	3.24**
		합리태도	3.46	.75	3.22	.82	3.38**
	문화교류	윤리태도	3.54	.74	3.36	.81	2.60**
		다양가치	3.92	.77	3.72	.84	2.65**
		상호작용	3.99	.70	3.80	.82	2.74**

* $p<.05$, ** $p<.01$

이같은 결과를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가치 및 태도 영역내의 인류애요인, 개방적 태도요인, 합리적 태도요인, 문화교류요인에 서 모두 거주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류애요인은 서울/경지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각각 3.75와 3.62로 $p < .05$ 수준에서, 개방적 태도요인은 서울/경지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각각 3.64와 3.47로 $p < .01$ 수준에서, 합리적 태도요인은 서울/경지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각각 3.51과 3.30으로 $p < .01$ 수준에서, 문화교류요인은 서울/경지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각각 3.96과 3.75로 $p < .01$ 수준에서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가 서울/경기지역 거주자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 영역의 경우 <표Ⅱ-13>를 보면, 사회적 관계 영역내의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는 토론과정에 원만하게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능력, 국제적인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협동심, 외국인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외국어 구사능력에서 거주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는 토론과정에 원만하게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은 서울/경기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각각 3.35와 3.18로 $p < .01$ 수준에서,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능력은 서울/경기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각각 3.19와 2.95로 $p < .01$ 수준에서, 국제적인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협동심은 서울/경기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각각 3.34와 3.15로 $p < .01$ 수준에서 외국인과 기본적

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외국어 구사능력은 서울/경기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각각 2.98과 2.47로 $p < .01$ 수준에서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가 서울/경기지역 거주자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3> 거주지별 청소년 세계시민자질 실태-사회적 관계영역

요인	하위 요인	문항	서울/경기 지역		서울/경기 이외 지역		t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사회적 관계 영역	사회적 기능	토론참여	3.35	
의견표현	3.25	.91			3.19	.91	
네트워킹	3.19	.87			2.95	.85	3.06**
합의도출	3.36	.86			3.28	.87	
문제협동	3.34	.80			3.15	.81	2.58**
외어구사	2.98	1.16			2.47	1.01	5.00**

* $p < .05$, ** $p < .01$

그 외 하위변인인, 여러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합의 도출에 대해 서울/경기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3.25와 3.19, 3.36과 3.28,로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가 서울/경기지역 거주자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으로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의 세계시민자질 실태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거주지역에 따라, 일관성있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33개의 하위변인과 10개의 하위요인 그리고 4개의 상위요인에서 거주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전체 평균은 3.28과 3.25로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33개 항목의 하위변인에 대해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가 서울/경기지역거주자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제적 사고 영역 내의 국제적 관여요인의 하위변인인 관심있는 세계적 사안에 대한 심사숙고하는 자세, 정보처리기능요인의 하위변인인 국제사회 관심사에 관한 필요한 정보의 효과적인 수집능력, 국제적 이해 영역 내의 조망 및 통찰요인의 하위변인인 세계자원의 소비에 대한 지식, 국제문제이해요인의 하위변인인 세계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인구이해, 여러 국제협력기구와 역할에 대한 지식, 가치 및 태도 영역 내의 인류애요인의 하위변인인 세계적 갈등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인류 공공의 선에 공헌하는 것에 대한 가치의식, 자신과 차이 있는 행동에 대한 관용자세의 중시, 개방적 태도요인의 하위변인인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력 및 감정이입능력, 개인적 욕심보다 타인 배려를 가치있게 여기는 것, 사회적 관계 영역 내의 사회적 기능요인의 하위변인인 여러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과 서로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적극성을 제외한 모든 하위변인에서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하위요인별로 보면, 국제적 사고 영역의 국제문제이해요인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상위요인별로 보면, 모든 상위요인 즉, 국제적 사고영역, 국제적 이해 영역, 가치 및 태도

영역,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 서울/경기이의 지역 거주자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전공별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 실태

다음은 청소년의 세계시민자질실태가 전공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Ⅱ-14>에서부터 <표Ⅱ-17>에 제시되었는데 이를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적 사고 영역의 경우 <표Ⅱ-14>에서와 같이, 국제적 사고 영역내의 분석 및 비판요인의 하위변인인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비판적 사고능력,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분석능력,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능력, 국제적 사고 영역 내의 국제적 관여요인의 하위변인인 지구적 이슈를 다루는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할 자세, 지구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세계문제에 대한 책임감, 국제 사회 이슈에 대한 유연 사고로의 대응, 국제적 사고 영역내의 정보처리기능요인의 하위변인인 국제사회 관심사에 관해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서, 하위요인별로 볼 때, 분석 및 판단요인과 국제적 관여요인에서 전공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제적 사고 영역 내의 첫 번째 하위요인인 분석 및 판단요인의 모든 하위변인에서 전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비판적 사고능력은 인문사회분야 전공자와 기타분야 전공자의 평균이 각각 3.24와 2.99로 $p<.01$ 수준에서, 이슈분석은 인문사회분야 전공자와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의 평균이 각각 3.07과 2.85로 $p<.01$ 수준에서,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능력은 각각 3.12와 2.86으로 $p<.01$ 수준에서,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인문사회분야 전공자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 사고 영역 내의 두 번째 하위요인인 국제적 관여요인의 하위변인 중 지구적 이슈를 다루는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할 자세, 지구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세계문제에 대한 책임감에서 전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4>전공별 청소년 세계시민자질 실태-국제적 사고 영역

요인	하위요인	문항	인문사회		비인문사회		t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국제적 사고 영역	분석 및 비판	이슈비판	3.24	.85	2.99	.85	2.97**
		이슈분석	3.07	.88	2.835	.81	2.87**
		이슈평가	3.12	.78	2.86	.80	3.29**
	국제적 관여	단체참여	2.87	1.04	2.57	.97	3.07**
		세계책임	2.891	.98	2.58	.89	3.28**
		심사숙고	3.13	.85	3.10	.96	
		공동관심	3.19	.83	3.11	.87	
	정보처리기능	유연사고	3.37	.77	3.13	.82	2.98**
		정보수집	2.86	.88	2.83	.87	
		정보활용	2.71	.84	2.53	.80	2.21*
		원리적용	3.00	.88	2.93	.82	

* $p<.05$, ** $p<.01$

지구적 이슈를 다루는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할 자세는 인문사회분야 전공자와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의 평균이 각각 2.87과 2.57로 $p<.01$ 수준에서, 지구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세계문제에 대한 책임감은 인문사회분야 전공자와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의 평균이 각각 2.89와 2.58로 $p<.01$ 수준에서, 국제 사회 이

슈에 대한 유연 사고로의 대응은 인문사회분야 전공자와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의 평균이 각각 3.37과 3.13으로 $p < .01$ 수준에서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인문사회분야 전공자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있는 세계적 사안에 대한 심사숙고하는 자세, 지구적 경향과 세계 공동 이슈에 대한 관심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인문사회분야 전공자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하위변인인 관심있는 세계적 사안에 대한 심사숙고하는 자세, 지구적 경향과 세계 공동 이슈에 대한 관심에 대해 인문사회분야 전공자와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3.13과 3.10, 3.19와 3.11로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국제적 사고 영역 내의 세 번째 하위요인인 정보처리기능요인의 하위 변인 중 국제사회 관심사에 관해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서 전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문사회분야 전공자와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의 평균이 각각 2.71과 2.53으로 $p < .05$ 수준에서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인문사회분야 전공자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하위변인인 국제사회 관심사에 관한 필요한 정보의 효과적인 수집능력, 기본적인 지식이나 원리를 다양한 국제상황을 이해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인문사회분야 전공자와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2.86과 2.83, 3.00과 2.93으로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같은 결과를 하위요인별로 볼 때, 국제적 사고 영역내의 분

석 및 판단요인, 국제적 사고 영역 내의 국제적 관여요인에서 전공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및 판단요인은 인문사회분야 전공자와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의 평균이 각각 3.14와 2.90으로 $p < .01$ 수준에서, 국제적 관여요인은 인문사회분야전공자와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의 평균이 각각 3.11과 2.91로 $p < .01$ 수준에서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인문사회분야전공자보다 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적 사고 영역전체에서도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 외 하위요인인 정보처리기능요인에 대해 인문사회분야 전공자와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3.00과 2.77로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국제적 이해 영역의 경우 <표Ⅱ-15>를 보면, 국제적 이해 영역내의 다문화 이해요인의 하위변인인 다양한 문화의 보편적 특성에 대한 이해, 문화적 편견에 대한 인식, 세계의 다양한 생활 방식에 대한 평등한 가치의식, 다양한 문화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력에서, 하위요인별로 볼 때, 다문화 이해요인과 국제문제이해요인에서 그리고 전체 국제적 이해 영역에서 전공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망 및 통찰요인의 모든 하위변인 세계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 조망능력, 국제적 변화에 대한 감각, 세계 공동의 문제해결 방안을 다각적으로 인식할 수 능력, 여러 국제협력기구와 역할에 대한 지식, 세계자원의 소비에 대한 지식에 대해 인문사회분야 전공자와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3.03과 2.97, 2.80과 2.66, 2.668과 2.57, 2.66과 2.53, 2.69와 2.53으로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인문사회분야전공자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

나지 않았다.

국제적 이해 영역내의 두 번째 하위요인인 다문화 이해요인의 하위 변인 중 선진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양상에 대한 이해를 제외한 다양한 문화의 보편적 특성에 대한 이해, 문화적 편견에 대한 인식, 세계의 다양한 생활방식에 대한 평등한 가치의식, 다양한 문화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력에서 전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문화의 보편적 특성에 대한 이해는 인문사회분야 전공자와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의 평균이 각각 3.43과 3.22로 $p < .05$ 수준에서, 문화적 편견에 대한 인식은 인문사회분야 전공자와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의 평균이 각각 3.68와 3.47로 $p < .01$ 수준에서, 세계의 다양한 생활방식에 대한 평등한 가치의식은 인문사회분야 전공자와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의 평균이 각각 3.69과 3.38으로 $p < .01$ 수준에서, 다양한 문화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력은 인문사회분야 전공자와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의 평균이 각각 3.63과 3.38로 $p < .01$ 수준에서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인문사회분야 전공자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양상에 대한 이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인문사회분야 전공자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하위변인인 선진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양상에 대한 이해에 대해 인문사회분야전공자와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3.15와 3.02로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국제적 이해 영역내의 세 번째 하위요인인 국제문제이해요인의 하위 변인 중 세계인권문제에 대한 이해, 사회적 현실을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에서 전공에 따라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인권문제에 대한 이해는 인문사회분야 전공자와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의 평균이 각각 3.33과 3.09로 $p < .01$ 수준에서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인문사회분야 전공자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현실을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은 인문사회분야 전공자와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의 평균이 각각 3.54와 3.32로 $p < .05$ 수준에서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인문사회분야 전공자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하위변인인 세계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세계인구문제에 대한 이해, 여러 국제협력기구와 역할에 대한 지식에 대해 인문사회분야 전공자와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3.75와 3.73, 3.01과 3.08, 3.21과 3.20으로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같은 결과를 하위요인별로 볼 때, 국제적 이해 영역 내의 다문화 이해요인에서만 전공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이해요인은 인문사회분야 전공자와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의 평균이 각각 3.52와 3.31로 $p < .01$ 수준에서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인문사회분야 전공자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 이해 영역내의 조망 및 통찰요인과 국제문제이해요인에 대해 인문사회분야 전공자와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2.77과 2.68, 3.38과 3.29로 기타 분야 전공자가 좀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국제적 이해 영역에서도 전공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치 및 태도 영역의 경우 <표Ⅱ-16>를 보면, 가치 및 태도 영역 내의 개방적 태도요인의 하위변인인 낯선 문화에 대한 수

용적 자세, 수용, 합리적 태도요인의 하위변인인 국제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 윤리태도, 문화교류요인 내의 하위변인인 문화적 동질성보다는 다양성에 대한 가치 의식, 서로 다른 문화간의 상호작용 중시, 그리고 하위요인별로 볼 때, 개방적 태도요인, 합리적 태도요인, 문화교류요인, 또한 전체 가치 및 태도 영역에서 전공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5> 전공별 청소년의 세계시민자질 실태-국제적 이해영역

요인	하위요인	문항	인문사회		비인문사회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국제적 이해 영역	조망 및 통찰	위치인식	3.03	.98	2.97	1.01	
		변화감각	2.80	.89	2.66	.89	
		다각도	2.68	.90	2.57	.86	
		국제기구	2.66	.92	2.53	.82	
		자원지식	2.69	.81	2.62	.81	
	다문화 이해	문화보편	3.43	.84	3.22	.89	2.35*
		문화편견	3.68	.79	3.47	.84	2.72**
		문화평등	3.69	1.10	3.38	1.12	2.82**
		문화차이	3.63	.86	3.38	.86	3.02**
		선진문화	3.15	.88	3.02	.80	
	국제문제이해	환경인식	3.75	.74	3.73	.90	
		인권이해	3.33	.77	3.09	.82	3.23**
		인구이해	3.01	.88	3.08	.87	
		빈곤문제	3.21	.83	3.20	.81	
		사회인지	3.54	.91	3.32	.93	2.46*

*p<.05, **p<.01

즉, 가치 및 태도 영역내의 첫 번째 요인인 인류애요인의 모든

하위변인에 해당되는 인류공동체라는 의미의 중요성 인식, 세계적 갈등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인류 공공의 선에 공헌하는 것에 대한 가치의식, 자신과 차이 있는 행동에 대한 관용자세의 중시에서 인문사회분야 전공자와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3.41과 3.29, 3.81과 3.68, 3.84와 3.83, 3.76과 3.66으로 모두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가치 및 태도 영역내의 두 번째 하위변인인 개방적 태도요인의 하위 변인 중 낯선 문화에 대한 수용적 자세, 문제해결에 있어서 흑백논리보다 중용자세 중요시에서 전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낯선 문화에 대한 수용적 자세는 인문사회분야 전공자와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의 평균이 각각 3.51과 3.26으로 $p < .01$ 수준에서, 문제해결에 있어서 흑백논리보다 중용자세 중요시는 인문사회분야 전공자와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의 평균이 각각 3.77과 3.58로 $p < .01$ 수준에서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인문사회분야 전공자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하위변인인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력 및 감정이입능력, 개인적 욕심보다 타인 배려를 가치있게 여기는 것에 대해 인문사회분야 전공자와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3.63과 3.52, 3.53과 3.44로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인문사회분야 전공자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 및 태도 영역내의 세 번째 하위요인인 합리적 태도 요인의 모든 하위 변인 국제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 국제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윤리적 태도에서 전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합

리적인 태도는 인문사회분야 전공자와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의 평균이 각각 3.42와 3.23으로 $p < .05$ 수준에서, 문제해결에 있어서 흑백논리보다 중용자세 중요시는 인문사회분야 전공자와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의 평균이 각각 3.54와 3.31로 $p < .01$ 수준에서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인문사회분야 전공자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 및 태도 영역내의 네 번째 하위요인인 문화교류요인의 하위 변인 중 서로 다른 문화간의 상호작용 증시에서 전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은 인문사회분야 전공자와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의 평균이 각각 3.98과 3.75로 $p < .01$ 수준에서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인문사회분야 전공자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하위변인인 문화적 동질성보다는 다양성에 대한 가치 의식에 대해 인문사회분야 전공자와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3.88과 3.76으로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하위요인별로 볼 때, 가치 및 태도 영역내의 개방적 태도요인, 합리적 태도요인, 문화교류요인에서 전공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적 태도요인은 인문사회분야 전공자와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의 평균이 각각 3.52와 3.31로 $p < .01$ 수준에서, 합리적 태도요인은 인문사회분야 전공자와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의 평균이 각각 3.48와 3.28로 $p < .01$ 수준에서, 문화교류요인은 인문사회분야 전공자와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의 평균이 각각 3.93과 3.75로 $p < .01$ 수준에서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인문사회분야 전공자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인류애 가치 요인에 대해 인문

사회분야 전공자와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3.72와 3.64로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좀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전체 가치 및 태도 영역에서도 전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Ⅱ-16>전공별 청소년 세계시민자질 실태-가치 및 태도 영역

요인	하위요인	문항	인문사회		비인문사회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치 및 태도 영역 (3.65)	인류애 (3.70)	공동체	3.41	.88	3.29	.87	
		갈등평화	3.81	.78	3.68	.91	
		인류가치	3.84	.81	3.83	.84	
		관용자세	3.76	.82	3.66	.80	
	개방적 태도 (3.57)	수용자세	3.51	.86	3.26	.84	3.00**
		감정이입	3.63	.88	3.52	.82	
		배려가치	3.53	.85	3.44	.88	
		중용	3.77	.80	3.58	.90	2.36**
	합리적 태도 (3.42)	합리태도	3.42	.78	3.23	.79	2.47*
		윤리태도	3.54	.75	3.31	.81	3.00**
	문화교류 (3.87)	다양가치	3.88	.81	3.76	.81	
		상호작용	3.98	.74	3.75	.77	3.22**

주: ()의 수치는 영역 및 요인의 평균값 *p<.05, **p<.01

사회적 관계 영역의 경우 <표Ⅱ-17>를 보면, 사회적 관계영역 내의 사회적 기능요인의 하위 변인인 외국인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외국어 구사능력에서 전공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I-17>전공별 청소년 세계시민자질 실태-사회적 관계 영역

요인	하위요인	문항	인문사회		비인문사회		t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사회적 관계 영역	사회적 기능	토론참여	3.31	.86	3.22	.83	
		의견표현	3.23	.90	3.22	.94	
		네트워킹	3.10	.88	3.06	.85	
		합의도출	3.34	.85	3.29	.89	
		문제협동	3.28	.80	3.23	.84	
		외어구사	2.88	1.17	2.51	.98	3.40**

*p< .05, **p<.01

즉, 사회적 관계 영역 내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기능의 하위변인 중 외국인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외국어 구사능력문항에서 전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문사회분야 전공자와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의 평균이 각각 2.88과 2.51로 $p<.01$ 수준에서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인문사회분야 전공자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하위변인인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는 토론과정에 원만하게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여러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과 서로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적극성, 국제적인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협동심에 대해 인문사회분야전공자와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3.31과 3.22, 3.23과 3.22, 3.10과 3.06, 3.34와 3.29, 3.28과 3.23으로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으로 전공에 따른 청소년의 세계시민자질 실태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전공에 따라, 일관성있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19개의 하위변인과 9개의 하위요인 그리고 4개의 상위요인에서 전공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사회분야 전공자와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의 전체 평균은 3.32와 3.17로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9개의 하위변인에 대해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제적 사고 영역 내의 분석 및 판단요인의 하위변인인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비판적 사고능력,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분석능력,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능력, 국제적 관여요인의 하위변인인 지구적 이슈를 다루는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할 자세 지구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세계문제에 대한 책임감, 국제 사회 이슈에 대한 유연 사고로의 대응, 정보처리기능요인의 하위변인인 국제사회 관심사에 관해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국제적 이해 영역 내의 다문화 이해요인의 하위변인인 다양한 문화의 보편적 특성에 대한 이해, 문화적 편견에 대한 인식, 세계의 다양한 생활방식에 대한 평등한 가치의식, 다양한 문화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력, 국제문제이해 요인의 하위변인인 세계인권문제에 대한 이해, 사회적 현실을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가치 및 태도 영역 내의 개방적 태도요인의 하위변인인 낯선 문화에 대한 수용적 자세, 문제해결에 있어서 흑백논리보다 중용자세 중요시, 합리적 태도요인의 하위변인인 국제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 국제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윤리적 태도, 문화교류요인의 하위변인인 상호작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영역내의 사회적 기능의 하위변인인 외국인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외국어 구사능력에서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보면, 분석 및 판단 영역, 국제적 사고 영역 내의 국제적 관여요인, 국제적 이해 영역 내의 다문화 이해요인, 가치 및 태도 영역 내의 개방적 태도요인, 합리적 태도요인, 문화교류요인에서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요인별로 보면, 국제적 사고 영역, 국제적 이해 영역, 가치 및 태도 영역에서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외국경험별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 실태

청소년의 세계시민자질실태가 외국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Ⅱ-18>에서부터 <표Ⅱ-21>에 제시되었는데 이를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적 사고 영역의 경우 <표Ⅱ-18>에서와 같이, 분석 및 판단요인의 하위변인인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비판적 사고능력, 국제적 관여요인의 하위변인인 지구적 이슈를 다루는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할 자세, 관심있는 세계적 사안에 대한 심사숙고하는 자세, 지구적 경향과 세계 공동 이슈에 대한 관심, 국제 사회 이슈에 대한 유연 사고로의 대응, 국제적 사고 영역 내의 정보처리기능요인의 하위변인인 국제사회 관심사에 관해 수집한 정보

를 효과적으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서 외국경험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요인별로 볼 때, 분석 및 판단요인, 국제적 관여요인, 정보처리기능요인, 그리고 전체 국제적 사고 영역에서 외국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 사고 영역 내의 첫 번째 요인인 분석 및 판단요인의 하위변인 중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비판적 사고능력은 외국경험 1년 미만자와 외국경험 1년 이상자의 평균이 각각 3.14와 3.50으로 $p<.05$ 수준에서, 외국경험 1년 미만자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분석능력,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능력에 대해 외국경험 1년 미만자가 외국경험 1년 이상자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2.88과 3.19, 3.02와 3.24로 외국경험 1년 미만자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국제적 사고 영역 내의 국제적 관여요인의 하위변인 중 지구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세계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제외하고 지구적 이슈를 다루는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할 자세, 관심있는 세계적 사안에 대한 심사숙고하는 자세, 공동관심,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유연 사고로의 대응에서 외국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적 이슈를 다루는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할 자세는 외국경험 1년 미만자와 외국경험 1년 이상자의 평균이 각각 2.75와 3.16으로 $p<.05$ 수준에서, 관심있는 세계적 사안에 대한 심사숙고하는 자세는 외국경험 1년 미만자와 외국경험 1년 이상자의 평균이 각각 3.09와 3.42로 $p<.05$ 수준에서, 지구적 경향과 세계 공동 이슈에 대한 관심은 외국경험 1년 미만자와 외국경험 1년 이상자의 평균이 각각 3.15와 3.45로 $p<.05$ 수준에서,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유연 사고로의 대응은 외

국경험 1년 미만자와 외국경험 1년 이상자의 평균이 각각 3.27과 3.59로 $p<.05$ 수준에서 외국경험 1년 미만자가 외국경험1년 이상자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하위변인인 지구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세계문제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 외국경험 1년 미만자가 외국경험1년 이상자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2.77과 3.30으로 외국경험 1년 미만자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8>외국경험별 청소년 세계시민자질 -국제적 사고 영역

요인	하위 요인	문항	1년 미만		1년 이상		t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국제적 사고 영역	분석 및 판단	이슈비판	3.14	.86	3.50	.80	-2.52*
		이슈분석	2.98	.86	3.19	.94	
		이슈평가	3.02	.80	3.24	.82	
	국제적 관여	단체참여	2.75	1.03	3.16	.86	-2.38*
		세계책임	2.77	.96	3.03	.94	
		심사숙고	3.09	.88	3.42	.86	-2.21*
		공동관심	3.15	.84	3.45	.89	-2.13*
		유연사고	3.27	.79	3.59	.72	-2.42*
	정보처리 기능	정보수집	2.83	.88	3.05	.88	
		정보활용	2.63	.83	2.97	.85	-2.47*
원리적용		2.97	.86	3.11	.91		

* $p<.05$, ** $p<.01$

국제적 사고 영역 내의 정보처리기능요인의 하위 변인 중 국제사회 관심사에 관해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외국경험 1년 미만자와 외국경험 1년 이상자

의 평균이 각각 2.63과 2.97로 $p < .05$ 수준에서 보다 외국경험 1년 미만자가 외국경험 1년 이상자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하위변인인 국제사회 관심사에 관한 필요한 정보의 효과적인 수집능력, 기본적인 지식이나 원리를 다양한 국제상황을 이해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외국경험 1년 미만자와 외국경험 1년 이상자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2.83과 3.05, 2.87과 3.11로 외국경험 1년 미만자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같은 결과를 하위요인별로 볼 때, 국제적 사고 영역 내의 분석 및 판단요인, 국제적 관여요인, 정보처리기능요인에서 외국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및 판단 요인은 외국경험 1년 미만자와 외국경험 1년 이상자의 평균이 각각 3.05와 3.31로 $p < .05$ 수준에서, 국제적 관여 요인은 각각 3.02와 3.36으로 $p < .01$ 수준에서, 정보처리 요인은 각각 2.82와 3.05로 $p < .01$ 수준에서 외국경험 1년 미만자가 외국경험 1년 이상자가 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국제적 사고 영역에서도 외국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 이해 영역의 경우 <표II-19>을 보면, 조망 및 통찰요인의 하위변인이 국제적 변화에 대한 감각, 여러 국제협력기구와 역할에 대한 지식, 다문화 이해요인의 하위변인인 문화보편성, 문화적 편견에 대한 인식, 세계의 다양한 생활방식에 대한 평등한 가치의식, 다양한 문화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력, 선진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양상에 대한 이해, 국제문제이해요인의 하위변인인 세계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여러 국제협력기구와 역할에 대한 지식, 하위요인별로 볼 때, 조망 및 통찰요인,

다문화 이해요인, 국제문제이해요인, 그리고 전체 국제적 이해 영역에서 외국 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19> 외국경험별 청소년 세계시민자질-국제적 이해 영역

요인	하위요인	문항	1년 미만		1년 이상		t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국제적 이해 영역	조망 및 통찰	위치인식	3.00	.98	3.16	1.10	
		변화감각	2.72	.89	3.11	.89	-2.55*
		다각도	2.63	.87	2.81	.98	
		국제기구	2.59	.89	2.97	.85	-2.56*
		자원지식	2.65	.80	2.89	.87	
	다문화 이해	문화보편	3.34	.86	3.64	.91	-2.07*
		문화편견	3.59	.80	3.89	.92	-2.23*
		문화평등	3.57	1.12	3.97	1.05	-2.17*
		문화차이	3.51	.85	4.05	.93	-3.73**
		선진문화	3.07	.84	3.57	.93	-3.40**
	국제문제이해	환경인식	3.72	.80	4.00	.66	-2.05*
		인권이해	3.24	.78	3.43	.89	
		인구이해	3.01	.87	3.26	.92	
		빈곤문제	3.17	.82	3.63	.75	-3.35**
		사회인지	3.46	.91	3.63	.94	

*p<.05, **p<.01

즉, 첫 번째 하위요인인 조망 및 통찰요인의 하위변인 중 국제적 변화에 대한 감각은 외국경험 1년 미만자와 외국경험 1년 이상자의 평균이 각각 2.72와 3.11로 p<.05수준에서, 여러 국제협력 기구와 역할에 대한 지식은 각각 2.59와 2.97로 p<.05수준에서 외국경험 1년 미만자가 외국경험 1년 이상자보다 더 낮은 수준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하위변인인 세계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 조망능력, 세계 공동의 문제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인식할 수 능력, 세계자원의 소비에 대한 지식에 대해 외국경험 1년 미만자가 외국경험 1년 이상자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3.00과 3.16, 2.63과 3.11, 2.65와 2.89로 외국경험 1년 미만자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국제적 이해 영역내의 두 번째 하위요인인 다문화 이해요인의 모든 하위 변인에서 외국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문화의 보편적 특성에 대한 이해는 외국경험 1년 미만자와 외국경험 1년 이상자의 평균이 각각 3.34와 3.64로 $p < .05$ 수준에서, 문화적 편견에 대한 인식은 각각 3.59와 3.89로 $p < .05$ 수준에서, 세계의 다양한 생활방식에 대한 평등한 가치의식은 각각 3.57과 3.96로 $p < .05$ 수준에서, 다양한 문화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력은 각각 3.51과 4.05로 $p < .01$ 수준에서, 선진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양상에 대한 이해는 각각 3.07과 3.57로 $p < .01$ 수준에서 외국경험 1년 미만자가 외국경험 1년 이상자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 이해 영역내의 세 번째 하위요인인 국제문제이해요인의 하위 변인 중 세계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여러 국제협력기구와 역할에 대한 지식에서 외국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외국경험 1년 미만자와 외국경험 1년 이상자의 평균이 각각 3.72와 4.00으로 $p < .05$ 수준에서, 여러 국제협력기구와 역할에 대한 지식은 각각 3.17과 3.63으로 $p < .01$ 수준에서 외국경험 1년 미만자가 외국경험 1년 이상자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하위변인인 세계인권문제에 대한 이해,

세계인구문제에 대한 이해, 사회적 현실을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외국경험 1년 미만자가 외국경험 1년 이상자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3.24와 3.43, 3.01과 3.26, 3.46과 3.63으로 외국경험1년 미만자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같은 결과를 하위요인별로 볼 때, 국제적 이해 영역내의 조망 및 통찰요인, 다문화 이해요인, 국제문제이해요인에서 외국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망 및 통찰요인은 외국경험1년 미만자가 외국경험1년 이상자의 평균이 각각 2.72와 3.00으로 $p < .05$ 수준에서, 다문화 이해요인은 각각 3.43과 3.84로 $p < .01$ 수준에서, 국제문제이해 요인은 각각 3.33과 3.59로 $p < .01$ 수준에서 외국경험 1년 미만자가 외국경험 1년 이상자가 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제적 이해 영역에서도 외국 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 및 가치 영역의 경우 <표II-20>를 보면, 합리적 태도요인의 하위변인인 국제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와 합리적 태도요인에서 외국 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 및 태도영역 내의 첫 번째 하위요인인 인류에요인의 모든 하위변인 인류공동체라는 의미의 중요성 인식, 세계적 갈등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인류 공공의 선에 공헌하는 것에 대한 가치의식, 자신과 차이 있는 행동에 대한 관용자세의 중시에 대해 외국경험 1년 미만자와 외국경험1년 이상자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순서별로 각각 3.36과 3.61, 3.77과 3.78, 3.85와 3.70, 3.73과 3.68로 외국경험1년 미만자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 및 태도 영역내의 두 번째 하위요인인 개방적 태도요인의 모든 하위 변인인 낯선 문화에 대한 수용적 자세,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력 및 감정이입능력, 개인적 욕심보다 타인 배려를 가치있게 여기는 것, 문제해결에 있어서 흑백논리보다 중용 자세 중요시에 대해 외국경험1년 미만자가 외국경험1년 이상자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3.43과 3.49, 3.60과 3.557, 3.50과 3.60, 3.70과 3.81로 외국경험1년 미만자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0> 외국경험별 청소년 세계시민자질-가치 및 태도 영역

요인	하위요인	문항	1년 미만		1년 이상		t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가치 및 태도 영역	인류애	공동체	3.36	.87	3.61	.89	
		갈등평화	3.77	.82	3.78	.88	
		인류가치	3.85	.82	3.70	.81	
		관용자세	3.73	.81	3.68	.81	
	개방적 태도	수용자세	3.43	.86	3.49	.96	
		감정이입	3.60	.86	3.57	.87	
		배려가치	3.50	.86	3.60	.86	
		중용	3.70	.83	3.81	.92	
	합리적 태도	합리태도	3.33	.78	3.68	.78	-2.58**
		윤리태도	3.45	.77	3.61	.86	
	문화교류	다양가치	3.83	.81	3.97	.82	
		상호작용	3.90	.76	4.00	.75	

*p< .05, **p<.01

가치 및 태도 영역내의 세 번째 하위요인인 합리적 태도요인의 하위 변인 중 국제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에서 외국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는 외국경험 1년 미만자와 외국경험 1년 이상자의 평균이 각각 3.33과 3.68로 $p < .01$ 수준에서 외국경험 1년 미만자가 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하위변인인 국제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윤리적 태도에 대해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3.45와 3.64로 외국경험 1년 미만자가 외국경험 1년 이상자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치 및 태도 영역내의 네 번째 하위요인인 문화교류요인의 하위 변인인 문화적 동질성보다는 다양성에 대한 가치 의식, 문화간의 상호작용증시에 대해 외국경험 1년 미만자가 외국경험 1년 이상자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3.83과 3.97, 3.90과 4.00으로 외국경험 1년 미만자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같은 결과를 하위요인별로 볼 때, 가치 및 태도 영역내의 합리적 태도요인에서 외국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태도요인은 외국경험 1년 미만자가 외국경험 1년 이상자의 평균이 각각 3.40과 3.64로 $p < .05$ 수준에서 외국경험 1년 미만자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류애요인, 개방적 태도요인, 문화교류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각각 3.70과 3.70, 3.56과 3.61, 3.86과 3.86으로 두 집단이 서로 동일하거나 외국경험 1년 미만자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 관계 영역의 경우 <표Ⅱ-21>을 보면, 사회적 기능요인

의 하위변인인 외국인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외국어 구사능력과 사회적 기능요인 및 전체 사회적 관계영역에서 외국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관계 영역내의 사회적 기능요인의 하위변인 중 외국인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외국어 구사능력은 외국경험 1년 미만자와 외국경험 1년 이상자의 평균이 각각 2.65와 4.01로 $p < .01$ 수준에서 외국경험 1년 미만자가 외국경험 1년 이상자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하위변인인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는 토론과정에 원만하게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여러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과 서로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적극성, 국제적인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협동심에 대해 외국경험 1년 미만자가 외국경험 1년 이상자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3.27과 3.38, 3.22와 3.35, 3.07과 3.27, 3.3.2와 3.47, 3.25와 3.47으로 외국경험 1년 미만자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같은 결과를 하위요인 및 전체영역별로 볼 때, 사회적 관계 영역 및 사회적 관계영역 내의 사회적 기능요인에서 외국경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능요인은 외국경험 1년 미만자와 외국경험 1년 이상자의 평균이 각각 3.25와 3.48로 $p < .01$ 수준에서 외국경험 1년 미만자가 외국경험 1년 이상자보다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외국경험에 따른 청소년의 세계시민자질 실태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외국경험에 따라,

일관성있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18개의 하위변인과 7개의 하위요인 그리고 3개의 상위요인에서 외국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경험 1년 미만자와 외국경험 1년 이상자의 전체 평균은 3.25와 3.48로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8개의 하위변인에 대해 외국경험 1년 미만자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제적 사고 영역 내의 분석 및 판단요인의 하위변인인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비판적 사고능력, 국제적 관여요인의 하위변인인 관심있는 세계적 사안에 대한 심사숙고하는 자세, 지구적 경향과 세계 공동 이슈에 대한 관심,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유연 사고로의 대응, 정보처리기능요인의 하위변인인 국제사회 관심사에 관해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II-21>외국경험별 청소년의 세계시민자질-사회적 관계 영역

요인	하위 요인	문항	1년 미만		1년 이상		t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사회적 관계 영역	사회적 기능	토론참여	3.27	.86	3.38	.78	
		의견표현	3.22	.92	3.35	.81	
		네트워킹	3.07	.87	3.27	.86	
		합의도출	3.32	.86	3.47	.92	
		문제협동	3.25	.81	3.46	.89	
		외어구사	2.65	1.07	4.10	.99	-8.10**

* $p<.05$, ** $p<.01$

국제적 이해 영역 내의 조망 및 통찰요인의 하위변인인 국제적 변화에 대한 감각, 여러 국제협력기구의 역할에 대한 지식, 다문화 이해요인의 하위변인인 다양한 문화의 보편적 특성에 대

한 이해, 문화적 편견에 대한 인식, 세계의 다양한 생활방식에 대한 평등한 가치의식, 다양한 문화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력, 선진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양상에 대한 이해, 국제문제이해요인의 하위변인인 세계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여러 국제협력기구와 역할에 대한 지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치 및 태도 영역내의 합리적 태도요인의 하위변인인 국제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 사회적 관계 영역내의 사회적 기능요인의 하위변인인 외국인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외국어 구사능력에서 외국경험 1년 미만자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하위요인별로 보면, 국제적 사고 영역 내의 분석 및 판단요인, 국제적 관여요인, 조망 및 통찰요인, 다문화 이해요인, 국제문제이해요인, 가치 및 태도 영역내의 합리적 태도요인, 사회적 기능요인에서 외국경험 1년 미만자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상위요인별로 보면, 가치 및 태도 영역을 제외한 국제적 사고 영역, 국제적 이해 영역, 가치 및 태도 영역에서 외국경험 1년 미만자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의 세계시민의 개념에 대한 인식

1) 청소년의 세계시민 개념 인식

다음으로 청소년의 세계시민의 개념에 대한 인식의 실태를 살

펴보는데 이것은 <표Ⅲ-1>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세계시민의 개념에 관계된 문항으로 ‘세계 공동의 활동 영역이 증대하는 오늘날에 세계시민의식의 필요성은 증대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무대에서 주도적으로 앞서가려면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시민은 세계의 공동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는 자세를 가진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을 의미한다’, ‘세계시민은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는 세계 여러 국가의 모든 시민을 총칭하는 말이다’,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일은 세계를 무대로 활용해야 하는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와 같은 문항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4.00, 4.09, 3.68, 3.91, 3.91로 이같은 세계시민의 개념에 대해 비교적 보통 이상의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의식은 세계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는데 장애가 된다’,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일은 세계를 무대로 활용해야 하는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와 같은 문항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2.34, 2.29로 3점 이하로 민족의식을 강조하지 않는 문항에 대해 보통 이하의 동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족의식은 세계시민의식보다 앞서야 한다’, ‘세계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현재 사회에는 적합하지 않다’, ‘국내의 민주시민의 역할에 충실한다면 세계시민에 대한 의식과 자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와 같은 문항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2.61, 2.82, 2.23으로 3점 이하로 민족의식을 중시하는 문항에 대해 보통 이하의 동의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를 볼 때, 대체로 청소년들은 민족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데는 부정적이나 세계시민의식만을 강조하거나 민족의식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며, 세계시민의식을 중요시하면서 동시에 민족의식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Ⅲ-1> 청소년의 세계시민의 개념에 대한 인식

요인	문항	평균	표준편차
세계시민의 개념 (3.93)	의식필요	4.00	.75
	자질중요	4.09	.75
	참여사람	3.68	.88
	시민총칭	3.91	.87
	민족공존	3.91	.90
세계시민중시 (2.36)	민족의식	2.34	.98
	민족적합	2.29	.97
민족의식중시 (2.56)	민족앞서	2.61	1.03
	용어적합	2.82	.97
	시민중요	2.23	.84

주. ()의 수치는 영역 및 요인의 평균값.

2) 성별 청소년의 세계시민 개념 인식

청소년의 세계시민의 개념에 대한 인식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Ⅲ-2>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세계시민의 개념 중 ‘세계 공동의 활동 영역이 증대하는 오늘날에 세계시민의식의 필요성은 증대할 것이다’는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의 평균이 각각, 4.07과 3.88로 $p < .01$ 수준에서, ‘세계시민은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는 세계 여러 국가의 모든 시민을 총칭하는 말이다’은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의 평균이 각각 4.05와 3.78으로 $p < .01$ 수준에서,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일은 세계를 무대로 활용해야 하는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은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의 평균이 각각 3.96과 3.79로 $p < .05$ 수준에서 모두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더 낮은 동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우리나라가 세계무대에서 주도적으로 앞서가려면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와 ‘세계시민은 세계의 공동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는 자세를 가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의미한다’에 대해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4.10과 4.05, 3.80과 3.64로 남자청소년이 더 낮은 등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Ⅲ-2>성별 청소년의 세계시민의 개념에 대한 인식

요인	문항	여자		남자		t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세계시민의 개념	의식필요	4.07	.73	3.88	.77	2.61**
	자질중요	4.10	.75	4.05	.77	
	참여사람	3.80	.93	3.64	.99	
	시민총칭	4.05	.83	3.76	1.02	3.54**
	민족공존	3.96	.86	3.79	.96	2.04*
세계시민 중시	민족의식	2.31	.92	2.41	1.08	
	민족적합	2.33	.93	2.41	1.07	
민족의식 중시	민족앞서	2.48	.94	2.85	1.56	-3.74**
	용어적합	2.70	.93	3.04	1.01	-3.61**
	시민중요	2.16	.77	2.38	.95	-2.73**

*p<.05, **p<.01

세계시민 중시 중 ‘민족의식은 세계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는데 장애가 된다’와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일은 세계를 무대로 활용해야 하는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에 대해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의 평균을 살펴보면, 각각 2.31과 2.41, 2.33과 2.41로 여자청

소년이 더 낮은 동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민족의식 중시 중 ‘민족의식은 세계시민의식보다 앞서야 한다’는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의 평균점수가 각각 2.48과 2.85로 $p < .01$ 수준에서, ‘세계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현재 사회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각각 2.79와 3.04로 $p < .01$ 수준에서, ‘국내의 민주시민의 역할에 충실한다면 세계시민에 대한 의식과 자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각각 2.16과 2.38로 $p < .01$ 수준에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더 낮은 동의 수준을 보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를 하위요인별로 볼 때, 세계시민의 개념과 민족의식중시와 같은 요인에서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시민의 개념요인은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의 평균점수가 각각 3.99와 3.82로 $p < .05$ 수준에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낮은 동의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의식중시요인은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의 평균이 각각 2.44와 2.76으로 $p < .01$ 수준에서 여자청소년이 낮은 동의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시민 중시에 대해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2.44와 2.76으로 여자청소년이 더 낮은 동의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거주지역별 청소년의 세계시민 개념 인식

청소년의 세계시민의 개념에 대한 인식이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Ⅲ-3>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세계 공동의 활동 영역이 증대하는 오늘날에 세계시민의식의 필요성은 증대할 것이다’, ‘세계시민은 세계의 공동의 문제에 대

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는 자세를 가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의미한다’,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일은 세계를 무대로 활용해야 하는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서울/경기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점수가 각각 4.03과 3.97, 3.68과 3.67 그리고 3.96과 3.84로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가 좀 더 낮은 동의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 외 우리나라가 세계무대에서 주도적으로 앞서가려면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시민은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는 세계 여러 국가의 모든 시민을 총칭하는 말이다’은 서울/경기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점수가 각각 4.06과 4.13, 3.89와 3.93으로 서울/경기 지역 거주자가 좀 더 낮은 동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세계시민 중시 요인 중 ‘민족의식은 세계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는데 장애가 된다’는 서울/경기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점수가 2.36과 2.31로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가 좀 더 낮은 동의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 외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일은 세계를 무대로 활용해야 하는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서울/경기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점수가 2.34과 2.39로 서울/경기지역 거주자가 더 낮은 동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민족의식 중시 요인 중 ‘민족의식은 세계시민의식보다 앞서야 한다’는 거주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각각 2.41과 2.87로 $p < .01$ 수준에서 서울/경기지역 거

주자가 더 낮은 동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세계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현재 사회에는 적합하지 않다', '국내의 민주시민의 역할에 충실한다면 세계시민에 대한 의식과 자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에 대해 서울/경기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2.79와 2.87, 2.18과 2.31로 서울/경기지역 거주자가 더 낮은 동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Ⅲ-3> 거주지역별 청소년의 세계시민의 개념에 대한 인식

요인	문항	서울/경기 지역		서울/경기 이외 지역		t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세계시민의 개념	의식필요	4.03	.74	3.97	.77	
	자질중요	4.06	.73	4.13	.79	
	참여사람	3.68	.89	3.67	.87	
	시민총칭	3.89	.89	3.93	.84	
	민족공존	3.96	.83	3.84	.98	
세계시민 중시	민족의식	2.36	.98	2.31	.98	
	민족적합	2.34	.98	2.39	.99	
민족의식 중시	민족앞서	2.41	1.00	2.87	1.03	-4.88**
	용어적합	2.79	.96	2.87	.99	
	시민중요	2.18	.79	2.31	.90	

*p<.05, **p<.01

이같은 결과를 하위요인별로 볼 때, 민족의식 중시 요인은 거주지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의식 중시 요인은 서울/경기지역 거주자와 서울/경기이외 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각각 2.47과 2.68로 p<.01수준에서 서

울/경기지역 거주자가 더 낮은 동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시민의 개념 요인과 세계시민 증시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각각 3.96과 3.92, 2.35와 2.36으로 거주지별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요컨대, ‘민족의식은 세계시민의식보다 앞서야 한다’라는 문항에서만 서울/경기 지역 거주자가 더 낮은 동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전공별 청소년의 세계시민 개념 인식

청소년의 세계시민의 개념에 대한 인식이 전공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Ⅲ-4>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세계시민의 개념 중 어느 변인도 전공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공동의 활동 영역이 증대하는 오늘날에 세계시민의식의 필요성은 증대할 것이다’, ‘세계시민은 세계의 공동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는 자세를 가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의미한다’, ‘세계시민은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는 세계 여러 국가의 모든 시민을 총칭하는 말이다’,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일은 세계를 무대로 활용해야 하는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에 대해 인문사회분야 전공자와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4.03과 3.94, 4.37과 3.62, 3.92와 3.88, 3.95와 3.81로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우리나라가 세계무대에서 주도적일 앞서가려면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문사회분야 전공자와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의 평균이 각각 4.07과 4.12로 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더 낮은 동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세계시민 중시 요인 중 어느 변인도 전공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의식은 세계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는데 장애가 된다'는 인문사회분야 전공자와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2.37과 2.29로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일은 세계를 무대로 활용해야 하는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각각 2.34와 2.47로 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더 낮은 동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민족의식 중시 요인 중 어느 변인도 전공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의식은 세계시민의식보다 앞서야 한다'는 인문사회분야 전공자와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의 평균점수가 각각 2.49와 2.86으로 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세계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현재 사회에는 적합하지 않다', '국내의 민주시민의 역할에 충실한다면 세계시민에 대한 의식과 자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각각 2.83과 2.82, 2.24와 2.21로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더 낮은 수준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같은 결과를 하위요인별로 볼 때, 세계시민의 개념, 세계시민 중시 요인, 민족의식 중시 요인에 대해 인문사회분야 전공자와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3.95와 3.88, 2.35와 2.36, 2.53과 2.62로 세계시민의 개념은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세계시민 중시 요인과 민족의식 중시 요인은 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Ⅲ-4> 전공별 청소년의 세계시민의 개념에 대한 인식

요인	문항	인문사회		비인문사회		t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세계시민의 개념	의식필요	4.03	.74	3.94	.76	
	자질중요	4.07	.76	4.12	.75	
	참여사람	3.71	.88	3.62	.88	
	시민충청	3.92	.85	3.88	.91	
	민족공존	3.95	.87	3.81	.95	
세계시민 중시	민족의식	2.37	.98	2.29	.98	
	민족적합	2.34	.97	2.47	1.00	
민족의식 중시	민족앞서	2.49	1.01	2.86	1.04	
	용어적합	2.83	.99	2.82	.93	
	시민중요	2.24	.85	2.21	.82	

*p<.05, **p<.01

5) 외국경험별 청소년의 세계시민 개념 인식

청소년의 세계시민의 개념에 대한 인식이 외국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Ⅲ-5>과 같이 나타났다.

세계시민의 개념 요인 중 ‘세계 공동의 활동 영역이 증대하는 오늘날에 세계시민의식의 필요성은 증대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무대에서 주도적으로 앞서가려면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시민은 세계의 공동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는 자세를 가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의미한다’, ‘세계시민은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는 세계 여러 국가의 모든 시민을 총칭하는 말이다’,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일

은 세계를 무대로 활용해야 하는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에 대해 외국경험 1년 미만자와 외국경험 1년 이상자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각각 4.02와 3.77, 4.10과 3.97, 3.68과 3.66, 3.91과 3.89, 3.93과 3.67로 외국경험1년 이상자가 더 낮은 동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세계시민 증시 요인의 모든 하위 변인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Ⅲ-5>외국경험별 청소년의 세계시민의 개념에 대한 인식

요인	문항	1년 미만		1년 이상		t값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세계시민의 개념	의식필요	4.02	.75	3.77	.78	
	자질중요	4.10	.76	3.97	.63	
	참여사람	3.68	.88	3.66	.92	
	시민충청	3.91	.85	3.89	1.07	
	민족공존	3.93	.90	3.67	.89	
세계시민 증시	민족의식	2.33	.98	2.57	.90	
	민족적합	2.34	.99	2.65	.84	
민족의식증시	민족앞서	2.60	1.04	2.83	.91	-3.68**
	용어적합	3.05	1.24	3.06	1.23	
	시민중요	2.20	.83	2.63	.93	-2.00**

*p<.05, **p<.01

민족의식 증시 요인 중 '민족의식은 세계시민의식보다 앞서야 한다'는 외국경험 1년 미만자와 외국경험 1년 이상자의 평균점수가 2.60과 2.82으로 p<.01수준에서, '국내의 민주시민의 역할에 충실한다면 세계시민에 대한 의식과 자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외국경험 1년 미만자와 외국경험 1년 이상자의 평균점수가 2.20

과 2.63으로 $p < .01$ 수준에서 외국경험 1년 미만자가 외국경험 1년 이상자보다 더 낮은 동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현재 사회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외국경험 1년 미만자와 외국경험 1년 이상자의 평균점수가 3.05와 3.06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같은 결과를 하위요인별로 볼 때, 민족의식 중시 요인은 외국경험 1년 미만자와 외국경험 1년 이상자의 평균점수가 2.54와 2.78로 $p < .05$ 수준에서 외국경험 1년 미만자가 더 낮은 동의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세계시민의 개념은 평균점수가 각각 3.94와 3.86으로 외국경험 1년 이상자가, 세계시민 의식 중시는 평균점수가 각각 2.33과 2.65로 외국경험 1년 미만자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4. 청소년의 세계시민자질의 중요도와 실태 격차 비교

다음은 지식인이 평가한 세계시민자질 중요도에 비교하여 청소년의 세계시민자질 실태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이것은 중요도와 청소년의 자질 격차가 벌어질수록 청소년의 세계시민의 자질이 그 항목에서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세계시민 함양을 위한 노력에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식인의 세계시민자질 중요도와 청소년의 세계시민자질 실태 비교를 하는데 있어서, 지식인의 세계시민자질 중요도는 7점 척도이며 청소년의 세계시민 의식

실태는 5점 척도임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하였다. 즉, 지식인의 경우, 1,2,3점은 부정으로, 4점은 보통으로, 5,6,7점은 긍정으로 보고, 청소년의 경우, 1,2점은 부정으로, 3점은 보통으로, 4,5점은 긍정으로 보아. 부정인 경우 1점을, 보통인 경우 2점을, 긍정인 경우 3점으로 재분류하여 비교하였다. 이러한 평균차이를 좀 더 정리하여 볼 수 있도록, 평균 차는 모두 -이므로 절대값을 사용하여 서술하고자 하며, 전체적으로 .13에서 1.16까지 분포하는 평균 차를 .5미만인 경우 중요도와 실태간의 차이가 적은 것으로, .5이상에서 .75미만인 경우 중요도와 실태간의 차이가 보통인 것으로, .75이상에서 1미만인 경우 중요도와 실태간의 차이가 심한 것으로, 1이상인 경우 중요도와 실태간의 차이가 매우 심한 것으로 기술하고자 함을 밝힌다.

국제적 사고 영역의 경우 <표IV-1>를 보면. 분석 및 판단요인에서는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비판적 사고능력의 평균점수차는 .58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분석능력,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능력의 평균점수차는 각각 77, .78로 나타나 분석 및 평가 능력이 비판적 사고 능력보다 더 중요도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 관여요인에서는 지구적 이슈를 다루는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할 자세, 관심있는 세계적 사안에 대한 심사숙고하는 자세, 지구적 경향과 세계 공동 이슈에 대한 관심, 국제 사회 이슈에 대한 유연 사고로의 대응의 평균점수차는 각각 .74, 67, .67, 58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구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세계문제에 대한 책임감의 평균점수차는 .89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처리기능요인에서 국제사회 관심사에 관한 필요한 정보의 효과적인 수집능력, 기본적인 지식이나 원리를 다양한 국제 상황을 이해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의 평균점수차는 각각

중요도와 실태의 격차가 큰 .88, .79로 나타났으며, 국제사회 관심사에 관해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평균 점수 차는 1.06으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IV-1>세계시민자질 중요도와 실태 격차-국제적 사고 영역

요인	하위요인	문항	지식인	청소년	평균차
			평균	평균	
국제적 사고 영역 가(2.76) 나(2.00)	분석 및 판단 가(2.77) 나(2.07)	이슈비판	2.74	2.16	-0.58
		이슈분석	2.77	2.00	-0.77
		이슈평가	2.81	2.04	-0.78
	국제적 관여 가(2.74) 나(2.04)	단체참여	2.57	1.83	-0.74
		세계책임	2.70	1.81	-0.89
		심사숙고	2.77	2.10	-0.67
		공동관심	2.82	2.15	-0.67
	정보처리기능 가(2.76) 나(1.85)	유연사고	2.83	2.25	-0.58
		정보수집	2.74	1.87	-0.88
		정보활용	2.75	1.70	-1.06
	원리적용	2.78	1.99	-0.79	

주· 가 는 지식인의 평균값 나 는 청소년의 평균값.

이같은 결과를 하위 요인별로 보면, 국제적 사고 영역 내의 분석 및 판단요인, 국제적 사고 영역 내의 국제적 관여요인의 평균점수차는 각각 .70, .70으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적 사고 영역 내의 정보처리기능요인의 평균점수차는 .90으로 중요도에 비해 가장 청소년의 자질 실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 이해 영역을 보면, 국제적 영역내의 조망 및 통찰요인에서는 세계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 조망능력의 평균점수차는 .80으로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적 변화에 대한 감

각, 세계 공동의 문제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인식할 수 능력, 여러 국제협력기구와 역할에 대한 지식, 세계자원의 소비에 대한

<표IV-2>세계시민자질 중요도와 실태 격차-국제적 이해 영역

요인	하위요인	문항	지식인	청소년	평균차
			평균	평균	
국제적 이해 영역 가(2.84) 나(2.14)	조망 및 통찰 가(2.82) 나(1.78)	위치인식	2.82	2.02	-0.80
		변화감각	2.85	1.78	-1.06
		다각도	2.83	1.69	-1.14
		국제기구	2.75	1.68	-1.07
		자원지식	2.87	1.70	-1.16
	다문화 이해 가(2.92) 나(2.35)	문화보편	2.75	2.28	-0.46
		문화편견	2.52	2.85	-0.33
		문화평등	2.40	2.65	-0.45
		문화차이	2.82	2.45	-0.37
		선진문화	2.85	2.08	-0.77
	국제문제이해 가(2.87) 나(2.29)	환경인식	2.95	2.60	-0.36
		인권이해	2.97	2.23	-0.74
		인구이해	2.61	2.03	-0.58
		빈곤문제	2.87	2.18	-0.70
		사회인지	2.95	2.40	-0.56

주: 가 는 지식인의 평균값. 나 는 청소년의 평균값

지식의 평균점수차는 각각 1.06, 1.14, 1.07, 1.16으로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이해요인에서는 다양한 문화의 보편적 특성에 대한 이해, 문화적 편견에 대한 인식, 세계의 다양한 생활방식에 대한 평등한 가치의식, 다양한 문화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력의 평균점수차는 각각 .46, .33, .45, .37로 나타났으며, 선진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양상에 대한 이해의 평균 점수차는 .77로 나타났다. 국제문제이해 요인에서는 세계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평균점수차는 .36으로 적은 것으로 격차로 나타났으며, 세계인구문제에 대한 이해, 사회적 현실을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여러 국제협력기구와 역할에 대한 지식, 세계인권문제에 대한 이해의 평균 점수 차는 .58, .56, .70, .74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를 하위 요인별로 보면, 국제적 이해 영역내의 다문화 이해요인의 평균 점수 차는 47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문제이해요인의 평균점수차는 .58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고, 조망 및 통찰요인은 1.05로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지식인의 중요도와 청소년의 실태간의 차이가 국제적 이해 영역내의 다문화 이해요인은 격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문화 이해요인의 다양한 문화의 보편적 특성에 대한 이해, 문화적 편견에 대한 인식, 세계의 다양한 생활방식에 대한 평등한 가치의식, 다양한 문화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력과 국제문제이해요인의 세계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중요도와 청소년의 실태 격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조망 및 통찰요인의 국제적 변화에 대한 감각, 세계 공동의 문제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인식할 수 능력, 여러 국제협력기구와 역할에 대한 지식, 세계자원의 소비에 대한 지식은 그 격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제적 이해 영역의 평균 점수 차는 .70으로 청소년의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이 국제적 이해 영역에서 국제적 사고 영역에 비해 비슷하거나 좀 더 높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가치 및 태도 영역의 경우 <표IV-3>을 보면, 첫 번째 하위요인인 인류애요인에서는 인류공동체라는 의미의 중요성 인식, 세계적 갈등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인류 공공의 선에 공헌하는 것에 대한 가치의식, 자신과 차이 있는 행동에 대한

관용자세의 중시의 평균점수차는 .42, 26, .17, .35로 그다지 심한 격차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IV-3>세계시민자질 중요도와 실태 격차-가치 및 태도 영역

요인	하위요인	문항	지식인	청소년	평균차
			평균	평균	
가치 및 태도 영역 가(2.51) 나(2.82)	인류애 가(2.83) 나(2.54)	공동체	2.71	2.30	-.42
		갈등평화	2.85	2.59	-.26
		인류가치	2.80	2.64	-.17
		관용자세	2.57	2.57	-.35
	개방적 태도 가(2.81) 나(2.45)	수용자세	2.83	2.34	-.49
		감정이입	2.79	2.47	-.32
		배려가치	2.86	.39	-.47
		중용	2.77	2.57	-.20
	합리적 태도 가(2.83) 나(2.35)	합리태도	2.88	2.29	-.59
		윤리태도	2.41	2.78	-.37
문화교류 가(2.83) 나(2.68)	다양가치	2.80	2.65	-.57	
	상호작용	2.84	2.71	-.13	

주. 가 는 지식인의 평균값. 나 는 청소년의 평균값.

두번째 하위요인인 개방적 태도요인에서는 낯선 문화에 대한 수용적 자세,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력 및 감정이입능력, 개인적 욕심보다 타인 배려를 가치있게 여기는 것, 문제해결에 있어서 흑백논리보다 중용자세 중요시의 평균점수차는 각각 49, .32, .47, 20, .37로 크지 않은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적 태도요인에서는 국제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윤리적 태도 의 평균 점수 차는 37로 적은 격차로 나타났으며, 국제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의 평균점수차는 .59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교류요인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간의 상호작용 중

시의 평균점수차는 .13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문화적 동질성보다는 다양성에 대한 가치 의식의 평균 점수 차는 57로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를 하위 요인별로 보면, 인류애 요인, 개방적 태도요인, 합리적 태도요인, 문화교류요인의 평균점수차는 .29, .37, .48, .14로 그다지 심한 격차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가치 및 태도 영역의 평균 점수 차는 .31이었다.

사회적 관계 영역의 경우 <표IV-4>를 보면, 사회적 기능의 하위변인 중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는 토론과정에 원만하게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과 서로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적극성, 국제적인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협동심의 평균 점수 차는 .72, .65, .67로 보통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하위 변인인 여러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능력의 평균 점수 차는 .79, .83으로 중요도와 실태의 심한 격차를 나타냈다. 외국인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외국어 구사능력은 1.05로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외국인과 의사소통에 있어서 그 필요성에 비해 매우 자신 없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세계시민자질 중요도와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 실태격차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전체적인 평균 점수 차는 .64로 나타났다. 둘째, 평균 점수 차에 있어서 국제적 이해 영역 내의 다문화 이해요인 그리고 가치 및 태도 영역 내의 인류애요인에서부터 문화교류요인까지는 그 격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단, 가치 및 태도 영역내의 합리적 태도요인의 국제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는 보통임),

특히, 가치 및 태도 영역내의 문화교류요인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적 사고 영역 내의 분석 및 판단요인과 국제적 사고 영역 내의 국제적 관여요인, 국제적 이해 영역 내의 국제문제이해요인은 보통의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과의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외국어 구사능력에 관한 문항을 제외하고 사회적 기능요인은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제적 사고 영역 내의 정보처리기능요인은 심한 격차를 나타냈으며 특히, 정보처리기능요인의 국제사회 관심사에 관해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조망 및 통찰 요인의 국제적 변화에 대한 감각, 세계 공동의 문제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인식할 수 능력, 여러 국제협력기구와 역할에 대한 지식, 세계자원의 소비에 대한 지식, 그리고, 사회적 기능요인의 외국인과의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외국어 구사능력에 관한 문항에서 중요도와 실태간의 격차는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4> 세계시민자질 중요도와 실태 격차-사회적 관계 영역

요인	하위요인	문항	지식인	청소년	평균차
			평균	평균	
사회적 관계 영역 가(2.95) 나(2.14)	사회적 기능 가(2.95) 나(2.14)	토론참여	2.95	2.23	- .72
		의견표현	2.96	2.18	-.79
		네트워킹	2.90	2.08	-.83
		합의도출	2.93	2.28	-.65
		문제협동	2.89	2.23	-.67
		외어구사	2.85	1.80	-1.05
전체(총 44문항)			2.84	2.20	-.64

주: 가 는 지식인의 평균값. 나 는 청소년의 평균값

5. 지식인과 청소년의 세계시민의 개념 인식 비교

지식인과 청소년의 세계시민의 개념에 대한 인식에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세계시민자질 비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식인의 세계시민의 개념에 대한 인식은 7점 척도이며 청소년의 세계시민 개념은 5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므로,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앞서 제시한 지식인의 세계시민개념 중요도와 청소년의 세계시민 실태간의 비교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즉, 지식인의 경우, 1,2,3점은 부정으로, 4점은 보통으로, 5,6,7점은 긍정으로 보고, 청소년의 경우, 1,2점은 부정으로, 3점은 보통으로, 4,5점은 긍정으로 보아. 부정인 경우 1점을, 보통인 경우 2점을, 긍정인 경우 3점으로 재분류하여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나타난 차이는 평균점수차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평균점수차이를 좀 더 정리하여 볼 수 있도록, 평균점수차는 모두 -이므로 절대값을 사용하여 서술하고자 하며, 전체적으로 .13에서 1.16까지 분포하는 평균점수차를 5미만인 경우 인식간의 차이가 작은 것으로, 5이상에서 7.5미만인 경우 인식간의 차이가 보통인 것으로, 7.5이상에서 1미만인 경우 인식간의 차이가 큰 것으로, 1이상인 경우 인식간의 차이가 매우 심한 것으로 기술하고자 함을 밝힌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IV-5>와 같다.

세계시민의 개념 요인 중 ‘우리나라가 세계무대에서 주도적으로 앞서가려면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시민은 세계의 공동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는 자세를 가진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을 의미한다’,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일은 세계를 무대로 활용해야 하는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의 평균 점수 차는 9.37E-02, .21, .16으로 통계적으로

청소년이 지식인보다 더 낮은 동의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세계 공동의 활동 영역이 증대하는 오늘날에 세계시민의식의 필요성은 증대할 것이다', '세계시민은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는 세계 여러 국가의 모든 시민을 총칭하는 말이다'는 문항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시민 중시 요인 중 '민족의식은 세계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는데 장애가 된다',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일은 세계를 무대로 활용해야 하는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IV-5> 지식인과 청소년의 세계시민의 개념의 중요도 비교

요인	문항	지식인	청소년	t값	평균차
		평균	평균		
세계시민 개념 가(2.80) 나(2.69)	의식필요	2.83	2.76		
	자질중요	2.88	2.79	-2.64**	-9.37E-02
	참여사람	2.74	2.53	-4.11**	-.21
	시민총칭	2.73	2.68		
	민족공존	2.82	2.66	-3.75**	-.16
세계시민 중시 가(1.62) 나(1.52)	민족의식	1.67	1.52		
	민족적합	1.56	1.52		
민족의식 중시 가(1.92) 나(1.64)	민족앞서	1.98	1.70	-4.42**	-.29
	용어적합	2.21	1.83	-5.73**	-.38
	시민중요	1.55	1.38	-2.90**	-.17
전체(총 10문항)		2.11	1.96	-5.49**	-.15

주. 가 는 지식인의 평균값. 나 는 청소년의 평균값.

민족의식 중시 요인 중 '민족의식은 세계시민의식보다 앞서야

한다', '세계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현재 사회에는 적합하지 않다', '국내의 민주시민의 역할에 충실한다면 세계시민에 대한 의식과 자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의 평균 점수 차는 각각 .29, .38, .17로 청소년이 지식인보다 더 낮은 동의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은 지식인보다 민족의식을 보다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결과를 하위요인별로 보면, 세계시민의 개념 요인과 민족의식 중시 요인의 평균 점수 차는 .16과 .28로 청소년이 지식인보다 더 낮은 동의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계시민 중시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공 백

V.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의 요약

2. 결론 및 제언

공 백

V.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의 요약

1) 세계시민의 자질 요건 및 중요도

국제적 사고, 국제적 이해, 가치·태도,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 살펴본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의 중요도는 다음과 같다.

① 국제적 사고 영역은 대체로 ‘약간 중요’에서 ‘비교적 중요’에 걸치고 있으나 지구적 이슈를 다루는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할 자세와 지구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세계문제에 대한 책임감은 ‘약간 중요’의 경향을 보인다.

② 국제적 이해 영역은 ‘비교적 중요’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고, 특히 세계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사회 현실을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 및 세계인권문제에 대한 이해는 ‘비교적 중요’ 이상이다.

③ 가치·태도 영역은 ‘약간 중요’에서 ‘비교적 중요’에 걸치고 있으나 개인적 욕심보다 타인 배려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비교적 중요’에 가깝게, 나와 차이 있는 행동에 대한 관용 자세의 중시는 ‘비교적 중요’ 이상이다.

④ 사회적 관계 영역은 국제적인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협동심을 제외하고 ‘비교적 중요’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다

(1) 종합

① 세계시민 자질에 대한 중요도는 대체로 ‘비교적 중요’에 가

까우나 이하의 하위변인들은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국제적 사고 영역에서는 모든 하위 변인, 특히 지구적 이슈를 다루는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할 자세와 지구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세계문제에 대한 책임감은 가장 낮다. ㉡국제적 이해 영역에서는 여러 국제협력기구와 역할에 대한 지식, 다양한 문화의 보편적 특성에 대한 이해, 선진국 및 다른 나라의 문화양상에 대한 이해, ㉢가치·태도영역에서는 인류공동체라는 의미의 중요성 인식, 낯선 문화에 대한 수용적 자세,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력 및 감정이입능력, 문제해결에 있어 중용 자세의 중시, 국제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 국제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윤리적 태도,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가치 의식, 서로 다른 문화간의 상호작용 중시이다.

㉣ 매우 중요한 중요도를 가진 하위 변인들은 다음과 같다. ㉠국제적 이해 영역 중 세계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세계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 사회적 현실을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 ㉡가치·태도 영역 중 나와 차이 있는 행동에 대한 관용자세의 중시, ㉢사회적 관계 영역 중 토론과정에 원만하게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타인과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적극성이다.

㉤ 하위 요인별로 볼 때, 국제적 사고 영역에서 분석 및 판단 요인, 국제적 관여 요인, 정보처리기능 요인은 중요성이 낮은 반면, 국제적 이해 영역에서 국제문제이해 요인과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 사회적 기능 요인은 중요성이 매우 높다.

2) 세계시민중시집단과 민족의식중시집단에 따른 세계시민 자질 중요도의 차이

① 국제적 사고 영역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에 있어서 세계시민중시집단과 민족의식중시집단간에 일관성 있는 경향은 보이지 않는다.

② 가치·태도 영역에 대한 중요도의 인식에 있어서 민족의식중시 집단은 인류공동체라는 의미의 중요성, 낯선 문화에 대한 수용적 자세, 흑백 논리보다 중용의 자세 중시를 덜 중요시하고, 세계시민중시집단은 그 밖의 모든 하위변인과 하위요인을 덜 중요시하고 있다.

③ 사회적 관계 영역에 대한 중요도에 있어서 세계시민중시집단과 민족의식중시집단간에 일관성 있는 경향은 보이지 않는다.

④ 세계시민자질의 중요도에 있어서 세계시민중시집단과 민족의식중시집단간에 일관성 있는 경향은 보이지 않는다.

3)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 실태

(1) 실태

① 국제적 사고 영역은 보통 수준이나 국제사회 이슈의 분석 능력과 지구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세계문제에 대한 책임감과 지구적 이슈를 다루는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할 자세는 보통 이하의 수준이다. 국제사회 관심사에 관해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 국제 사회 이슈에 대해 유연한 사고로 대응하는 능력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② 국제적 이해 영역은 보통 수준이나 국제적 변화에 대한 감

각, 세계 공동의 문제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인식하는 능력, 국제기구, 세계자원의 소비에 대한 지식은 보통 이하의 수준이다. 다문화 및 국제문제 이해 요인의 모든 하위 변인은 보통 수준 이상이다. 또한 국제적 이해 영역 중에서 국제협력기구와 역할에 대한 지식은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 세계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③ 가치·태도 영역은 보통 이상의 수준이고, 보통 이하의 수준을 보인 하위 변인은 전혀 없다. 또한 가치·태도 영역 중에서 서로 다른 문화간의 상호작용 중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④ 사회적 관계 영역은 보통 수준이나 외국인과의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외국어 구사능력만 보통 이하의 수준이다. 이러한 외국어 구사 능력이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 다른 사람과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적극성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2) 종합

① 청소년의 세계시민자질은 전체적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보통 이하 수준의 변인은 이하와 같다. ㉠국제적 사고 영역 내의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분석능력, 지구적 이슈를 다루는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할 자세, 지구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세계문제에 대한 책임감, 국제사회 관심사에 관한 필요한 정보의 효과적인 수집능력, 국제사회 관심사에 관해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기본적인 지식이나 원리를 다양한 국제상황을 이해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국제적 이해 영역내의 국제적 변화에 대한 감각, 세계 공동의 문제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인식하는 능력, 국제기구, 세계자원의 소비에 대한 지식, ㉢사회적 관계 영역내의 외국인과의 기본적인 의사

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외국어 구사능력 이다.

② 보통 이상의 수준은 되지만 전체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이하와 같다. ㉠국제적 사고 영역 내의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능력,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비판적 사고능력, 관심 있는 세계적 사안에 대한 심사숙고하는 자세, 지구적 경향과 세계 공동 이슈에 대한 관심, ㉡국제적 이해 영역 내의 세계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 조망능력, 선진국 및 다른 나라의 문화양상에 대한 이해, 세계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 세계인구 문제에 대한 이해, 여러 국제협력기구와 역할에 대한 지식, ㉢사회적 관계 영역 내의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의 연계 능력,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과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경우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적극성이다.

③ 하위요인별로 볼 때, 국제적 사고 영역 내의 정보처리기능요인과 국제적 이해 영역 내의 조망 및 통찰요인은 평균 수준 미만으로 매우 취약하다. 이 밖에도 분석 및 판단요인과 국제적 관여 요인도 전체 평균 미만의 수준으로 비교적 취약하다.

④ 상위요인별로 볼 때, 국제적 사고 영역은 평균 수준으로 가장 취약한 반면, 국제적 이해 영역내의 세계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가치·태도 영역내의 인류 공공의 선에 공헌하는 것에 대한 가치 의식,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가치 의식과 서로 다른 문화간의 상호작용 증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3)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

(1) 실태

① 국제적 사고 영역 내의 지구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세계문제에 대한 책임감은 여대생이 더 낮다.

② 국제적 이해 영역 내의 세계자원의 소비에 대한 지식에서는 여자 청소년이, 세계의 다양한 생활방식에 대한 평등한 가치의식과 세계인구문제에 대한 이해에서는 남자 청소년이 더 낮다.

③ 가치·태도 영역 내에서 남자 청소년의 수준이 더 낮은 변인은 다음과 같다 인류공동체라는 의미의 중요성 인식, 세계적 갈등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 이해, 인류 공공의 선에 공헌하는 것에 대한 가치의식, 나와 차이 있는 행동에 대한 관용 자세의 중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력 및 감정이입능력, 서로 다른 문화간의 상호작용 중시, 인류애 요인, 문화교류 요인 등이다.

(2) 종합

① 유의미한 10개의 하위 변인 중 9개 변인에서 남자청소년의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났다. 즉, 문화적 편견에 대한 인식, 세계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인류공동체라는 의미의 중요성 인식, 세계적 갈등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 인류 공공의 선에 공헌하는 것에 대한 가치의식, 나와 차이 있는 행동에 대한 관용자세의 중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력 및 감정이입능력, 서로 다른 문화간의 상호작용 중시에서이다.

② 유의미한 10개의 하위 변인 중 1개의 변인 즉, 세계자원의 소비에 대한 지식에서 여자청소년의 수준이 더 낮다.

③ 하위요인별로 보면, 가치·태도 영역 내의 인류애요인과 문화교류요인에서 남자청소년의 수준이, 국제적 이해 영역 내의 조망 및 통찰요인에서는 여자청소년의 수준이 더 낮다.

④ 상위요인별로 보면, 유일하게 가치·태도 영역에서 남자청소년의 수준이 더 낮다

4) 거주지역별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

(1) 실태

국제적 사고 영역 내의 관심 있는 세계적 사안에 대한 심사숙고하는 자세를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서울·경기 지역 외의 거주자 수준이 서울·경기 지역 거주자보다 더 낮다. 이러한 변인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적 이해 영역내의 세계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 조망능력, 국제적 변화에 대한 감각, 세계 공동의 문제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인식하는 능력, 여러 국제협력기구와 역할에 대한 지식, 세계자원의 소비에 대한 지식이다.

② 국제적 이해 영역내의 다양한 문화의 보편적 특성에 대한 이해, 문화적 편견에 대한 인식, 세계의 다양한 생활방식에 대한 평등한 가치의식, 다양한 문화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력, 선진국 및 다른 나라의 문화양상에 대한 이해이다.

③ 국제적 이해 영역내의 세계인권문제에 대한 이해, 사회적 현실이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다.

④ 가치·태도 영역내의 인류공동체라는 의미의 중요성 인식, 낯선 문화에 대한 수용적 자세, 문제해결시 중용의 자세 중시, 국제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 국제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윤리적 태도,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가치 의식, 서로 다른 문화간의 상호작용 중시이다.

⑤ 사회적 관계 영역내의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는 토론과정에 원만하게 참여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들과 연계할 수 있는 능력, 국제적인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협동심, 외국인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외국어 구사능력이다.

(2) 종합

① 거주지역에 따라 일관성 있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33개의 하위변인과 10개의 하위요인, 그리고 4개의 상위요인에서 거주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② 서울, 경기 이외 지역 거주자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인 것은 33개의 모든 하위변인, 국제적 사고 영역의 국제문제이해요인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 국제적 사고영역, 국제적 이해 영역, 가치·태도 영역, 사회적 관계 영역의 모든 상위요인에서이다.

5) 전공별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

(1) 실태

인문사회분야 전공자보다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인 하위 변인은 영역별로 이하와 같다.

① 국제적 사고영역에서는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과 분석능력, 합리적인 평가능력, 지구적 이슈를 다루는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할 자세, 지구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세계문제에 대한 책임감, 국제 사회 이슈에 대한 유연 사고로의 대응, 국제사회 관심사에 관해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하위요인별로 볼 때 분석 및 판단요인과 국제적 관여요인이다.

② 국제적 이해 영역에서는 다양한 문화의 보편적 특성에 대한 이해, 문화적 편견에 대한 인식, 세계의 다양한 생활방식에 대한 평등한 가치의식, 다양한 문화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력, 하위요인별로 다문화이해요인과 국제문제이해요인, 전체 국제적 이해 영역이다.

③ 가치·태도 영역에서는 낯선 문화에 대한 수용적 자세, 국제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가치 의식, 상호작용, 하위요인별로 개방적 태도 요인, 합리적 태도 요인, 문화교류 요인, 전체 가치·태도 영역이다.

④ 사회적 관계영역에서는 외국인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외국어 구사능력이다.

(2) 종합

① 19개의 하위변인과 9개의 하위요인 그리고 4개의 상위요인에서 전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19개의 하위변인에서 인문사회 전공자보다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더 낮은 수준이다.

② 하위요인별로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인 요인들을 보면, 국제적 사고 영역내의 분석 및 판단 요인, 국제적 관여 요인, 국제적 이해 영역내의 다문화이해 요인, 가치·태도 영역내의 개방적 태도 요인, 합리적 태도 요인, 문화교류 요인이다.

③ 상위요인별로 비인문사회분야 전공자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인 요인을 보면, 국제적 사고 영역, 국제적 이해 영역, 가치·태도 영역이다.

6) 외국경험에 따른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

(1) 실태

국제적 사고 영역은 외국경험 1년 이상자보다 1년 미만자가 더 낮은 세계시민의 자질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하위 변인에서는 각 영역별로 외국경험 1년 미만자가 다음과 같은 요인에서

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① 국제적 사고 영역에서는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 지구적 이슈를 다루는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할 자세, 관심 있는 세계적 사안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자세, 지구적 경향과 세계 공동 이슈에 대한 관심, 국제 사회 이슈에 대한 유연 사고로의 대응, 국제사회 관심사에 관해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실생활에 활용하는 능력, 하위요인별로 볼 때, 분석 및 판단요인, 국제적 관여요인, 정보처리기능요인에서 외국경험 1년 미만자가 더 낮은 세계시민의 자질을 보이고 있다.

② 국제적 이해 영역에서는 국제적 변화에 대한 감각, 여러 국제협력기구와 역할에 대한 지식, 문화적 편견에 대한 인식, 세계의 다양한 생활방식에 대한 평등한 가치의식, 다양한 문화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력, 선진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양상에 대한 이해, 세계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여러 국제협력기구와 역할에 대한 지식, 하위요인별로 볼 때, 조망 및 통찰 요인, 다문화이해 요인, 국제문제이해 요인이다.

③ 가치·태도 영역에서는 국제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요인이다.

④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는 외국인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외국어 구사능력이다.

(2) 종합

① 외국경험에 따라 18개 하위변인과 7개 하위요인, 3개 상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18개 하위변인 모두 외국경험 1년 미만자의 수준이 더 낮다.

② 하위요인별로 외국경험 1년 미만자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인 것은, 국제적 사고 영역내의 분석 및 판단 요인, 국제적 관여요

인, 국제적 이해 영역내의 조망 및 통찰 요인, 다문화이해 요인, 국제적 이해영역내의 국제문제이해 요인, 가치·태도 영역내의 합리적 태도 요인, 사회적 관계기능내의 사회적 기능 요인이다.

③ 상위요인별로 외국경험 1년 미만자가 더 낮은 수준을 보인 것은 가치·태도 영역을 제외한 국제적 사고 영역, 국제적 이해 영역, 가치·태도 영역이다.

7) 청소년의 세계시민 개념 인식

세계시민과 관련된 개념 및 용어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의, 민족의식 및 세계시민 중시와 관련된 개념 및 용어에 대해서는 보통 이하의 동의 수준을 나타냈다.

(1) 청소년의 성별 세계시민 개념 인식

① 세계시민의 개념 중 남자 청소년이 더 낮은 동의 수준을 보인 것은 ㉔세계 공동의 활동 영역이 증대하는 오늘날에 세계시민의식의 필요성은 증대할 것이다, ㉕세계시민은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는 세계 여러 국가의 모든 시민을 총칭하는 말이다, ㉖민족의식을 강조하는 일은 세계를 무대로 활용해야 하는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 로 나타났다.

② 세계시민의 개념 중 여자 청소년이 더 낮은 동의 수준을 보인 것은 ㉗민족의식은 세계시민의식보다 앞서야 한다, ㉘세계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현재 사회에는 적합하지 않다, 로 나타났다

③ 하위요인별로 세계시민의 개념에서는 남자청소년이, 민족의식 중시의 개념에서는 여자청소년이 더 낮은 동의 수준을 보인다.

(2) 청소년의 거주지역별 세계시민 개념 인식

서울, 경기 지역 거주자가 기타 지역 거주자보다 더 낮은 동의 수준을 보인 것은 ‘민족의식은 세계시민의식보다 앞서야 한다’라는 문항에서이다.

(3) 청소년의 전공별 세계시민 개념 인식

모든 변인과 하위요인에서 전공분야별로 어떠한 경향성도 보이지 않는다.

(4) 청소년의 외국경험별 세계시민 개념 인식

외국경험 1년 미만자가 더 낮은 동의수준을 보인 것은 ‘민족의식은 세계시민의식보다 앞서야 한다’이다.

8) 중요도와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 실태 격차 비교

(1) 실태

지식인이 평가한 세계시민자질의 중요도와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 실태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① 국제적 사고 영역내의 분석 및 판단요인과 국제적 관여요인에서는 차이가 보통이나 국제적 사고 영역내의 정보처리기능요인은 차이가 크고, 특히 국제사회 관심사에 관해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② 국제적 이해 영역내의 다문화이해 요인에서는 차이가 적고, 국제문제이해요인에서는 차이가 보통이다. 그러나 국제적 이해

영역내의 조망 및 통찰요인에서는 차이가 매우 크다. 특히 다양한 문화의 보편적 특성에 대한 이해, 문화적 편견에 대한 인식, 세계의 다양한 생활방식에 대한 평등한 가치의식, 다양한 문화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력과 세계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적은 반면 국제적 이해 영역내의 조망 및 통찰요인의 국제적 변화에 대한 감각, 세계 공동의 문제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인식하는 능력, 여러 국제협력기구와 역할에 대한 지식, 세계자원의 소비에 대한 지식에서는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③ 가치·태도 영역내의 합리적 태도요인의 국제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를 제외하고는 인류애 요인에서부터 문화교류 요인까지 모두에서는 차이가 적다. 특히 문화교류 요인에서는 차이가 가장 적다.

④ 사회적 관계 영역 및 사회적 기능요인에서는 차이가 보통 이상이고, 특히 외국인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외국어 구사능력에서는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2) 종합

① 국제적 이해 영역내의 다문화이해요인, 가치·태도 영역내의 인류애요인에서부터 문화교류요인까지에서는 차이가 적다. 특히 가치·태도 영역내의 문화교류요인에서는 차이가 가장 적다.

② 국제적 사고 영역내의 분석 및 판단요인과 국제적 관여요인, 국제적 이해 영역내의 국제문제이해요인에서는 차이가 보통이다. 외국인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제외하고 사회적 관계영역 및 사회적 기능요인에서는 차이가 보통이다

③ 국제적 사고 영역내의 정보처리기능요인에서는 격차가 크고, 특히 국제사회 관심사에 관해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실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국제적 변화에 대한 감각, 세계 공동의 문제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인식할 수는 능력, 여러 국제 협력기구와 역할에 대한 지식, 세계 자원의 소비에 대한 지식, 외국인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외국어 구사능력에서는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9) 지식인과 청소년의 세계시민 개념 인식 비교

세계시민의 개념요인과 민족의식의 중시요인에서 청소년이 지식인보다 더 낮은 동의수준을 보인 것은 이하와 같다 ㉠우리나라가 세계무대에서 주도적으로 앞서가려면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시민은 세계의 공동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는 자세를 가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의미한다,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일은 세계를 무대로 활용해야 하는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 ㉣민족의식은 세계시민의식보다 앞서야 한다, ㉤세계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현대 사회에는 적합하지 않다.

2. 결론 및 제언

1. 세계시민의 자질 중요도에 대한 지식인들의 인식을 감안한 접근 전략 즉, 매우 중요하거나 비교적 중요하다고 인식한 상위변인인 각 영역별(국제적 사고 영역, 국제적 이해 영역, 가치·태도 영역, 사회적 관계 영역)의 하위 변인과 관련된 세계시민자질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이 요망된다.

2. 청소년의 세계시민자질실태에서 상위변인인 각 영역별(국제적 사고 영역, 국제적 이해 영역, 가치·태도 영역, 사회적 관계 영역)로 보통 이하의 수준을 보이는 하위 변인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세계시민자질의 함양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과 전략을 강구할 것이 요망된다.

3. 성별·거주지별·전공별·외국경험별로 차이를 보이는 청소년의 세계시민자질과 세계시민의 개념·용어의 인식에 대해 상위변인인 각 영역별(국제적 사고 영역, 국제적 이해 영역, 가치·태도 영역, 사회적 관계 영역) 하위변인의 원인을 분석하고, 성별·거주지별·전공별·외국경험별 차이를 감안한 세계시민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청소년의 세계시민에 대한 인식을 참고하여 세계시민 자질의 함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세계시민자질의 중요도 및 세계시민의 개념·용어에 대한 지식인과 청소년의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하위 변인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들은 현재의 각 분야 전문가들에 비하여 민족의식을 덜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있는데, 이것은 미래의 세계시민의식의 성장의 '방향성'에 함의를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우리 청소년의 미래상과 우리 사회가 앞날에 가지게 될 가치관을 추측해 볼 수 있게 한다.

5. 청소년들이 지구촌 시대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세계시민자질을 체계적으로 함양하고 관리할 중장기 프로그램과 정책 수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 요망된다. 세계시민 자질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은 본 연구에서 밝힌 각 요소를 타겟으로 하는 요소별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청소년들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세계시민의 자질에 해당되는 능동적 참여와 토론 등 부족한 요건들을 키우는데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6. 본 연구는 세계시민의 자질에 관한 일차적으로 예비 연구의 성격을 의도하였으며, 따라서 세계시민 자질에 관한 전반적 윤곽을 더듬어 보기 위한 목적으로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구체적인 후속 연구의 향방을 가늠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세계시민 자질이라는 광범위한 주제를 한번에 단기에 다루게 됨으로 인해 세부적이고 명료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연구의 한계를 띠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 자료로 하여, 향후 각 영역별, 요인별로 체계적이며 세분화된 세계시민 자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신뢰성있고 현실 적용 가능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후속연구를 단계적으로 진행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정인(2000). 세계화와 세계시민 민주주의: 이론적 모색. *유럽연구*, 11, 39-65.
- 곽병선(1991). 중학교 민주시민 교육 요구조사 적용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1998a), 초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_____ (1998b),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서울: 교육부.
- _____ (1999),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 서울: 교육부.
- 권대봉(1997). 세계화 시대의 바른 교육이 지향해야 할 인재상.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3(2), 1-14.
- 김대순(1997). Nationality into world citizenship?. *유럽연구*, 6, 365-388.
- 김왕근(1999). 세계화와 다중 시민성 교육의 관계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28, 45-68.
- 노찬옥(2001). 세계 시민교육에 대한 시안적 연구: 세계 시민의 위상과 세계 시민교육의 방향 탐색. *시민교육연구*, 33, 80-108.
- _____ (2003).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세계 시민성과 시민 교육적 함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라종일(1995). 세계시민: 이념, 현실 그리고 전망. *유럽연구*, 3, 161-192
- _____ (1996)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civic education in Korea: a perspective of global citizenship. *민주시민교육논총*, 1(1), 112-125.

- _____ (1997). 세계시민연구와 다문화주의적 정체. **유럽연구**, 5, 281-299.
- 라종일(1995). **세계화시대의 세계시민교육**, 서울: 공보처.
- 문화관광부(1998).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
- 박효정(2000). **한국사회의 도덕성 지표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배한동(2002). 한국 대학생의 민주시민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정치학회보, 9(2).
- 설규주(2001). 탈국가적 시민성의 대두와 시민교육의 새로운
방향. **시민교육연구**, 32, 151-178.
- 신현국(1998). **세계교육 목표 및 내용선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창삼(2000). 열린사회와 세계시민의식. **현상과 인식**, 봄/여름호, 163-188.
- 유석렬(1996)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과 시민의식, **사회와 교육**, 23(1), 11-24.
- _____ (1995). 세계화, 통일, 민주시민교육. **사회와 교육**, 20(1), 1-8.
- 이경호(1997). 다문화사회의 대두와 시민교육의 과제: 관용성을 중심으로. **사회와 교육**, 25(1), 279-303.
- 이병호(1998). **포스트모던 다원주의와 사회과 교육: 정의와 연대성을 위한 교육**.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훈(2001). 사이버 공동체와 테크노철학. **철학연구**, 52, 225-245.
- 이승중(1997). 지방화. 세계화시대의 시민의식. **사회와 교육**, 24(1), 49-63.
- 이인규(1997). **한국교육의 시민개념 구체화를 위한 탐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희섭(2001). 한국사회 시민성의 이론적 고찰. **한국사회**, 4(1).
- 장현근(1997). 군자와 세계시민. **유럽연구**, 5, 347-369.
- _____(1995). 동양사상과 세계시민: 중국 천하사상과 유가의 대동론. **유럽연구**, 3, 231-260.
- 전숙자(1999). 민주시민성 구성요소의 두 가지 차원: 도시 및 도시근교 중학생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29, 135-159.
- _____(2002). **사회과교육의 통합적 구성과 교수-학습 설계**, 217-251. 서울: 교육과학사.
- 정수복(1995). 초국가적 시민연대:NGO와 세계시민운동. **유럽연구**, 3, 383-417.
- _____(1997). The global environmental crisis and transnational civil networks **유럽연구**, 6, 409-426.
- 조영식 편(1995), **세계시민론**,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 한상길, 임상록(1998). 세계화시대의 인간교육에 관한 연구: 자민족중심주의와 세계시민성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6(4), 49-70.
- 한준상 외(1997). **한국성인인력개조론**. 서울:학지사.
- 허영식(2000). 세계화와 세계시민교육. **초등교육연구**, 11(1), 91-110.
- _____(2000).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내용.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집**, 2, 19-62.
- _____(2000). **지구촌시대의 시민교육**. 서울: 학문사.
- _____(2000). **미래지향적 시민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원미사.
- _____(2001). **현대사회의 변동과 시민교육**. 서울: 원미사.
- _____(2002). **지구촌 시대의 국제테러,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서울: 한국문화사.
- _____(2003). **세계화·정보화시대의 민주시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원미사.

- 황태연(1996). 근대기획에 있어서의 세계시민과 영구평화의 이념.
 유럽연구, 3, 193-230.
- Barber, B. R. (2002). The educated student: global citizen or global consumer?. *Liberal education*, 88(2), 22-28
- Bennett, C.(1990).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theory and practice, 2nd ed.*, Allyn and Bacon.
- Bernaldez, P. B.(2002). *Oughtopian peace model for Neo-Renaissance*. Legazpi City: Aquinas University of Legazpi, Inc.
- Bickmore(1993). Learning inclusion/inclusion learning. citizenship education for a pluralistic society.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21, 341-384.
- Briks, H.(1997). *Global citizenship and higher educa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ronto
- BpB(Hg.), *Verantwortung in einer unuebersichtlichen Welt*,
 Bonn: BpB, S. 631-642.
- _____ (1998), *Interkulturelles Lernen*, Bonn: BpB.
- Center for the reconstruction of human society(1987). *Global human family looking at the 21st century*. Seoul: Kyung Hee University Press
- Choue, Y. S.(1986). *Textbook on world citizenship*. Seoul: Kyung Hee University Press.
- _____ (1995). *Tolerance, restoration of morality and humanity*. Seoul: IIPS Kyung Hee University.
- _____ (1998). *Global visions toward the next millennium: Modern civilization and beyond*. Seoul: IIPS Kyung Hee University.
- _____ (2000). *Global governance in the 21st century*.

- Seoul. IIPS Kyung Hee University.
- _____ (2002). *A global common society through Pax UN*. Seoul. IIPS Kyung Hee University.
- Cogan J. J.(1998). *Citizenship for the 21st century* London Kogan Page.
- _____ (1999) Multidimensional citizenship as educational policy for the millennium: putting research into practice. *Momentum(Washington D.C.)* 30(2) (Apr./May 1999), 73-82.
- Cooper, T. L & Diane E. Y.(1999).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citizenship in a transnational world: implications for public administration. *Administrative theory and praxis*, 195-204
- Delanty, G.(2000). *Citizenship in a global age*.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Die Gruppe von Lissabon(1997), *Grenzen des Wettbewerbs. Die Globalisierung der Wirtschaft und die Zukunft der Menschheit*, Bonn: BpB.
- Edwards, M.(2001). Global civil society and community exchanges: a different form of movement. *Environment and urbanization*, 13(2), 145-149.
- Engle, S. H. & Ochoa, A. S (1988).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NY: Teacher College Press, Columbia University.
- Falk, R.(1994). The making of global citizenship. Van Steenberg, B.(Ed.). *The condition of citizenship*. London: Sage publication Ltd.

- Fritzsche, K.-P.(1995), "Toleranz im Umbruch",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43, S. 9-17.
- _____ (2000), "Menschenrechtserziehung in internationaler Perspektive", in: *Politische Bildung*, 1, S. 67-78
- Glaser, H.(1999), "WWW. Neugier und Vernetzung",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41, S 3-9.
- Grosch, H. et al.(1998), "Bausteine zur Grundlegung interkulturellen Lernens", in: BpB(Hg.), *Interkulturelles Lernen*, Bonn: BpB, S. 29-46.
- Habermas, J.(1998), *Die postnationale Konstellation*, Frankfurt/M.: Suhrkamp.
- Habermas, J.(1992), *Faktizitaet und Geltung*, Frankfurt/M.: Suhrkamp.
- Hahn, C. L.(2001), Democratic understanding: cross-national perspectives. *Theory into practice*, 40(1) (Winter 2001), 14-22.
- Heater, Derek(1998). *World citizenship and government* London: Macmillan Press Ltd.
- _____ (1996), *World Citizenship and Government: Cosmopolitan Ideas in the History of Western Political Thought*, New York: St. Martin's Press.
- Hauchler, I. et al.(Hg)(2001), *Globale Trends 2002*, Frankfurt/M. Fischer.
- Hilligen, W.(1985), *Zur Didaktik des politischen Unterrichts*, Opladen: Leske+Budrich.
- _____ (1991), "Einige Thesen zum Verhaeltnis von Denken, Fuehlen und Handeln im Politikunterricht", in: Schiele, S./ Schneider, H.(Hg.), *Rationalitaet und Emotionalitaet in der politischen Bildung*,

- Stuttgart: Metzler, S. 37-57.
- Hornung, K.(1987), "Emanzipation - Identitaet - Konsens", in: Schiele, S./Schneider, H.(Hg.), *Konsens und Dissens in der politischen Bildung*, Stuttgart: Metzler, S. 85-101.
- Hughes, J. (1999). The regional response to globalization. *Peace research abstracts*, 36(4).
- Isin, E. F.(2000). *Democracy, citizenship and the global city*. London Routledge.
- Klafki, W.(1999), "Schluesselprobleme und Schluesselqualifikationen - Schwerpunkte neuer Allgemeinbildung in einer demokratischen Kinder- und Jugendschule", in: Hepp, G./Schneider, H.(Hg.), *Schule in der Buergergesellschaft*, Schwalbach/Ts.: Wochenschau, S. 30-49.
- Kueng, H.(2000), "Plaedoyer fur ein globales Verantwortungs-ethos", in: Nuscheler, F.(Hg.), *Entwicklung und Frieden im Zeichen der Globalisierung*, Bonn. BpB, S. 147-158.
- Masschelein, J. & Simons, M.(2002). An adequate education in a global world?: a note on immunisation against being together.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6(4), 589-608.
- Merryfield, M.(1997), "Infusing Global Perspectives into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in: Ross, E.(Ed.),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Purposes, Problems, and Possibilitie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pp. 183-195.
- Merryfield, M./White, C.(1996), "Issues-Centered Global Education", in: Evans, R./Saxe, D.(Eds.), *Handbook on*

- Teaching Social Issues*, Washington: NCSS, pp. 177-187.
- Mickel, W.(2000), "Streit um die Nation. Die deutsche Frage in der politischen Bildung",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25, S. 3-10.
- Muth, C.(1999), "Interkulturelles Lernen", in: Richter, D et al.(Hg), *Didaktik und Schule*, Schwalbach/Ts.: Wochenschau, S. 117-119.
- Muller, J.(2001). What knowledge is needed in the new millennium?. *Organization*, 8(2), 163-182.
- Nader, R.(2001). New responsibilities for civil society. *Peace research abstracts*, 38(5), 603-751.
- Nuscheler, F.(Hg.)(2000), *Entwicklung und Frieden im Zeichen der Globalisierung*, Bonn: BpB.
- Ono, R. (1996). The internet, multiple choice, and self identity: what does it mean to be a global citizen?. *Journal of visual literacy*, 16(1), 25-35.
- Parker, W.C.(1999). Educating World Citizens: Toward Multinational Curriculum Development.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Summer 1999*, 36(2), 117-145.
- Pinzani, A.(2000), "Demokratisierung als Aufgabe. Laesst sich Globalisierung demokratisch gestalten?",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33-34, S. 32-38.
- Richard, F.(2000), The decline of citizenship in an era of globalization. *Citizenship studies*, 41, 5-17.
- Rigby, A. (1999). Training for cosmopolitan citizenship in the 1930s: the project of Dimitrije Mitrinovic *Peace &*

- change*, 24(3), 379-400.
- Rinne, R.(2000). The globalisation of education: finish education on the doorstep of the new millennium. *Educational review*, 52(2), 131-142.
- Ruether, G.(1993), "Politische Bildung und politische Kultur im vereinigten Deutschland",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34, S. 3-12.
- Santa Babara, J.(1999). Preventing war: the role of the global citizen. *Peace research abstracts*, 36(4).
- Sarcinelli, U.(1993), "Verfassungspatriotismus und Buerger-gesellschaft oder: Was das demokratische Gemeinwesen zusammenhaelt",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34, S. 25-37.
- Schlensoeg, S.(2000), "Weltfrieden - Weltreligionen - Weltethos", in: Breit, G./Schiele, S.(Hg.), *Werte in der politischen Bildung*, Schwalbach/Ts.: Wochenschau, S. 97-107.
- Schneider, H.(1991), "Eine Nachlese", in. Schiele/Schneider (Hg.), *Rationalitaet und Emotionalitaet in der politischen Bildung*, Stuttgart: Metzler, S. 172-183.
- Seitz, K.(1996),"Wider den Provinzialismus in der Paedagogik", in: Boettger, G./Frech, S.(Hg.), *Der Nord-Sued-Konflikt in der politischen Bildung*, Schwalbach/Ts.: Wochenschau, S. 95-112.
- Solinger, D. J.(2001). Globalisation and the paradox of participation: the Chinese case. *Global governance*, 7(2), 173-196.
- Sohn, J S.(1994). *Restoration of morality and humanity*. Seoul: IIPS, Kyung Hee Univ.

- Soysal, Yasemin(1998). Toward a postnational model of membership. In Shafir, Gherson(Ed.). *The citizenship debates*.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utor, B.(1993), "Verfassungspatriotismus. Bruecke zwischen Nationalbewusstsein und universaler politischer Ethik?", in: Behrmann, G./Schiele, S.(Hg.), *Verfassungspatriotismus als Ziel politischer Bildung?*, Schwalbach/Ts.: Wochenschau, S. 36-54.
- Thomas, A.(1994), "Kulturelle Identität und interkulturelles Lernen", in: Franke, K.F. et al.(Hg.), *Aufbruch zur Demokratie*, Opladen: Leske+Budrich, S 37-53.
- Treml, A.(1996), "Didaktik der entwicklungspolitischen Bildung am Ausgang einer Epoche", in: Boettger, G./Frech, S.(Hg.), *Der Nord-Sued-Konflikt in der politischen Bildung*, Schwalbach/Ts.: Wochenschau, S. 113-128.
- Tucker, J./Evans, A (1996), "The Challenge of a Global Age", in: Massialas, B./Allen, R.(Eds.), *Critical Issues in Teaching Social Studies K-12*, Belmont: Wadsworth, pp. 181-218
- Verein fuer Friedenspaedagogik(1998), *Global Lernen*, Tuebingen: Verein fuer Friedenspaedagogik.
- Weinbrenner, P.(1995), "Didaktische Konzepte zur Bearbeitung oekologischer und zukunftsorientierter Themen", in: Ungar, M.(2002), Inoculation against terror: Backpacking through Egypt teaches our children abou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Canada*, 42 (3 i.e 4), 16-19,.

Waddock, S., Smith, N(2000). Relationships: the real challenge of corporate global citizenship. *Business and Society Review*, 105(1), 47-62.

White, C. S (1997). Citizen participation and the internet: prospect for civic deliberation in the information age. *The social studies*, 88(1).

유니세프. www.unicef.or.kr.

유네스코한국위원회. www.unesco.or.kr.

유엔환경계획. www.unep.or.kr.

공 백

부 록

1. 설문지
2. 설문조사 결과의 기술적 분석표

공 백

설문지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에 관한 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세계를 무대로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활약하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일환으로 '청소년의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합니다.

각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다만 응답자 개인의 생각을 묻는 것이니 모든 문항에 솔직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개인 응답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며, 본 조사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3.10.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청소년개발원(우137-715)
email: seonmkim@hotmail.com

※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오른쪽 번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전혀 그렇지않다 (2)그렇지않다 (3)보통이다 (4) 그렇다
(5)아주 그렇다 (0) 잘 모르겠다

1-1	세계 자원의 소비문제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	(1) (2) (3) (4) (5) (0)
1-2	세계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1) (2) (3) (4) (5) (0)
1-3	세계 인권에 관한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	(1) (2) (3) (4) (5) (0)
1-4	세계 인구에 관한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	(1) (2) (3) (4) (5) (0)
1-5	여러 국제협력기구와 그 역할에 대한 지식이 있다.	(1) (2) (3) (4) (5) (0)
1-6	세계 빈곤문제나 난민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1) (2) (3) (4) (5) (0)
2-1	다른 문화적 배경에 비추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현실을 인지해 보기도 한다.	(1) (2) (3) (4) (5) (0)
2-2	세계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인식해 보기도 한다.	(1) (2) (3) (4) (5) (0)
2-3	국제적 변화에 대한 감각이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0)
2-4	세계 속에서 조망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해 보기도 한다.	(1) (2) (3) (4) (5) (0)
3-1	지구상에 공존하는 다양한 문화간의 차이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1) (2) (3) (4) (5) (0)
3-2	세계의 다양한 생활양식들이 문화적 가치로서 평등하다고 이해하고 있다.	(1) (2) (3) (4) (5) (0)
3-3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들에 공통된 보편적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1) (2) (3) (4) (5) (0)
3-4	자신과 자기주변에서 있을 수 있는 문화적 편견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	(1) (2) (3) (4) (5) (0)
3-5	선진국 문화 뿐 아니라 그 밖의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문화양상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다.	(1) (2) (3) (4) (5) (0)

※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오른쪽 번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전혀 그렇지않다 (2)그렇지않다 (3)보통이다 (4) 그렇다
(5)아주 그렇다 (0) 잘 모르겠다

4-1	인류공동체라는 의미에 가치를 두고 있다.	(1) (2) (3) (4) (5) (0)
4-2	나와 다른 행동에 대한 관용의 자세를 중시한다.	(1) (2) (3) (4) (5) (0)
4-3	인류 공공의 선에 공헌하는 것이 가치롭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0)
4-4	세계적 갈등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1) (2) (3) (4) (5) (0)
5-1	문화적 동질성 보다는 다양성에 가치를 두고 있다.	(1) (2) (3) (4) (5) (0)
5-2	서로 다른 문화간의 상호작용을 중요시 여긴다.	(1) (2) (3) (4) (5) (0)
5-3	개인적 욕심보다는 타인에 대한 배려에 가치를 두고 있다.	(1) (2) (3) (4) (5) (0)
6-1	낮선 문화에 대하여 수용적인 자세를 가진다.	(1) (2) (3) (4) (5) (0)
6-2	문제 해결에 있어서 흑백논리보다 중용의 자세를 더 중요시하는 편이다.	(1) (2) (3) (4) (5) (0)
6-3	국제사회 이슈에 대하여 유연한 사고로 대하는 편이다.	(1) (2) (3) (4) (5) (0)
6-4	관심있는 세계적 사안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편이다.	(1) (2) (3) (4) (5) (0)
7-1	지구적 경향과 세계 공동 이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0)
7-2	지구적 이슈를 다루는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할 자세가 있다.	(1) (2) (3) (4) (5) (0)
7-3	지구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세계문제에 책임감을 느낀다.	(1) (2) (3) (4) (5) (0)
8-1	국제사회와 외국인에 대해 윤리적 태도로 대하는 편이다.	(1) (2) (3) (4) (5) (0)
8-2	국제사회와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로 대하는 편이다.	(1) (2) (3) (4) (5) (0)
8-3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감정이입을 잘 하는 편이다.	(1) (2) (3) (4) (5) (0)

※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오른쪽 번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전혀 그렇지않다 (2)그렇지않다 (3)보통이다 (4) 그렇다
(5)아주 그렇다 (0) 잘 모르겠다

8-4	낯선 외국인을 거부감 없이 대하는 편이다.	(1) (2) (3) (4) (5) (0)
8-5	세계의 여러 문화 속에서 민족문화의 주체성을 지닐 수 있다.	(1) (2) (3) (4) (5) (0)
9-1	국제사회 이슈에 대하여 나름대로 분석해 보기도 한다.	(1) (2) (3) (4) (5) (0)
9-2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비판적으로 사고해 보기도 한다.	(1) (2) (3) (4) (5) (0)
9-3	국제사회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평가를 해 보기도 한다.	(1) (2) (3) (4) (5) (0)
9-4	기본적인 지식이나 원리를 다양한 국제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적용해 보기도 한다.	(1) (2) (3) (4) (5) (0)
10-1	국제사회 관심사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해 낼 수 있다.	(1) (2) (3) (4) (5) (0)
10-2	국제사회 관심사에 관한 수집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1) (2) (3) (4) (5) (0)
10-3	외국인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한 정도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	(1) (2) (3) (4) (5) (0)
11-1	다른 사람과 서로 의견차이가 있는 경우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데 적극적이다.	(1) (2) (3) (4) (5) (0)
11-2	여러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1) (2) (3) (4) (5) (0)
11-3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있는 토론의 과정에 원만하게 참여할 수 있다.	(1) (2) (3) (4) (5) (0)
11-4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 (2) (3) (4) (5) (0)
11-5	국제적인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협동심을 잘 발휘할 수 있다.	(1) (2) (3) (4) (5) (0)

※다음은 ‘세계시민’에 대한 용어 및 세계시민과 민족의식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오른쪽 해당 번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동의하지 않는다 (3)보통이다
 (4)동의한다 (5)아주 동의한다 (0) 잘 모르겠다

12-1	세계시민은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가는 세계 여러 국가의 모든 시민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1) (2) (3) (4) (5) (0)
12-2	세계시민은 세계의 공동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는 자세를 가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을 의미한다.	(1) (2) (3) (4) (5) (0)
12-3	세계시민은 관념적인 개념이고 오늘날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 개념이다.	(1) (2) (3) (4) (5) (0)
12-4	앞으로 세계시민의 자질을 갖춘 필요성은 점차 증대할 것이다	(1) (2) (3) (4) (5) (0)
12-5	세계 공동의 활동 영역이 증대하는 오늘날에 세계시민 의식의 필요성은 증대할 것이다.	(1) (2) (3) (4) (5) (0)
12-6	세계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는 현재 사회에는 적합하지 않다.	(1) (2) (3) (4) (5) (0)
12-7	우리나라가 세계무대에서 주도적으로 앞서가려면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1) (2) (3) (4) (5) (0)
12-8	국내의 민주시민의 역할에 충실하다면 세계시민에 대한 의식과 자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1) (2) (3) (4) (5) (0)
12-9	민족의식은 세계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는데 장애가 된다.	(1) (2) (3) (4) (5) (0)
12-10	민족의식은 세계시민의식과 서로 배척된다.	(1) (2) (3) (4) (5) (0)
12-11	민족의식은 세계시민의식보다 앞서야 한다.	(1) (2) (3) (4) (5) (0)
12-12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일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해야 하는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	(1) (2) (3) (4) (5) (0)
12-13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민족의식과 세계시민의식이 서로 공존할 수 있다.	(1) (2) (3) (4) (5) (0)

※응답자에 대한 다음의 질문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4-1. 응답자의 연령

- (1)만18세미만_____ (2)만18-20세미만_____
- (3)만20-22세미만_____ (4)만22-24세 미만_____
- (5)만24세이상_____

14-2. 응답자의 성별 (1)여_____ (2)남_____

14-3. 응답자의 현 거주지역(또는 인근지역)

- (1)서울/경기_____ (2)서울/경기 이외 지역_____

14-4. 응답자의 전공

- (1)인문계열_____ (2)사회계열_____ (3)이학계열_____
- (4)공과계열_____ (5)의학계열_____ (6)예체능계열_____
- (7)기타_____

14-5. 외국여행 혹은 외국생활 경험

- (1) 없음_____ (2) 1년 미만_____
- (3)1년 이상- 3년 미만_____ (4) 3년 이상-5년 미만_____
- (5) 5년 이상_____

14-6. 청소년의 세계시민에 관한 연구과제에 앞으로 의견제시나 인터뷰 등에 참여하는데 관심이 있으십니까?

- (1) 관심이 있다._____ (2) 관심이 없다._____

14-7. 세계시민 연구과제 참여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_____, 학교/학년/전공_____

연락 전화번호 및 주소 (HP)_____

***본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조사 결과의 기술적 분석표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 실태

(국제적 사고 영역)

	응답 요인	전혀그 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 다	무응답
분석 및 판단	이슈비판	13 (2.6)	92 (18.5)	196 (39.5)	167 (33.7)	15 (3.0)	11 (2.2)	2 (0.4)
	이슈분석	14 (2.8)	129 (26.0)	197 (39.7)	132 (26.6)	11 (2.2)	12 (2.4)	1 (0.4)
	이슈평가	10 (2.0)	107 (21.6)	232 (46.8)	125 (25.2)	10 (2.0)	10 (2.0)	2 (0.4)
국제 적 관여	단체참여	48 (9.7)	147 (29.6)	165 (33.3)	90 (18.1)	24 (4.8)	22 (4.4)	0 (0)
	세계책임	32 (6.5)	165 (33.3)	173 (34.9)	86 (17.3)	21 (4.2)	19 (3.8)	0 (0)
	심사숙고	14 (2.8)	98 (19.8)	203 (40.9)	140 (28.2)	21 (4.2)	20 (4.0)	0 (0)
	공동관심	10 (2.0)	80 (17.5)	215 (43.3)	148 (29.8)	20 (4.0)	15 (3.0)	1 (0.2)
	유연사고	4 (0.8)	62 (12.5)	225 (45.5)	157 (31.7)	26 (5.2)	21 (4.2)	1 (1.2)
정보 처리 기능	정보수집	22 (4.4)	145 (29.2)	203 (40.9)	92 (18.5)	13 (2.6)	19 (3.8)	2 (0.4)
	정보활용	30 (6.0)	179 (36.1)	202 (40.7)	58 (11.7)	8 (1.6)	16 (3.2)	3 (0.6)
	원리적용	14 (2.8)	130 (26.2)	204 (41.1)	123 (24.8)	13 (2.6)	11 (2.2)	1 (0.2)

국제적 이해 영역)

	응답 요인	전혀그 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 다	무응답
조망 및 통찰	위치인식	29 (5.8)	119 (24.0)	177 (35.7)	128 (25.8)	27 (5.4)	15 (3.0)	1 (0.2)
	변화감각	28 (5.6)	166 (33.5)	193 (38.9)	78 (15.7)	13 (2.6)	18 (3.6)	0 (0)
	다각도	33 (6.7)	193 (38.9)	170 (34.3)	70 (14.1)	10 (2.0)	19 (3.8)	1 (0.2)
	국제기구	38 (7.7)	191 (38.5)	170 (34.3)	68 (13.7)	9 (1.8)	20 (4.0)	0 (0)
	자원지식	27 (5.4)	167 (33.7)	217 (43.8)	48 (9.7)	9 (1.8)	36 (5.2)	2 (0.4)
다문 화이 해	문화보편	3 (0.6)	72 (14.5)	203 (40.9)	166 (33.5)	45 (9.1)	5 (1.0)	2 (0.4)
	문화편견	4 (0.8)	39 (7.9)	152 (30.6)	245 (49.4)	52 (10.5)	4 (0.8)	0 (0)
	문화평등	17 (1.2)	81 (16.3)	98 (19.8)	180 (36.3)	114 (23.0)	6 (1.2)	0 (0)
	문화차이	6 (1.2)	49 (9.9)	161 (32.5)	217 (43.8)	58 (11.7)	4 (0.8)	1 (0.2)
	선진문화	8 (1.6)	107 (21.6)	218 (44.0)	129 (26.0)	24 (4.8)	9 (1.8)	1 (0.2)
국제 문제 이해	환경인식	1 (0.2)	31 (6.3)	135 (27.2)	252 (50.8)	75 (15.1)	2 (0.4)	0 (0)
	인권이해	5 (1.0)	72 (14.5)	221 (44.6)	168 (33.9)	19 (3.8)	9 (1.8)	2 (0.4)
	인구이해	14 (2.8)	119 (24.0)	202 (40.7)	131 (26.4)	16 (3.2)	14 (2.8)	0 (0)
	빈곤문제	6 (1.2)	86 (17.3)	218 (44.0)	157 (31.7)	21 (4.2)	8 (1.6)	0 (0)
	사회인지	11 (2.2)	65 (13.1)	144 (29.0)	222 (44.8)	49 (9.9)	4 (0.8)	1 (0.2)

가치 및 태도 영역)

	응답 요인	전혀그 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 다	무응답
인류 에	공동체	4 (0.8)	75 (15.1)	184 (37.1)	181 (36.5)	42 (8.5)	10 (2.0)	0 (0)
	갈등평화	1 (0.2)	29 (5.8)	143 (28.8)	226 (45.6)	91 (18.3)	6 (1.2)	0 (0)
	인류가치	1 (0.2)	26 (5.2)	122 (24.6)	234 (47.2)	100 (20.2)	11 (2.2)	2 (0.4)
	관용자세	0 (0)	37 (7.5)	137 (27.6)	242 (48.8)	76 (15.3)	4 (0.8)	0 (0)
개방 적 태도	수용자세	4 (0.8)	5 (11.3)	203 (40.9)	172 (34.7)	52 (10.5)	9 (1.8)	0 (0)
	감정이입	6 (1.2)	35 (7.1)	179 (36.1)	201 (40.5)	69 (13.9)	6 (1.2)	0 (0)
	배려가치	3 (0.6)	53 (10.7)	186 (37.5)	191 (38.5)	57 (11.5)	5 (1.0)	1 (0.2)
	중용	5 (1.0)	33 (6.7)	134 (27.0)	243 (49.0)	73 (14.7)	7 (1.4)	1 (0.2)
합리 적 태도	합리태도	4 (0.8)	40 (8.1)	200 (40.3)	208 (41.9)	33 (6.7)	10 (2.0)	1 (0.2)
	윤리태도	2 (0.4)	53 (10.7)	231 (46.6)	161 (32.5)	34 (6.9)	15 (3.0)	0 (0)
문화 교류	다양가치	2 (0.4)	25 (5.0)	117 (23.6)	245 (49.4)	95 (19.2)	11 (2.2)	1 (0.2)
	상호작용	1 (0.2)	19 (3.8)	102 (20.6)	267 (53.8)	98 (19.8)	8 (1.6)	1 (0.2)

사회적 관계 영역)

	응답 요인	전혀 그 렇지 않다	그 렇지 않다	보 통이 다	그 렇다	아 주 그 렇다	잘 모 르 겠 다	무 응 답
사 회 적 기 능	토론참여	6 (1.2)	80 (16.1)	207 (41.7)	165 (33.3)	32 (6.5)	4 (0.8)	2 (0.4)
	의견표현	12 (2.4)	84 (16.9)	212 (42.7)	141 (28.4)	39 (7.9)	5 (1.0)	3 (0.6)
	네트워킹	11 (2.2)	114 (23.0)	204 (41.1)	141 (28.4)	19 (3.8)	5 (1.0)	2 (0.4)
	합의도출	8 (1.6)	72 (14.5)	193 (38.9)	182 (36.7)	33 (6.7)	3 (0.6)	5 (1.0)
	문제협동	7 (1.4)	65 (13.1)	232 (46.8)	154 (31.0)	26 (5.2)	10 (2.0)	2 (0.4)
	외어구사	61 (12.3)	158 (31.9)	141 (28.4)	85 (17.1)	40 (8.1)	8 (1.6)	3 (0.6)

성에 따른 청소년의 세계시민자질실태

국제적 사고 영역-분석 및 판단)

응답 요인		전혀그 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 다	총계
이슈 비판	남	7 (2.2)	131 (19.9)	131 (40.7)	103 (32.0)	7 (2.2)	10 (3.1)	322 (100)
	여	6 (3.6)	28 (16.6)	64 (37.9)	62 (36.7)	8 (4.7)	1 (0.6)	169 (100)
총계		13 (2.6)	92 (18.7)	195 (39.7)	165 (33.6)	15 (3.1)	11 (2.2)	491 (100)

카이제곱=7.89 ns

이슈 분석		8	80	135	82	5	11	322
남	남	(2.5)	(25.2)	(41.9)	(25.5)	(1.6)	(3.4)	(100)
	여	6 (3.5)	47 (27.6)	61 (35.9)	49 (28.8)	5 (3.5)	1 (0.6)	170 (100)
총계		14 (2.8)	128 (26.0)	196 (39.8)	131 (26.6)	11 (2.2)	12 (2.4)	492 (100)

카이제곱=7.78 ns

이슈 평가		4	73	158	73	5	9	322
남	남	(1.2)	(22.7)	(49.1)	(22.7)	(1.6)	(2.8)	(100)
	여	6 (3.6)	33 (19.5)	72 (12.6)	52 (30.8)	5 (3.0)	1 (0.6)	169 (100)
총계		10 (2.0)	106 (21.6)	230 (46.8)	125 (25.5)	10 (2.0)	10 (2.0)	491 (100)

카이제곱=10.97 ns

국제적 사고 영역-국제적 관여)

응답 요인		전혀 그 렇지 않다	그 렇지 않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아 주 그 렇 다	잘 모 르 겠 다	총 계
단체 참여	남	26 (8.0)	105 (32.5)	108 (33.4)	54 (16.7)	18 (5.6)	12 (3.7)	324 (100)
	여	22 (12.9)	41 (24.1)	56 (32.9)	35 (30.6)	6 (3.5)	10 (5.9)	170 (100)
총계		48 (9.7)	146 (29.6)	164 (33.3)	89 (18.1)	24 (41.9)	22 (4.5)	493 (100)

카이제곱=8.44 ns

세계 책임		남	여	총계
세계 책임	남	14 (4.3)	106 (32.8)	115 (35.6)
	여	18 (10.6)	58 (34.1)	57 (33.5)
총계		32 (6.5)	164 (33.3)	172 (34.9)

카이제곱=8.46 ns

심사 숙고		남	여	총계
심사 숙고	남	7 (2.2)	66 (20.4)	132 (40.9)
	여	7 (4.1)	31 (18.2)	70 (41.2)
총계		14 (2.8)	97 (19.7)	202 (41.0)

카이제곱=4.20 ns

국제적 사고 영역-국제적 관여 계속)

공동 관심	남	5 (1.5)	59 (18.3)	140 (43.3)	96 (29.7)	14 (4.3)	9 (2.8)	323 (100)
	여	5 (3.0)	28 (16.6)	103 (43.2)	52 (30.8)	5 (3.0)	6 (3.6)	170 (100)
총계		10 (2.0)	87 (17.7)	213 (43.3)	148 (30.1)	19 (3.0)	15 (3.0)	492 (100)

카이제곱=2.06 ns

유연 사고	남	3 (0.9)	41 (12.7)	147 (45.7)	101 (31.4)	16 (5.0)	14 (4.3)	322 (100)
	여	1 (0.6)	20 (11.8)	77 (45.3)	56 (32.9)	9 (5.3)	7 (4.1)	170 (100)
총계		4 (0.8)	61 (12.4)	224 (45.5)	157 (31.9)	25 (5.1)	21 (4.3)	492 (100)

카이제곱=37 ns

국제적 사고 영역-정보처리기능)

응답 요인		전혀그 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 다	총계
정보 수집	남	13 (4.0)	97 (30.2)	140 (13.6)	48 (15.0)	10 (3.1)	13 (4.0)	321 (100)
	여	9 (5.3)	45 (28.2)	61 (35.9)	43 (25.3)	3 (1.8)	6 (3.5)	170 (100)
총계		22 (4.5)	145 (29.5)	201 (40.9)	91 (18.5)	13 (2.6)	19 (3.9)	491 (100)

카이제곱=9.41 ns

정보 활용	남	17 (5.3)	122 (38.0)	127 (39.6)	36 (11.2)	6 (1.9)	13 (4.0)	321 (100)
	여	13 (7.7)	56 (33.1)	73 (43.2)	22 (13.0)	2 (1.2)	3 (1.8)	169 (100)
총계		30 (6.1)	178 (36.3)	200 (40.8)	58 (11.8)	16 (3.3)	16 (3.3)	490 (100)

카이제곱=4.50 ns

원리 적용	남	11 (3.4)	83 (25.8)	132 (41.0)	80 (24.7)	8 (2.5)	8 (2.5)	322 (100)
	여	3 (1.8)	47 (27.6)	70 (41.2)	42 (24.7)	5 (2.9)	3 (1.8)	170 (100)
총계		14 (2.8)	130 (26.4)	202 (41.1)	122 (24.8)	13 (2.6)	11 (2.2)	492 (100)

카이제곱=1.56 ns

국제적 이해 영역-조망 및 분석)

응답 요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다	총계
위치 인식	남	19 (5.9)	73 (22.7)	121 (37.6)	86 (26.7)	13 (4.0)	10 (3.1)	322 (100)
	여	10 (5.9)	44 (25.9)	56 (32.9)	41 (24.1)	14 (8.2)	5 (2.9)	170 (100)
총계		29 (5.9)	117 (23.8)	177 (36.0)	127 (25.8)	27 (5.5)	15 (3.0)	492 (100)

카이제곱=5.02 ns

변화 감각	남	18 (5.6)	117 (36.2)	128 (39.6)	42 (13.0)	5 (1.5)	13 (4.0)	323 (100)
	여	10 (5.9)	48 (28.2)	63 (37.1)	36 (21.2)	8 (4.7)	5 (2.9)	170 (100)
총계		28 (5.7)	165 (33.5)	191 (38.7)	78 (15.8)	13 (2.6)	18 (3.7)	493 (100)

카이제곱=11.61 p<.05

다각도	남	22 (6.8)	135 (41.9)	116 (36.0)	36 (11.2)	3 (0.9)	10 (3.1)	322 (100)
	여	11 (6.5)	57 (33.5)	53 (31.2)	34 (20.2)	6 (3.5)	9 (5.3)	170 (100)
총계		33 (6.7)	192 (39.0)	169 (34.3)	70 (14.2)	9 (1.8)	19 (3.9)	492 (100)

카이제곱=14.36 p<.05

국제적 이해 영역-조망 및 분석 계속)

국제 기구	남	27 (8.4)	123 (38.1)	115 (35.6)	50 (12.4)	4 (1.2)	14 (4.3)	323 (100)
	여	11 (6.5)	68 (40.0)	52 (30.6)	28 (16.5)	5 (2.9)	6 (3.5)	170 (100)
총계		38 (7.7)	191 (38.7)	167 (33.8)	68 (13.8)	9 (1.8)	20 (4.1)	493 (100)

카이제곱=4.74 ns

자원 지식	남	18 (15.6)	12.5 (38.8)	138 (42.9)	15 (4.7)	6 (1.9)	20 (6.2)	322 (100)
	여	9 (15.3)	41 (24.1)	78 (45.9)	33 (19.4)	3 (1.8)	6 (3.5)	170 (100)
총계		27 (15.5)	166 (38.7)	216 (43.9)	48 (9.8)	9 (1.8)	26 (5.3)	492 (100)

카이제곱=33.72 p<.001

국제적 이해 영역-다문화이해)

응답 요인		전혀그 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 다	총계
문화 보편	남	1 (0.3)	44 (13.7)	131 (40.8)	112 (34.9)	31 (9.7)	2 (0.5)	321 (100)
	여	2 (1.2)	28 (16.5)	69 (40.6)	54 (31.8)	14 (8.2)	3 (1.8)	170 (100)
총계		3 (0.6)	72 (14.7)	200 (40.7)	166 (33.8)	45 (9.2)	5 (1.0)	491 (100)

카이제곱=3.93 ns

문화 편견	남	2 (0.6)	18 (5.6)	100 (31.0)	155 (48.0)	45 (13.9)	3 (0.9)	323 (100)
	여	2 (1.2)	21 (12.4)	51 (30.0)	89 (52.4)	6 (3.5)	1 (0.6)	170 (100)
총계		4 (0.8)	39 (7.9)	151 (30.6)	244 (49.5)	51 (10.3)	4 (0.8)	493 (100)

카이제곱=19.17 p<.01

문화 평등	남	13 (4.0)	54 (16.7)	60 (18.6)	117 (36.2)	76 (23.5)	3 (0.9)	323 (100)
	여	4 (2.4)	27 (15.9)	37 (21.8)	62 (36.5)	37 (21.8)	3 (1.8)	170 (100)
총계		17 (3.4)	81 (16.4)	97 (19.7)	179 (36.3)	113 (22.9)	6 (1.2)	493 (100)

카이제곱=2.32 ns

국제적 이해 영역-다문화이해 계속)

문화 차이	남	4 (1.2)	30 (9.3)	105 (32.6)	143 (44.4)	38 (11.8)	2 (0.6)	323 (100)
	여	2 (1.2)	19 (1.2)	55 (32.4)	73 (42.9)	19 (11.2)	2 (1.2)	170 (100)
총계		6 (1.2)	49 (10.0)	160 (32.5)	216 (43.9)	57 (11.6)	4 (0.8)	492 (100)

카이제곱=0.91 ns

선진 문화	남	3 (0.9)	69 (21.4)	144 (44.7)	79 (24.5)	20 (6.2)	7 (2.2)	322 (100)
	여	5 (2.9)	37 (21.8)	73 (42.9)	50 (29.4)	3 (1.8)	2 (1.2)	170 (100)
총계		8 (1.6)	106 (21.5)	217 (44.1)	124 (26.2)	23 (4.7)	9 (1.8)	492 (100)

카이제곱=9.17 ns

국제적 이해 영역-국제문제이해)

응답 요인		전혀그 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 다	총계
환경 인식	남	0 (0)	17 (5.3)	82 (25.4)	170 (52.6)	52 (16.1)	2 (0.6)	323 (100)
	여	1 (0.6)	14 (8.2)	53 (31.2)	81 (47.6)	21 (12.4)	0 (0)	170 (100)
총계		1 (0.2)	31 (6.3)	135 (27.4)	251 (50.9)	73 (14.8)	2 (0.4)	493 (100)

카이제곱=7.48 ns

인권 이해	남	3 (0.9)	47 (14.6)	144 (44.7)	111 (34.5)	12 (3.7)	5 (1.6)	322 (100)
	여	2 (1.2)	25 (14.8)	75 (44.4)	57 (33.7)	6 (3.6)	4 (2.4)	169 (100)
총계		5 (1.0)	72 (14.7)	219 (44.6)	168 (34.2)	18 (3.7)	9 (1.8)	491 (100)

카이제곱=0.50 ns

인구 이해	남	10 (13.1)	79 (24.5)	137 (42.4)	79 (24.5)	10 (3.1)	8 (2.5)	323 (100)
	여	4 (2.4)	40 (23.5)	63 (37.1)	52 (30.6)	5 (2.9)	6 (3.5)	170 (100)
총계		14 (2.8)	119 (24.1)	200 (40.6)	200 (40.6)	15 (3.0)	14 (2.8)	493 (100)

카이제곱=3.06 ns

국제적 이해 영역-국제문제이해 계속)

빈곤 문제	남	2 (0.6)	57 (17.6)	140 (43.3)	107 (33.1)	13 (4.0)	4 (1.2)	323 (100)
	여	4 (2.4)	29 (17.1)	77 (45.3)	49 (8.8)	7 (2.4)	4 (2.4)	170 (100)
총계		6 (1.2)	86 (17.4)	217 (44.0)	156 (31.6)	8 (1.6)	8 (1.6)	493 (100)

카이제곱=4.38 ns

사회 인지	남	6 (1.9)	38 (11.8)	97 (30.0)	146 (45.2)	33 (10.2)	3 (0.9)	323 (100)
	여	5 (3.0)	26 (15.4)	46 (27.2)	76 (45.0)	15 (8.9)	1 (0.6)	169 (100)
총계		11 (2.2)	64 (13.0)	143 (29.1)	222 (45.1)	48 (9.8)	4 (0.8)	492 (100)

카이제곱=2.38 ns

가치 및 태도 영역-인류애)

응답 요인		전혀그 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 다	총계
공동체	남	0 (0)	40 (12.4)	12.6 (39.0)	121 (37.5)	32 (9.9)	4 (1.2)	323 (100)
	여	4 (2.4)	34 (20.0)	58 (34.1)	58 (34.1)	10 (5.9)	5 (3.5)	170 (100)
총계		4 (0.8)	74 (15.0)	184 (37.3)	179 (36.3)	42 (8.5)	10 (2.0)	493 (100)

카이제곱=17.96 p<.01

갈등 평화		남	여	총계
갈등 평화	남	0 (0)	10 (3.1)	92 (28.5)
	여	1 (0.6)	19 (11.2)	51 (30.0)
총계		1 (0.2)	29 (5.9)	143 (29.0)

카이제곱=16.16 p<.01

인류 가치		남	여	총계
인류 가치	남	0 (0)	15 (4.7)	72 (22.4)
	여	1 (0.6)	10 (5.9)	50 (29.6)
총계		1 (0.2)	25 (5.1)	122 (23.8)

카이제곱=7.90 ns

가치 및 태도 영역-인류애 계속)

관용 자세	남	0 (0)	17 (5.3)	91 (28.2)	159 (49.2)	54 (16.7)	2 (0.6)	323 (100)
	여	0 (0)	20 (11.8)	46 (27.1)	81 (47.6)	21 (12.4)	2 (1.2)	170 (100)
총계		0 (0)	37 (7.5)	137 (27.8)	240 (48.7)	75 (15.2)	4 (0.8)	493 (100)

카이제곱=8.20 ns

가치 및 태도 영역-개방적 태도)

응답 요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다	총계
수용 자세	남	2 (0.6)	32 (9.9)	139 (43.0)	110 (34.1)	33 (10.2)	7 (2.2)	323 (100)
	여	2 (1.2)	22 (12.9)	63 (37.1)	62 (36.5)	19 (11.2)	2 (1.2)	170 (100)
총계		4 (0.8)	54 (11.0)	203 (41.0)	172 (34.9)	52 (10.5)	9 (1.8)	493 (100)
카이제곱=3.22 ns								
감정이입	남	3 (0.9)	13 (4.0)	119 (36.6)	135 (41.8)	49 (15.2)	4 (1.2)	323 (100)
	여	3 (1.8)	21 (12.4)	60 (35.3)	64 (37.6)	20 (11.8)	2 (1.2)	170 (100)
총계		6 (1.2)	34 (6.9)	179 (36.3)	199 (40.4)	69 (14.0)	6 (1.2)	493 (100)
카이제곱=13.32 p<.05								
배려 가치	남	2 (0.6)	34 (10.6)	122 (37.9)	126 (39.1)	35 (10.9)	3 (0.9)	322 (100)
	여	1 (0.6)	19 (11.2)	64 (37.6)	63 (37.1)	21 (12.4)	2 (1.2)	170 (100)
총계		3 (0.6)	53 (10.8)	186 (37.8)	189 (38.4)	56 (11.4)	5 (1.0)	492 (100)
카이제곱=0.45 ns								
중용	남	2 (0.6)	16 (5.0)	92 (28.6)	161 (50.0)	47 (14.6)	4 (1.2)	322 (100)
	여	3 (1.8)	16 (9.4)	42 (24.7)	80 (47.1)	26 (15.3)	3 (1.8)	170 (100)
총계		5 (1.0)	32 (6.5)	134 (27.2)	241 (49.0)	73 (14.8)	7 (1.4)	492 (100)
카이제곱=5.87 ns								

가치 및 태도 영역-윤리적 태도)

응답 요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다	총계
합리 태도	남	2 (0.6)	27 (8.4)	119 (36.8)	143 (44.3)	24 (7.4)	8 (2.5)	323 (100)
	여	1 (1.2)	13 (7.7)	79 (46.7)	64 (37.9)	9 (5.3)	2 (1.2)	169 (100)
총계		4 (0.8)	40 (8.1)	198 (40.2)	207 (42.1)	33 (6.7)	10 (2.0)	492 (100)

카이제곱=6.54 ns

윤리 태도	남	2 (0.6)	27 (8.4)	119 (36.8)	143 (44.3)	24 (7.4)	8 (2.5)	323 (100)
	여	2 (1.2)	13 (7.7)	79 (46.7)	64 (37.9)	9 (5.3)	2 (1.2)	169 (100)
총계		4 (0.8)	40 (8.1)	198 (40.2)	207 (42.1)	33 (6.7)	10 (2.0)	492 (100)

카이제곱=5.93 ns

가치 및 태도 영역-문화교류)

응답 요인		전혀그 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 다	총계
다양 가치	남	1 (0.3)	12 (3.7)	76 (23.6)	168 (52.2)	58 (18.0)	7 (2.2)	322 (100)
	여	1 (0.6)	13 (7.6)	40 (23.5)	77 (45.3)	35 (20.6)	4 (2.4)	170 (100)
총계		2 (0.4)	25 (5.1)	116 (23.6)	245 (49.8)	93 (18.9)	11 (2.2)	492 (100)

카이제곱=5.04 ns

상호 작용	남	1 (0.3)	7 (2.2)	57 (17.6)	184 (57.0)	71 (22.0)	3 (0.9)	323 (100)
	여	0 (0)	12 (7.1)	45 (26.5)	81 (47.6)	26 (15.3)	6 (3.5)	170 (100)
총계		1 (0.2)	19 (3.9)	102 (20.7)	265 (53.8)	97 (19.7)	9 (1.8)	493 (100)

카이제곱=20.09 p<.01

사회적 관계 영역)

응답 요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다	총계
토론 참여	남	4 (1.2)	55 (17.1)	138 (42.9)	101 (31.4)	21 (6.5)	3 (0.9)	322 (100)
	여	2 (1.2)	25 (14.7)	68 (40.0)	63 (37.1)	11 (6.5)	1 (0.6)	170 (100)
총계		6 (1.2)	80 (16.3)	206 (41.9)	164 (33.3)	32 (6.5)	4 (0.8)	492 (100)

카이제곱=1.85 ns

의견 표현		남	여	총계
의견 표현	남	8 (2.5)	54 (16.8)	143 (44.4)
	여	4 (2.4)	30 (17.8)	68 (40.2)
총계		12 (2.4)	84 (17.1)	211 (43.0)

카이제곱=0.97 ns

네트워킹		남	여	총계
네트워킹	남	8 (2.5)	79 (24.5)	130 (40.4)
	여	3 (1.8)	35 (20.6)	73 (42.9)
총계		11 (2.2)	114 (23.2)	203 (41.3)

카이제곱=4.57 ns

사회적 관계 영역 계속)

합의 도출	남	5 (1.6)	41 (12.8)	138 (43.1)	118 (36.9)	17 (5.3)	1 (0.3)	320 (100)
	여	3 (1.8)	31 (18.3)	54 (32.0)	63 (37.3)	16 (9.5)	2 (1.2)	169 (100)
총계		8 (1.6)	72 (14.7)	192 (39.3)	181 (37.0)	33 (6.7)	3 (0.6)	489 (100)

카이제곱=10.05 ns

문제 협동	남	4 (1.2)	35 (10.9)	159 (49.4)	98 (30.4)	18 (5.6)	8 (2.5)	322 (100)
	여	3 (1.8)	30 (17.6)	72 (42.4)	55 (32.4)	8 (4.7)	2 (1.2)	170 (100)
총계		7 (1.4)	65 (13.2)	231 (47.0)	153 (31.1)	26 (5.3)	10 (2.0)	492 (100)

카이제곱=6.48 ns

외어 구사	남	42 (13.1)	99 (30.8)	95 (29.6)	52 (16.2)	29 (9.0)	4 (1.2)	321 (100)
	여	19 (11.2)	58 (34.1)	45 (26.5)	33 (19.4)	11 (6.5)	4 (2.4)	170 (100)
총계		61 (12.4)	157 (32.0)	140 (28.5)	85 (17.3)	40 (8.1)	8 (1.6)	491 (100)

카이제곱=3.47 ns

지역에 따른 청소년의 세계시민자질실태

국제적 사고 영역-분석 및 판단)

응답 요인		전혀 그 렇지 않다	그 렇지 않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아 주 그 렇 다	잘 모 르 겠 다	총 계
이슈 비판	서울/ 경기	8 (2.8)	36 (12.8)	114 (40.6)	110 (39.1)	10 (3.6)	3 (1.1)	281 (100)
	기타	5 (2.4)	56 (26.7)	81 (38.6)	55 (26.2)	5 (2.4)	8 (3.8)	210 (100)
총계		13 (2.6)	92 (18.7)	195 (39.7)	165 (33.6)	15 (3.1)	11 (2.2)	491 (100)

카이제곱=23.11 p<.001

이슈 분석		서울/ 경기	기타	총계
이슈 분석	서울/ 경기	8 (2.8)	61 (21.7)	111 (39.5)
	기타	6 (2.8)	67 (31.8)	85 (40.3)
총계		14 (2.8)	128 (26.0)	196 (39.8)

카이제곱=24.10 p<.001

이슈 평가		서울/ 경기	기타	총계
이슈 평가	서울/ 경기	5 (1.8)	43 (15.3)	142 (50.5)
	기타	5 (2.4)	63 (30.0)	88 (41.9)
총계		10 (2.0)	106 (21.6)	230 (46.8)

카이제곱=16.73 p<.01

국제적 사고 영역-국제적 관여)

응답 요인		전혀그 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 다	총계
단체 참여	서울/ 경기	18 (6.4)	74 (26.2)	102 (36.2)	60 (21.3)	19 (6.7)	9 (3.2)	282 (100)
	기타	30 (14.2)	72 (34.1)	62 (29.4)	29 (13.7)	5 (2.4)	13 (6.2)	211 (100)
총계		48 (9.7)	146 (29.6)	164 (33.3)	89 (18.1)	24 (4.9)	22 (4.5)	493 (100)

카이제곱=22.72 p< 001

세계 책임		서울/ 경기	기타	총계
세계 책임	서울/ 경기	11 (3.9)	80 (28.4)	106 (37.6)
	기타	21 (10.0)	84 (39.8)	66 (31.3)
총계		32 (6.5)	164 (33.3)	172 (34.9)

카이제곱=25.04 p<.001

심사 숙고		서울/ 경기	기타	총계
심사 숙고	서울/ 경기	7 (2.5)	50 (17.7)	113 (40.1)
	기타	7 (3.3)	47 (22.3)	89 (42.2)
총계		14 (2.8)	97 (19.7)	202 (41.0)

카이제곱=6.40 ns

국제적 사고 영역-국제적 관여 계속)

공동 관심	서울/ 경기	5 (1.8)	42 (14.9)	128 (45.4)	90 (31.9)	13 (4.6)	4 (1.4)	282 (100)
	기타	5 (2.4)	45 (21.4)	85 (40.5)	58 (27.6)	6 (2.9)	11 (5.2)	210 (100)
총계		10 (2.0)	87 (17.7)	213 (43.3)	148 (30.1)	19 (3.9)	15 (3.0)	492 (100)

카이제곱=11.25 p<.05

유연 사고	서울/ 경기	1 (0.4)	31 (11.0)	123 (43.6)	103 (36.5)	16 (5.7)	8 (2.8)	282 (100)
	기타	3 (1.4)	30 (14.3)	101 (48.1)	54 (25.7)	9 (4.3)	13 (6.2)	210 (100)
총계		4 (0.8)	61 (12.4)	224 (45.5)	157 (31.9)	25 (5.1)	21 (4.3)	492 (100)

카이제곱=11.37 p<.05

국제적 사고 영역-정보처리기능)

응답 요인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아주 그렇 다	잘 모르 겠다	총계
정보 수집	서울/ 경기	8 (2.5)	77 (27.5)	128 (45.7)	49 (17.5)	8 (2.9)	10 (3.6)	280 (100)
	기타	14 (6.6)	68 (32.5)	73 (34.6)	42 (19.9)	5 (2.4)	9 (4.3)	211 (100)
총계		22 (4.5)	145 (29.5)	201 (40.9)	91 (2.6)	13 (2.6)	19 (3.9)	491 (100)

카이제곱=9.01 ns

정보 활용	서울/ 경기	13 (4.6)	94 (33.5)	128 (45.6)	38 (13.5)	3 (1.1)	5 (1.8)	281 (100)
	기타	17 (8.1)	84 (40.2)	72 (34.4)	20 (9.6)	5 (2.4)	11 (5.3)	209 (100)
총계		30 (6.1)	178 (36.3)	200 (40.8)	58 (11.8)	8 (1.6)	16 (3.2)	490 (100)

카이제곱=14.85 p<.05

원리 적용	서울/ 경기	5 (1.8)	70 (24.9)	118 (42.0)	76 (27.0)	9 (3.2)	3 (1.1)	281 (100)
	기타	9 (4.3)	60 (28.4)	84 (39.8)	46 (21.8)	4 (1.9)	8 (3.8)	211 (100)
총계		14 (2.8)	130 (26.4)	202 (41.1)	122 (24.8)	13 (2.6)	11 (2.2)	492 (100)

카이제곱=9.44 ns

국제적 이해 영역-조망 및 분석)

응답 요인		전혀 그 렇지 않다	그 렇지 않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아 주 그 렇 다	잘 모 르 겠 다	총 계
위치 인식	서울/ 경기	13 (4.6)	52 (18.5)	103 (36.7)	91 (32.4)	18 (6.4)	4 (6.4)	281 (100)
	기타	16 (7.6)	65 (30.8)	74 (35.1)	36 (17.1)	9 (4.3)	11 (5.2)	211 (100)
총계		29 (5.9)	117 (36.0)	177 (36.0)	127 (25.8)	27 (5.5)	15 (3.0)	492 (100)

카이제곱=27.18 p<.001

변화 감각	서울/ 경기	15 (5.3)	77 (27.3)	114 (40.4)	61 (21.6)	8 (2.8)	7 (2.5)	282 (100)
	기타	13 (6.2)	88 (41.7)	77 (36.5)	17 (8.1)	5 (2.4)	11 (5.2)	211 (100)
총계		28 (5.7)	165 (33.5)	191 (38.7)	78 (15.8)	13 (2.6)	18 (3.7)	493 (100)

카이제곱=24.73 p<.001

다각도	서울/ 경기	15 (5.3)	100 (35.5)	110 (39.0)	44 (15.6)	6 (2.1)	7 (2.5)	282 (100)
	기타	18 (8.6)	92 (43.8)	59 (28.1)	26 (12.4)	3 (1.4)	12 (5.7)	210 (100)
총계		33 (6.7)	192 (39.0)	169 (34.3)	70 (14.2)	9 (1.8)	19 (3.9)	492 (100)

카이제곱=12.68 p<.05

국제적 이해 영역-조망 및 분석계속)

국제 기구	서울/ 경기	17 (6.0)	103 (36.5)	98 (34.8)	49 (17.4)	7 (2.5)	8 (2.8)	282 (100)
	기타	21 (10.0)	88 (41.7)	69 (32.7)	19 (9.0)	2 (0.9)	12 (5.7)	211 (100)
총계		38 (7.7)	191 (38.7)	167 (33.9)	68 (13.8)	9 (1.8)	20 (4.1)	493 (100)

카이제곱=13.50 p<.05

자원 지식	서울/ 경기	13 (4.6)	90 (32.0)	138 (49.1)	24 (8.5)	5 (1.8)	11 (3.9)	281 (100)
	기타	14 (6.6)	76 (36.0)	78 (37.0)	24 (11.4)	4 (1.9)	15 (7.1)	211 (100)
총계		27 (5.5)	166 (33.7)	216 (43.9)	48 (9.8)	9 (1.8)	26 (5.3)	492 (100)

카이제곱=8.83 ns

국제적
이해영역-다문화이해)

응답 요인		전혀그 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 다	총계
문화 보편	서울/ 경기	1 (0.4)	27 (9.6)	119 (42.3)	104 (37.0)	29 (10.3)	1 (0.4)	281 (100)
	기타	2 (1.0)	45 (21.4)	81 (38.6)	62 (29.5)	16 (7.6)	4 (1.9)	210 (100)
총계		3 (0.6)	72 (14.7)	200 (40.7)	166 (33.8)	45 (9.2)	5 (1.0)	491 (100)

카이제곱=18.35 p<.01

문화 편견	서울/ 경기	3 (1.1)	14 (5.0)	80 (28.4)	150 (53.2)	34 (12.1)	1 (0.4)	282 (100)
	기타	1 (0.5)	25 (11.8)	71 (33.6)	94 (44.5)	17 (8.1)	3 (1.4)	211 (100)
총계		4 (0.8)	39 (7.9)	151 (30.6)	244 (49.5)	4 (0.8)	4 (0.8)	493 (100)

카이제곱=14.23 0<.05

문화 평등	서울/ 경기	6 (2.1)	41 (14.5)	50 (17.7)	109 (38.7)	74 (26.2)	2 (0.7)	282 (100)
	기타	11 (5.2)	40 (19.0)	47 (22.3)	70 (33.2)	38 (18.5)	4 (1.9)	211 (100)
총계		17 (3.4)	81 (16.4)	97 (19.7)	179 (36.3)	113 (22.9)	6 (1.2)	493 (100)

카이제곱

국제적 이해 영역-다문화이해 계속)

문화 차이	서울/ 경기	3 (1.1)	19 (6.8)	77 (27.4)	142 (50.5)	39 (13.9)	1 (0.4)	281 (100)
	기타	3 (1.4)	30 (14.2)	83 (39.3)	74 (35.1)	18 (8.5)	3 (1.4)	211 (100)
총계		6 (1.2)	49 (10.0)	160 (32.5)	216 (43.9)	57 (11.6)	4 (0.8)	492 (100)

카이제곱=23.35 P<.001

선진 문화	서울/ 경기	2 (0.7)	56 (50)	124 (44.1)	81 (28.8)	15 (5.3)	3 (1.1)	281 (100)
	기타	6 (2.8)	50 (23.7)	93 (44.1)	48 (22.7)	8 (3.8)	6 (2.8)	211 (100)
총계		8 (1.6)	106 (21.5)	217 (44.1)	129 (26.2)	23 (4.7)	9 (1.8)	492 (100)

카이제곱=8.56 ns

국제적 이해 영역-국제문제이해)

응답 요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다	총계
환경 인식	서울/경기	1 (0.4)	11 (3.9)	82 (29.1)	149 (52.8)	38 (13.5)	1 (0.4)	282 (100)
	기타	0 (0)	20 (9.5)	53 (25.1)	102 (48.3)	35 (16.6)	1 (0.5)	211 (100)
총계		1 (0.2)	31 (6.3)	135 (27.4)	251 (50.9)	73 (14.8)	2 (0.4)	493 (100)

카이제곱=8.72 ns

인권 이해	서울/경기	2 (0.7)	32 (11.4)	120 (42.7)	112 (39.9)	10 (3.6)	5 (1.8)	281 (100)
	기타	3 (1.4)	40 (19.0)	99 (47.1)	56 (26.7)	8 (3.8)	4 (1.9)	210 (100)
총계		5 (1.0)	72 (14.7)	219 (44.6)	168 (34.2)	18 (3.7)	9 (1.8)	491 (100)

카이제곱=12.09 p<.05

인구 이해	서울/경기	8 (2.8)	66 (23.4)	115 (40.8)	80 (28.4)	7 (2.4)	6 (2.1)	282 (100)
	기타	6 (2.8)	53 (25.1)	85 (40.3)	51 (24.2)	8 (3.8)	8 (3.8)	211 (100)
총계		14 (2.8)	119 (24.1)	200 (40.6)	131 (26.6)	15 (3.0)	14 (2.8)	493 (100)

카이제곱=2.81 ns

국제적 이해 영역-국제문제이해 계속)

빈곤 문제	서울/ 경기	4 (1.4)	53 (18.8)	113 (40.1)	94 (33.3)	13 (4.6)	5 (1.8)	282 (100)
	기타	2 (0.9)	33 (15.6)	104 (49.3)	62 (29.4)	7 (3.3)	3 (1.4)	211 (100)
총계		6 (1.2)	86 (17.4)	217 (44.0)	156 (31.6)	20 (4.1)	8 (1.6)	493 (100)

카이제곱=4.42 ns

사회 인지	서울/ 경기	6 (2.1)	27 (9.6)	82 (29.1)	135 (47.9)	32 (11.3)	()	282 (100)
	기타	5 (2.4)	37 (17.6)	61 (29.0)	87 (41.4)	16 (7.6)	4 (1.9)	210 (100)
총계		11 (2.2)	64 (13.0)	143 (29.1)	222 (45.1)	48 (9.8)	4 (0.8)	492 (100)

카이제곱=14.22 p<.05

가치 및 태도 영역-인류애)

응답 요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다	총계
공동체	서울/경기	3 (1.1)	27 (9.6)	108 (38.3)	118 (41.8)	24 (8.5)	2 (0.7)	282 (100)
	기타	1 (0.5)	47 (22.3)	76 (36.0)	61 (28.9)	18 (8.5)	8 (3.8)	211 (100)
총계		4 (0.8)	74 (15.0)	184 (37.3)	179 (36.3)	42 (8.5)	10 (2.0)	493 (100)
카이제곱=24.87 p<.001								
갈등평화	서울/경기	0 (0)	10 (3.5)	77 (27.3)	145 (51.4)	48 (17.0)	2 (0.7)	282 (100)
	기타	1 (0.5)	19 (9.0)	66 (31.3)	80 (37.9)	41 (19.4)	4 (1.9)	211 (100)
총계		1 (0.2)	29 (5.9)	143 (29.0)	225 (45.6)	89 (18.1)	6 (1.2)	493 (100)
카이제곱=14.71 p<.05								
인류가치	서울/경기	1 (0.4)	8 (2.8)	70 (24.9)	148 (52.7)	51 (18.1)	3 (1.1)	281 (100)
	기타	0 (0)	17 (8.1)	52 (24.8)	84 (40.0)	49 (23.3)	8 (3.8)	210 (100)
총계		1 (0.2)	25 (5.1)	122 (24.8)	232 (47.3)	100 (20.4)	11 (2.2)	491 (100)
카이제곱=16.95 p<.01								
관용자세	서울/경기	20 (7.1)	62 (22.0)	153 (54.3)	47 (16.7)	47 (16.7)	0 (0)	282 (100)
	기타	17 (8.1)	75 (35.5)	87 (41.2)	28 (13.3)	28 (13.3)	4 (1.9)	211 (100)
총계		37 (7.5)	137 (27.8)	240 (48.7)	75 (15.2)	75 (15.2)	4 (0.8)	493 (100)
카이제곱=18.60 p<.001								

가치 및 태도 영역-개방적 태도)

응답 요인		전혀 그 렇지 않다	그 렇지 않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아 주 그 렇 다	잘 모 르 겠 다	총 계
수용 자세	서울/ 경기	0 (0)	24 (8.5)	113 (40.1)	108 (38.3)	34 (12.1)	3 (1.1)	282 (100)
	기타	4 (1.9)	30 (14.2)	89 (42.2)	64 (30.3)	18 (8.5)	6 (2.8)	211 (100)
	총계	4 (0.8)	54 (11.0)	202 (41.0)	172 (34.9)	52 (10.5)	9 (1.8)	493 (100)
카이제곱=14.78 p<.05								
감정 이입	서울/ 경기	3 (1.1)	18 (6.4)	99 (35.1)	116 (41.1)	45 (16.0)	1 (0.4)	282 (100)
	기타	3 (1.4)	16 (7.6)	80 (37.9)	83 (39.3)	24 (11.4)	5 (2.4)	211 (100)
	총계	6 (1.2)	34 (6.9)	179 (36.3)	199 (40.4)	69 (14.0)	6 (1.2)	493 (100)
카이제곱=6.58 ns								
배려 가치	서울/ 경기	0 (0)	27 (9.6)	108 (38.4)	111 (39.5)	33 (11.7)	2 (0.7)	281 (100)
	기타	3 (1.4)	26 (12.3)	78 (37.0)	78 (37.0)	23 (10.9)	3 (1.4)	211 (100)
	총계	3 (0.6)	53 (10.8)	186 (37.8)	189 (38.4)	56 (11.4)	5 (1.0)	492 (100)
카이제곱=5.76 ns								
중용	서울/ 경기	2 (0.7)	14 (5.0)	63 (22.4)	153 (54.4)	46 (16.4)	3 (1.1)	281 (100)
	기타	3 (1.4)	18 (8.5)	71 (33.6)	88 (41.7)	27 (12.8)	4 (1.9)	211 (100)
	총계	5 (1.0)	32 (6.5)	134 (27.2)	241 (49.0)	73 (14.8)	7 (1.4)	492 (100)
카이제곱=14.12 p<.05								

가치 및 태도 영역-윤리적 태도)

응답 요인		전혀 그 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 다	총계
합리 태도	서울/ 경기	0 (0)	22 (7.8)	123 (43.6)	109 (38.7)	20 (7.1)	8 (2.8)	282 (100)
	기타	2 (0.9)	30 (14.2)	107 (50.7)	51 (24.2)	14 (6.6)	7 (3.3)	211 (100)
총계		2 (0.4)	52 (10.5)	230 (46.7)	160 (32.5)	34 (6.9)	15 (3.0)	493 (100)

카이제곱=16.61 p<.01

윤리 태도	서울/ 경기	0 (0)	22 (7.8)	102 (36.2)	136 (48.2)	19 (6.7)	3 (1.1)	282 (100)
	기타	4 (1.9)	18 (8.6)	96 (45.7)	71 (33.8)	14 (3.3)	7 (3.3)	210 (100)
총계		4 (0.8)	40 (8.1)	198 (40.2)	207 (42.1)	33 (6.7)	10 (2.0)	492 (100)

카이제곱=17.18 0<.01

가치 및 태도 영역-문화교류)

응답 요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다	총계
다양 가치	서울/경기	0 (0)	12 (4.3)	60 (21.4)	147 (52.3)	61 (21.7)	1 (0.4)	281 (100)
	기타	2 (0.9)	13 (6.2)	56 (26.5)	98 (46.4)	32 (15.2)	10 (4.7)	211 (100)
총계		2 (0.4)	25 (5.1)	116 (23.6)	245 (49.8)	93 (18.9)	11 (2.2)	492 (100)

카이제곱=18.81 p<.01

상호 작용	서울/경기	0 (0)	6 (2.1)	53 (18.8)	159 (56.4)	61 (21.6)	2 (0.7)	1 (0.4)
	기타	1 (0.5)	13 (6.2)	49 (23.2)	106 (50.2)	36 (17.1)	6 (2.8)	0 (0)
총계		1 (0.2)	19 (3.9)	102 (20.7)	265 (53.8)	97 (19.7)	8 (1.6)	1 (0.2)

카이제곱18.81 0<.01

사회적 관계 영역)

응답 요인		전혀 그 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 다	총계
토론 참여	서울/ 경기	5 (1.8)	37 (13.2)	114 (40.6)	105 (37.4)	20 (7.1)	0 (0)	281 (100)
	기타	1 (0.5)	43 (20.4)	92 (43.6)	59 (28.0)	12 (5.7)	4 (1.9)	211 (100)
총계		6 (1.2)	80 (16.3)	206 (41.9)	164 (33.3)	32 (6.5)	4 (0.8)	492 (100)

카이제곱=14.71 p<.05

의견 표현	서울/ 경기	6 (2.1)	48 (17.1)	118 (42.0)	83 (29.5)	24 (8.5)	2 (0.7)	281 (100)
	기타	6 (2.9)	36 (17.1)	93 (44.2)	57 (27.1)	15 (7.1)	3 (1.4)	210 (100)
총계		12 (2.4)	84 (17.1)	211 (43.0)	140 (28.5)	39 (7.9)	5 (1.0)	491 (100)

카이제곱=1.55 ns

네트 워킹	서울/ 경기	5 (1.8)	56 (19.9)	113 (40.2)	93 (33.1)	13 (4.6)	1 (0.4)	281 (100)
	기타	6 (2.8)	58 (27.5)	90 (42.7)	47 (22.3)	6 (2.8)	4 (1.9)	211 (100)
총계		11 (2.2)	114 (23.2)	203 (41.3)	140 (28.5)	5 (1.0)	5 (1.0)	492 (100)

카이제곱=12.52 p<.05

사회적 관계 영역 계속)

합의 도출	서울/ 경기	5 (1.8)	38 (13.6)	104 (37.3)	113 (40.5)	18 (6.5)	1 (0.4)	279 (100)
	기타	3 (1.4)	34 (16.2)	88 (41.9)	68 (32.4)	15 (7.5)	2 (1.0)	210 (100)
총계		8 (1.6)	72 (14.7)	192 (39.3)	181 (37.0)	33 (6.7)	3 (0.6)	489 (100)

카이제곱=4.20 ns

응답 요인		전혀그 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 다	총계
문제 협동	서울/ 경기	3 (1.1)	30 (10.7)	132 (47.0)	93 (33.1)	19 (6.8)	4 (1.4)	281 (100)
	기타	4 (1.9)	35 (16.5)	99 (46.9)	60 (28.4)	7 (3.3)	6 (2.8)	211 (100)
총계		7 (1.4)	65 (13.2)	231 (47.0)	153 (31.1)	26 (5.3)	10 (2.0)	492 (100)

카이제곱8.51 ns

외어 구사	서울/ 경기	25 (8.9)	83 (29.5)	80 (28.5)	57 (20.3)	35 (12.5)	1 (0.4)	281 (100)
	기타	36 (17.1)	74 (35.2)	60 (28.6)	28 (13.3)	5 (2.4)	7 (3.3)	210 (100)
총계		61 (12.4)	157 (32.0)	140 (28.5)	85 (17.3)	40 (8.1)	8 (1.6)	491 (100)

카이제곱=32.67 p<.001

전공에 따른 청소년의 세계시민자질 실태

국제적 사고 영역-분석 및 판단)

응답 요인		전혀그 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 다	총계
이슈 비판	인문사 회계열	10 (3.0)	48 (14.2)	138 (40.9)	122 (36.2)	13 (3.9)	6 (1.8)	337 (100)
	기타	3 (1.9)	44 (28.0)	58 (36.9)	45 (28.7)	2 (1.3)	5 (3.2)	157 (100)
총계		13 (2.6)	92 (18.6)	196 (39.7)	167 (33.8)	15 (3.0)	11 (2.2)	494 (100)

카이제곱=16.92 p<.01

이슈 분석	인문사 회계열	9 (2.7)	79 (23.4)	135 (39.9)	98 (29.0)	11 (3.3)	6 (1.8)	338 (100)
	기타	5 (3.2)	50 (31.8)	62 (39.5)	34 (21.7)	0 (0)	6 (3.8)	157 (100)
총계		14 (2.8)	129 (26.1)	197 (39.8)	132 (26.7)	11 (2.2)	12 (2.4)	495 (100)

카이제곱=12.19 p<.05

이슈 평가	인문사 회계열	7 (2.1)	56 (16.6)	168 (49.9)	91 (27.0)	9 (2.7)	6 (1.8)	337 (100)
	기타	3 (1.9)	51 (32.5)	64 (40.8)	34 (21.7)	1 (0.6)	4 (2.5)	157 (100)
총계		10 (2.0)	107 (21.7)	232 (47.0)	125 (25.3)	10 (2.0)	10 (2.0)	494 (100)

카이제곱=18.06 p<.01

국제적 사고 영역-국제적 관여)

응답 요인		전혀그 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 다	총계
단체 참여	인문사 회계열	28 (8.3)	92 (27.1)	118 (34.8)	64 (18.9)	22 (6.5)	15 (4.4)	339 (100)
	기타	20 (12.7)	55 (35.0)	47 (29.9)	26 (16.6)	2 (1.3)	7 (4.5)	157 (100)
총계		48 (9.7)	147 (29.6)	165 (33.3)	90 (18.1)	24 (4.8)	22 (4.4)	496 (100)

카이제곱=6.78ns

세계 책임	인문사 회계열	17 (5.0)	108 (31.9)	113 (33.3)	69 (5.3)	18 (5.3)	14 (4.1)	339 (100)
	기타	15 (9.6)	57 (36.3)	60 (38.2)	17 (10.8)	3 (1.9)	5 (3.2)	157 (100)
총계		32 (6.5)	165 (33.3)	173 (34.9)	86 (17.3)	21 (4.2)	21 (3.8)	496 (100)

카이제곱=13.59 p<.05

심사 숙고	인문사 회계열	6 (1.8)	68 (20.1)	144 (42.5)	95 (28.0)	13 (3.8)	13 (3.8)	339 (100)
	기타	8 (5.1)	30 (19.1)	59 (37.6)	45 (28.7)	8 (5.1)	7 (4.5)	157 (100)
총계		14 (2.8)	98 (19.8)	203 (40.9)	140 (28.2)	21 (4.2)	20 (4.0)	496 (100)

카이제곱=5.41 ns

국제적 사고 영역-국제적 관여 계속)

공동 관심	인문사	5	59	149	103	15	7	338
	회계열	(1.5)	(17.5)	(44.1)	(30.5)	(4.4)	(2.1)	(100)
	기타	5	28	66	45	5	8	157
		(3.2)	(17.8)	(42.0)	(28.7)	(3.2)	(5.1)	(100)
총계		10	87	215	148	20	15	495
		(2.0)	(17.6)	(43.4)	(29.9)	(4.0)	(3.0)	(100)

카이제곱=5.43 ns

유연 사고	인문사	2	34	155	118	20	9	338
	회계열	(0.6)	(10.1)	(45.9)	(34.9)	(5.9)	(2.7)	(100)
	기타	2	28	70	39	6	12	157
		(1.3)	(17.8)	(44.6)	(24.8)	(3.8)	(7.6)	(100)
총계		4	62	225	157	26	21	495
		(0.8)	(12.5)	(45.5)	(31.7)	(5.3)	(4.2)	(100)

카이제곱16.42 p<.01

국제적 사고 영역-정보처리기능)

응답 요인		전혀그 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 다	총계
정보 수집	인문사 회계열	15 (4.5)	98 (29.1)	140 (41.5)	63 (18.7)	10 (3.0)	11 (3.3)	337 (100)
	기타	7 (4.5)	47 (29.9)	63 (40.1)	29 (18.5)	3 (1.9)	8 (5.1)	157 (100)
총계		22 (4.5)	145 (29.4)	203 (41.1)	92 (18.6)	13 (2.6)	19 (3.8)	494 (100)

카이제곱=1.47 ns

정보 활용	인문사 회계열	19 (5.6)	116 (34.4)	145 (43.0)	44 (13.1)	7 (2.1)	6 (1.8)	337 (100)
	기타	11 (7.1)	63 (40.4)	57 (36.5)	14 (9.0)	1 (0.6)	10 (6.4)	156 (100)
총계		30 (6.1)	179 (36.3)	202 (41.0)	58 (11.8)	8 (1.6)	16 (3.2)	493 (100)

카이제곱=12.40 p<.05

원리 적용	인문사 회계열	11 (3.3)	85 (25.1)	143 (42.3)	84 (24.9)	12 (3.6)	3 (0.9)	338 (100)
	기타	3 (1.9)	45 (28.7)	61 (38.9)	39 (24.8)	1 (0.6)	8 (5.1)	157 (100)
총계		14 (2.8)	130 (26.3)	204 (41.2)	123 (24.8)	11 (2.2)	11 (2.2)	495 (100)

카이제곱=13.51 p<.05

국제적 이해 영역-조망 및 분석)

응답 요인		전혀그 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 다	총계
위치 인식	인문사 회계열	19 (5.6)	81 (24.0)	120 (35.5)	94 (27.8)	17 (5.0)	7 (2.1)	338 (100)
	기타	10 (6.4)	38 (24.2)	57 (36.3)	34 (21.7)	10 (6.4)	8 (5.1)	157 (100)
총계		29 (5.9)	119 (24.0)	177 (35.8)	128 (25.9)	27 (5.5)	15 (3.0)	495 (100)

카이제곱 5.28 ns

변화 감각	인문사 회계열	19 (5.6)	107 (31.6)	133 (39.2)	63 (18.6)	7 (2.1)	10 (2.9)	339 (100)
	기타	9 (5.7)	59 (37.6)	60 (38.2)	15 (9.6)	6 (3.8)	8 (5.1)	157 (100)
총계		28 (5.6)	166 (33.5)	183 (38.9)	78 (15.7)	13 (2.6)	18 (3.6)	496 (100)

카이제곱 9.38 ns

다각도	인문사 회계열	23 (6.8)	125 (37.0)	121 (35.8)	50 (14.8)	8 (2.4)	11 (3.3)	338 (100)
	기타	10 (6.4)	68 (43.3)	49 (31.2)	20 (12.7)	2 (1.3)	8 (5.1)	157 (100)
총계		33 (6.7)	193 (39.0)	170 (34.3)	70 (14.1)	10 (2.0)	19 (3.8)	495 (100)

카이제곱 = 3.69 ns

국제적 이해 영역-조망 및 분석 계속)

국제 기구	인문사	25	132	113	51	9	9	339
	회계열	(7.4)	(38.9)	(33.3)	(15.0)	(2.7)	(2.7)	(100)
	기타	13	59	57	17	0	11	157
		(8.3)	(37.6)	(36.3)	(10.8)	(0)	(7.0)	(100)
총계		38	191	170	68	9	20	498
		(7.7)	(38.5)	(34.3)	(13.7)	(1.8)	(4.0)	(100)

카이제곱 11.04 ns

자원 지식	인문사	18	113	155	33	7	12	338
	회계열	(5.3)	(33.4)	(45.9)	(9.8)	(2.1)	(3.6)	(100)
	기타	9	54	62	15	2	14	156
		(5.8)	(34.5)	(39.7)	(9.8)	(1.3)	(9.0)	(100)
총계		27	167	217	48	9	26	494
		(5.5)	(33.8)	(43.9)	(9.7)	(1.8)	(5.3)	(100)

카이제곱 7.33 ns

국제적 이해 영역-다문화이해)

응답 요인		전혀그 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 다	총계
문화 보편	인문사 회계열	3 (0.9)	39 (11.6)	137 (40.7)	126 (37.4)	31 (9.2)	1 (0.3)	337 (100)
	기타	0 (0)	33 (21.0)	66 (42.0)	40 (25.5)	14 (8.9)	4 (2.5)	157 (100)
총계		3 (0.6)	72 (14.6)	203 (41.1)	166 (33.6)	45 (9.1)	5 (1.0)	494 (100)

카이제곱 17.90 p<.01

문화 편견	인문사 회계열	3 (0.9)	20 (5.9)	98 (28.9)	178 (52.5)	39 (11.5)	1 (0.3)	339 (100)
	기타	1 (0.6)	19 (12.1)	54 (34.4)	67 (42.7)	13 (8.3)	3 (1.9)	157 (100)
총계		4 (0.8)	39 (7.9)	152 (30.6)	245 (49.4)	52 (10.5)	4 (0.8)	496 (100)

카이제곱 13.02 p<.05

문화 평등	인문사 회계열	11 (3.2)	49 (14.5)	58 (17.1)	132 (38.9)	86 (25.4)	3 (0.9)	339 (100)
	기타	6 (3.8)	32 (20.4)	40 (25.5)	48 (30.6)	28 (17.8)	3 (1.9)	157 (100)
총계		17 (3.4)	81 (16.3)	98 (19.8)	180 (36.3)	114 (23.0)	6 (1.2)	496 (100)

카이제곱=11.87 p<.05

국제적 이해 영역-다문화이해 계속)

문화 차이	인문사	4	27	104	154	47	2	338
	회계열	(1.2)	(8.0)	(30.8)	(45.6)	(13.9)	(0.6)	(100)
	기타	2	22	57	63	11	2	157
		(1.3)	(14.0)	(36.3)	(40.1)	(7.0)	(1.3)	(100)
총계		6	49	161	217	58	4	495
		(1.2)	(9.9)	(32.5)	(43.8)	(11.7)	(0.8)	(100)

카이제곱=10.64 ns

선진 문화	인문사	5	74	137	97	19	6	338
	회계열	(1.5)	(21.9)	(40.5)	(28.7)	(5.6)	(1.8)	(100)
	기타	3	33	81	32	5	3	157
		(1.9)	(21.0)	(51.6)	(20.4)	(3.2)	(1.9)	(100)
총계		8	107	218	129	24	9	495
		(1.6)	(21.6)	(44.0)	(26.1)	(4.8)	(1.8)	(100)

카이제곱=7.31 ns

국제적 이해 영역-국제문제이해)

응답 요인		전혀그 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 다	총계
환경 인식	인문사 회계열	0 (0)	14 (4.1)	102 (30.1)	175 (51.6)	47 (13.9)	1 (0.3)	339 (100)
	기타	1 (0.6)	17 (10.8)	33 (21.0)	77 (49.0)	28 (17.8)	1 (0.6)	157 (100)
	총계	1 (0.2)	31 (6.3)	135 (27.2)	252 (50.8)	75 (15.1)	2 (0.4)	496 (100)

카이제곱=14.68 p<.05

인권 이해	인문사 회계열	3 (0.9)	38 (11.3)	151 (44.8)	127 (37.7)	14 (4.2)	4 (1.2)	337 (100)
	기타	2 (1.3)	34 (21.7)	70 (44.6)	41 (26.1)	5 (3.2)	5 (3.2)	157 (100)
	총계	5 (1.0)	72 (14.6)	221 (44.7)	168 (34.0)	19 (3.8)	9 (1.8)	495 (100)

카이제곱=14.90 p<.05

인구 이해	인문사 회계열	11 (3.2)	82 (24.2)	141 (41.6)	86 (25.4)	11 (3.2)	8 (2.4)	339 (100)
	기타	3 (1.9)	37 (23.6)	61 (38.9)	45 (28.7)	5 (3.2)	6 (3.8)	157 (100)
	총계	14 (2.8)	119 (24.0)	202 (40.7)	131 (26.4)	16 (3.2)	14 (2.8)	496 (100)

카이제곱=2.14 ns

국제적 이해 영역-국제문제이해계속)

빈곤 문제	인문사	4	61	147	109	15	3	339
	회계열	(1.2)	(18.0)	(43.4)	(32.2)	(4.4)	(0.9)	(100)
	기타	2	25	71	48	6	5	157
		(1.3)	(15.9)	(45.2)	(30.6)	(3.8)	(3.2)	(100)
총계		6	86	218	157	21	8	496
		(1.2)	(17.3)	(44.0)	(31.7)	(4.2)	(1.6)	(100)

카이제곱 4.05 ns

사회 인지	인문사	7	36	102	154	40	0	339
	회계열	(2.1)	(10.6)	(30.1)	(45.4)	(11.8)	(0)	(100)
	기타	4	29	42	68	9	4	156
		(2.6)	(18.6)	(26.9)	(43.6)	(5.8)	(2.6)	(100)
총계		11	65	144	222	49	4	495
		(2.2)	(13.1)	(29.1)	(44.8)	(9.9)	(0.8)	(100)

카이제곱=18.35 p<.01

가치 및 태도 영역-인류애)

응답 요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다	총계
공동체	인문사회계열	4 (1.2)	44 (13.0)	126 (37.2)	128 (37.8)	31 (9.1)	6 (1.8)	339 (100)
	기타	0 (0)	31 (19.7)	56 (36.9)	53 (33.8)	11 (7.0)	4 (2.5)	157 (100)
총계		4 (0.8)	75 (15.1)	184 (37.1)	181 (36.5)	42 (8.5)	10 (2.0)	496 (100)
카이제곱=6.47 ns								
갈등평화	인문사회계열	0 (0)	16 (4.7)	91 (26.8)	169 (49.9)	60 (17.7)	3 (0.9)	339 (100)
	기타	1 (0.6)	13 (8.3)	52 (33.1)	57 (36.3)	31 (19.7)	3 (1.9)	157 (100)
총계		1 (0.2)	29 (5.8)	143 (28.8)	226 (45.6)	91 (18.3)	6 (1.2)	496 (100)
카이제곱=11.45 p<.05								
인류가치	인문사회계열	1 (0.3)	15 (4.4)	88 (26.0)	160 (20.4)	69 (20.4)	5 (1.5)	338 (100)
	기타	0 (0)	11 (7.1)	34 (21.8)	74 (47.4)	31 (19.9)	6 (3.8)	156 (100)
총계		1 (0.2)	26 (5.3)	122 (24.7)	234 (47.4)	100 (20.2)	11 (2.2)	494 (100)
카이제곱=5.33 ns								
관용자세	인문사회계열	0 (0)	26 (7.7)	85 (25.1)	171 (50.4)	55 (16.2)	2 (0.6)	339 (100)
	기타	0 (0)	11 (7.0)	52 (33.1)	71 (45.2)	21 (13.4)	2 (1.3)	157 (100)
총계		0 (0)	37 (7.5)	137 (27.6)	242 (48.8)	76 (15.3)	4 (0.8)	496 (100)
카이제곱=4.37 ns								

가치 및 태도 영역-개방적 태도)

응답 요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다	총계
수용 자세	인문사 회계열	2 (0.6)	32 (9.4)	136 (40.1)	122 (36.0)	43 (12.7)	4 (1.2)	339 (100)
	기타	2 (1.3)	24 (15.3)	67 (42.7)	50 (31.8)	9 (5.7)	5 (3.2)	157 (100)
총계		4 (0.8)	56 (11.3)	203 (40.9)	172 (34.7)	52 (10.5)	9 (1.8)	496 (100)
카이제곱=11.90 p<.05								
감정 어입	인문사 회계열	5 (1.5)	21 (6.2)	122 (36.0)	135 (39.8)	54 (15.9)	2 (0.6)	339 (100)
	기타	1 (0.6)	14 (8.9)	57 (36.6)	66 (42.0)	15 (9.6)	4 (2.5)	157 (100)
총계		6 (1.2)	35 (7.1)	179 (36.1)	201 (40.5)	69 (13.9)	6 (1.2)	496 (100)
카이제곱=8.42 ns								
배려 가치	인문사 회계열	1 (0.3)	31 (9.2)	136 (40.2)	123 (36.4)	44 (13.0)	3 (0.9)	338 (100)
	기타	2 (1.3)	22 (14.0)	50 (31.8)	68 (43.3)	13 (8.3)	2 (1.3)	157 (100)
총계		3 (0.6)	53 (10.7)	186 (37.6)	191 (38.6)	57 (11.5)	5 (1.0)	495 (100)
카이제곱=9.63 ns								
중용	인문사 회계열	2 (0.6)	19 (5.6)	86 (25.4)	174 (51.5)	53 (15.7)	4 (1.2)	339 (100)
	기타	3 (1.9)	14 (8.9)	48 (30.6)	69 (43.9)	20 (12.7)	3 (1.9)	157 (100)
총계		5 (1.0)	33 (6.7)	134 (27.1)	243 (49.1)	73 (14.7)	7 (1.4)	495 (100)
카이제곱=6.90 ns								

가치 및 태도 영역-윤리적 태도)

응답 요인		전혀그 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 다	총계
합리 태도	인문사 회계열	1 (0.3)	31 (9.1)	154 (45.4)	119 (35.1)	26 (7.7)	8 (2.4)	339 (100)
	기타	1 (0.6)	22 (14.0)	77 (49.0)	42 (26.8)	8 (5.1)	7 (4.5)	157 (100)
총계		2 (0.4)	53 (10.7)	231 (46.6)	161 (32.5)	34 (6.9)	15 (3.0)	496 (100)

카이제곱=7.90 ns

윤리 태도	인문사 회계열	1 (0.3)	23 (6.8)	133 (39.3)	153 (45.3)	26 (7.7)	2 (0.6)	338 (100)
	기타	3 (1.9)	17 (10.8)	67 (42.7)	55 (35.0)	7 (4.5)	8 (5.1)	157 (100)
총계		4 (0.8)	40 (8.1)	200 (40.4)	208 (42.0)	33 (6.7)	10 (2.0)	495 (100)

카이제곱=21.02 p< 001

가치 및 태도 영역-문화교류)

응답 요인		전혀그 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 다	총계
다양 가치	인문사 회계열	2 (0.6)	16 (4.7)	71 (21.0)	175 (51.8)	68 (20.1)	6 (1.8)	()
	기타	0 (0)	9 (5.7)	46 (29.3)	70 (44.6)	27 (17.2)	5 (3.2)	()
총계		2 (0.4)	25 (5.1)	117 (23.6)	245 (49.5)	95 (19.2)	11 (2.2)	()

카이제곱=6.82 ns

상호 작용	인문사 회계열	1 (0.3)	9 (2.7)	62 (18.3)	185 (54.6)	77 (22.7)	5 (1.5)	339 (100)
	기타	0 (0)	10 (6.4)	40 (25.5)	82 (52.2)	21 (13.4)	4 (2.5)	157 (100)
총계		1 (0.2)	19 (3.8)	102 (20.6)	267 (53.8)	98 (19.8)	9 (1.8)	496 (100)

카이제곱=12.55, p<.01

사회적 관계 영역)

응답 요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다	총계
토론 참여	인문사 회계열	5 (1.5)	50 (14.8)	144 (42.6)	113 (33.4)	25 (7.4)	1 (0.3)	338 (100)
	기타	1 (0.6)	30 (19.2)	63 (40.4)	52 (33.3)	7 (4.5)	3 (1.9)	156 (100)
	총계	6 (1.2)	80 (16.2)	207 (41.9)	165 (33.4)	32 (6.5)	4 (0.8)	494 (100)

카이제곱=6.93 ns

의견 표현	인문사 회계열	8 (2.4)	54 (16.0)	152 (45.1)	94 (27.9)	27 (8.0)	2 (0.6)	337 (100)
	기타	4 (2.6)	30 (19.2)	60 (38.5)	47 (30.1)	12 (7.7)	3 (1.9)	156 (100)
	총계	12 (2.4)	84 (17.0)	212 (43.0)	141 (28.8)	39 (7.9)	5 (1.0)	493 (100)

카이제곱=3.81 ns

네트 워킹	인문사 회계열	8 (2.4)	77 (22.8)	136 (40.2)	101 (29.9)	13 (3.8)	3 (0.9)	338 (100)
	기타	3 (1.9)	37 (23.7)	68 (43.6)	40 (25.6)	6 (3.8)	2 (1.3)	156 (100)
	총계	11 (2.2)	114 (23.1)	204 (41.3)	141 (28.5)	19 (3.8)	5 (1.0)	494 (100)

카이제곱=1.26 ns

사회적 관계 영역 계속)

협의 도출	인문사	5	48	128	132	21	2	335
	회계열	(1.5)	(14.3)	(38.1)	(39.3)	(6.3)	(0.6)	(100)
	기타	3	24	65	50	12	1	155
		(1.9)	(15.5)	(41.9)	(32.3)	(7.7)	(0.6)	(100)
총계		8	72	193	182	33	3	491
		(1.6)	(14.7)	(39.3)	(37.1)	(6.7)	(0.6)	(100)

카이제곱=2.40 ns

문제 협동	인문사	3	43	165	101	20	6	338
	회계열	(0.9)	(12.7)	(48.8)	(29.9)	(5.9)	(1.8)	(100)
	기타	4	22	67	53	6	4	156
		(2.6)	(14.1)	(42.9)	(3.8)	(3.8)	(2.6)	(100)
총계		7	65	232	154	26	10	494
		(1.4)	(13.2)	(47.0)	(31.2)	(5.3)	(2.0)	(100)

카이제곱=4.83 ns

외어 구사	인문사	39	98	97	62	37	4	337
	회계열	(11.6)	(29.1)	(28.8)	(18.4)	(11.0)	(1.2)	(100)
	기타	22	60	44	23	3	4	156
		(14.1)	(38.5)	(28.2)	(14.7)	(1.9)	(2.6)	(100)
총계		61	158	141	85	40	8	493
		(12.4)	(32.0)	(28.6)	(17.2)	(8.1)	(1.6)	(100)

카이제곱=16.34 p<.01

외국경험에 따른 청소년의 세계시민자질 실태

국제적 사고 영역-분석 및 판단)

응답 요인		전혀그 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 다	총계
이슈 비판	1년 미만	13 (2.9)	89 (19.5)	179 (39.3)	153 (33.6)	11 (2.4)	11 (2.4)	456 (100)
	1년 이상	0 (0)	3 (7.9)	17 (44.7)	14 (36.8)	4 (10.5)	0 (0)	38 (100)
총계		14 (2.8)	92 (18.6)	196 (39.7)	167 (33.8)	15 (3.0)	11 (2.2)	494 (100)

카이제곱=12.53 p<.05

이슈 분석	1년 미만	14 (3.1)	119 (26.0)	184 (40.3)	121 (1.8)	8 (1.8)	11 (2.4)	457 (100)
	1년 이상	0 (0)	10 (26.3)	13 (34.2)	11 (28.9)	3 (7.9)	1 (2.6)	38 (100)
총계		14 (2.8)	129 (26.1)	197 (39.8)	132 (26.7)	11 (2.2)	12 (2.4)	495 (100)

카이제곱=7.54 ns

이슈 평가	1년 미만	10 (2.2)	101 (22.1)	212 (46.5)	116 (25.4)	7 (1.5)	10 (2.2)	456 (100)
	1년 이상	0 (0)	6 (15.8)	20 (52.6)	9 (23.7)	3 (7.9)	0 (0)	38 (100)
총계		10 (2.0)	107 (21.7)	232 (47.0)	125 (25.3)	10 (2.0)	10 (2.0)	494 (100)

카이제곱=9.65 ns

국제적 사고 영역-국제적 관여)

응답 요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다	총계
단체 참여	1년 미만	47 (10.3)	140 (30.6)	149 (32.5)	77 (16.8)	23 (5.0)	22 (4.8)	458 (100)
	1년 이상	1 (2.6)	7 (18.4)	16 (42.1)	13 (34.2)	1 (2.6)	0 (0)	38 (100)
총계		48 (9.7)	147 (29.6)	165 (33.3)	90 (18.1)	24 (4.8)	22 (4.4)	496 (100)

카이제곱=12.92 p<.05

세계 책임	1년 미만	31 (6.8)	154 (33.6)	159 (34.7)	76 (16.6)	19 (4.1)	19 (4.1)	458 (100)
	1년 이상	1 (2.6)	11 (28.9)	14 (35.8)	10 (26.3)	2 (5.3)	0 (0)	38 (100)
총계		32 (6.5)	165 (33.3)	173 (34.9)	86 (17.3)	21 (4.2)	19 (3.8)	496 (100)

카이제곱=4.80 ns

심사 숙고	1년 미만	14 (3.1)	93 (20.3)	187 (40.8)	127 (27.7)	17 (3.7)	20 (4.4)	458 (100)
	1년 이상	0 (0)	5 (13.2)	16 (42.1)	13 (34.2)	4 (10.5)	0 (0)	38 (100)
총계		14 (2.8)	98 (19.8)	203 (40.9)	140 (28.2)	21 (4.2)	20 (4.0)	496 (100)

카이제곱=8.11 ns

국제적 사고 영역-국제적 관여 계속)

공동 관심	1년 미만	10 (2.2)	81 (17.7)	202 (44.2)	133 (29.1)	16 (3.5)	15 (3.3)	457 (100)
	1년 이상	0 (0)	6 (15.8)	13 (34.2)	15 (39.5)	4 (10.5)	0 (0)	38 (100)
총계		10 (2.0)	87 (17.6)	215 (43.4)	148 (29.9)	20 (4.0)	15 (3.0)	495 (100)

카이제곱=8.51 ns

유연 사고	1년 미만	4 (0.9)	60 (13.1)	211 (46.2)	139 (30.4)	23 (5.0)	20 (4.4)	457 (100)
	1년 이상	0 (0)	2 (5.3)	14 (36.8)	18 (47.4)	3 (7.9)	1 (2.6)	38 (100)
총계		4 (0.8)	62 (12.5)	225 (45.5)	157 (31.7)	26 (5.3)	21 (4.2)	495 (100)

카이제곱=6.72 ns

국제적 사고 영역-정보처리기능)

응답 요인		전혀그 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 다	총계
정보 수집	1년 미만	21 (4.6)	137 (30.0)	185 (40.6)	84 (18.4)	11 (2.4)	18 (3.9)	456 (100)
	1년 이상	1 (2.6)	8 (21.1)	18 (47.4)	8 (21.1)	2 (5.3)	1 (2.6)	38 (100)
총계		22 (4.5)	145 (29.4)	203 (41.1)	92 (18.6)	13 (2.6)	19 (3.8)	494 (100)

카이제곱=3.04 ns

정보 활용	1년 미만	30 (6.6)	167 (36.7)	185 (40.7)	51 (11.2)	6 (1.3)	16 (3.5)	455 (100)
	1년 이상	0 (0)	12 (31.6)	17 (44.7)	7 (18.4)	2 (5.3)	0 (0)	38 (100)
총계		30 (6.1)	179 (36.3)	202 (41.0)	58 (11.8)	8 (1.6)	16 (3.2)	493 (100)

카이제곱=9.15 ns

원리 적용	1년 미만	14 (3.1)	120 (26.3)	188 (41.1)	115 (25.2)	10 (2.2)	10 (2.2)	457 (100)
	1년 이상	0 (0)	10 (26.3)	16 (42.1)	8 (21.1)	3 (7.9)	1 (2.6)	38 (100)
총계		14 (2.8)	130 (26.3)	204 (41.2)	123 (24.8)	13 (2.6)	11 (2.2)	495 (100)

카이제곱=5.79 ns

국제적 이해 영역-조망 및
분석)

응답 요인		전혀그 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 다	총계
위치 인식	1년 미만	26 (5.7)	111 (24.3)	167 (36.5)	114 (24.9)	24 (5.3)	15 (3.3)	457 (100)
	1년 이상	3 (7.9)	8 (21.1)	10 (26.3)	14 (36.8)	3 (7.9)	0 (0)	38 (100)
총계		29 (5.9)	119 (24.0)	177 (35.8)	128 (25.9)	27 (5.5)	15 (3.0)	495 (100)

카이제곱=5.09 ns

변화 감각	1년 미만	27 (5.9)	157 (34.3)	179 (39.1)	65 (14.2)	12 (2.6)	18 (3.9)	458 (100)
	1년 이상	1 (2.6)	9 (23.7)	14 (36.8)	13 (34.2)	1 (2.6)	0 (0)	38 (100)
총계		28 (5.6)	166 (33.5)	193 (38.9)	78 (15.7)	13 (2.6)	18 (3.6)	496 (100)

카이제곱=12.32 p<.05

다각도	1년 미만	31 (6.8)	180 (39.4)	154 (33.7)	66 (14.4)	7 (1.5)	19 (4.2)	457 (100)
	1년 이상	2 (5.3)	13 (34.2)	16 (42.1)	4 (10.5)	3 (7.9)	0 (0)	38 (100)
총계		33 (6.7)	193 (39.0)	170 (34.3)	70 (14.1)	10 (2.0)	19 (3.8)	495 (100)

카이제곱=10.08 ns

국제적 이해 영역-조망 및 분석 계속)

국제 기구	1년 미만	38 (8.3)	179 (39.1)	153 (33.4)	61 (13.3)	7 (1.5)	20 (4.4)	458 (100)
	1년 이상	0 (0)	12 (31.6)	17 (44.7)	7 (18.4)	2 (5.3)	0 (0)	38 (100)
총계		38 (7.7)	191 (38.5)	170 (34.3)	68 (13.7)	9 (1.8)	20 (4.0)	496 (100)

카이제곱=10.00 ns

자원 인식	1년 미만	25 (5.5)	159 (34.7)	198 (43.2)	44 (9.6)	7 (1.5)	25 (5.5)	458 (100)
	1년 이상	2 (5.6)	9 (22.2)	19 (52.8)	4 (11.1)	2 (5.6)	1 (2.8)	36 (100)
총계		27 (5.5)	167 (33.8)	217 (43.9)	48 (9.7)	9 (1.8)	26 (5.3)	494 (100)

카이제곱=5.74 ns

국제적 이해 영역-다문화이해)

응답 요인		전혀그 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 다	총계
문화 보편	1년 미만	3 (0.7)	70 (15.3)	185 (40.5)	158 (34.6)	36 (7.9)	5 (1.1)	457 (100)
	1년 이상	0 (0)	2 (5.4)	18 (48.6)	8 (21.6)	9 (24.3)	0 (0)	37 (100)
총계		3 (0.6)	72 (14.6)	203 (41.1)	166 (33.6)	45 (9.1)	5 (1.0)	494 (100)

카이제곱=15.38 p<.01

문화 편견	1년 미만	4 (0.9)	37 (8.1)	140 (30.6)	233 (50.9)	40 (8.7)	4 (0.9)	458 (100)
	1년 이상	0 (0)	2 (5.3)	12 (31.6)	12 (31.6)	12 (31.6)	0 (0)	38 (100)
총계		4 (0.8)	39 (7.9)	152 (30.6)	245 (49.4)	52 (10.5)	4 (0.8)	496 (100)

카이제곱=21.14 p<.001

문화 평등	1년 미만	17 (3.7)	76 (16.6)	92 (20.1)	168 (36.7)	99 (21.6)	6 (21.6)	458 (100)
	1년 이상	0 (0)	5 (13.2)	6 (15.8)	12 (31.6)	15 (39.5)	0 (0)	38 (100)
총계		17 (3.4)	81 (16.3)	98 (19.8)	180 (36.3)	114 (23.0)	6 (1.2)	496 (100)

카이제곱=7.61 ns

국제적 이해 영역-다문화이해 계속)

문화 차이	1년 미만	5 (1.1)	49 (10.7)	152 (33.3)	203 (44.4)	44 (9.6)	4 (0.9)	457 (100)
	1년 이상	1 (2.6)	0 (0)	9 (23.7)	14 (36.8)	14 (36.8)	0 (0)	38 (100)
총계		6 (1.2)	49 (9.9)	161 (32.5)	217 (43.8)	58 (11.7)	4 (0.8)	495 (100)

카이제곱=28.72 p<.001

선진 문화	1년 미만	8 (1.8)	103 (22.5)	203 (44.4)	118 (25.8)	17 (3.7)	8 (1.8)	457 (100)
	1년 이상	0 (0)	4 (10.5)	15 (39.5)	11 (28.9)	7 (18.4)	1 (2.6)	38 (100)
총계		8 (1.6)	107 (21.6)	218 (44.0)	129 (26.1)	24 (4.8)	9 (1.8)	495 (100)

카이제곱=19.12 p<.01

국제적 이해 영역-국제문제이해)

응답 요인		전혀그 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 다	총계
환경 인식	1년 미만	1 (0.2)	31 (6.8)	127 (27.7)	230 (50.2)	67 (14.6)	2 (14.6)	458 (100)
	1년 이상	0 (0)	0 (0)	8 (21.1)	22 (57.9)	8 (21.1)	0 (0)	38 (100)
총계		1 (0.2)	31 (6.3)	135 (27.2)	252 (50.8)	75 (15.1)	75 (15.1)	496 (100)

카이제곱=4.76 ns

인권 이해	1년 미만	4 (0.9)	69 (15.1)	205 (44.9)	155 (33.9)	15 (3.3)	9 (2.0)	457 (100)
	1년 이상	1 (2.7)	3 (8.1)	16 (43.2)	13 (35.1)	4 (10.8)	0 (0)	37 (100)
총계		5 (1.0)	72 (14.6)	221 (44.7)	168 (34.0)	19 (1.8)	9 (1.8)	494 (100)

카이제곱=8.09 ns

인구 이해	1년 미만	13 (2.8)	112 (24.5)	189 (41.3)	116 (25.3)	14 (3.1)	14 (3.1)	458 (100)
	1년 이상	1 (2.6)	7 (18.4)	13 (34.2)	15 (39.5)	2 (5.3)	0 (0)	38 (100)
총계		14 (2.8)	119 (24.0)	202 (40.7)	131 (26.4)	16 (3.2)	14 (2.8)	496 (100)

카이제곱=5.32 ns

국제적 이해 영역-국제문제이해 계속)

빈곤 문제	1년 미만	6 (1.3)	85 (18.6)	201 (43.9)	142 (31.0)	16 (3.5)	8 (1.7)	458 (100)
	1년 이상	0 (0)	1 (2.6)	17 (44.7)	15 (39.5)	5 (13.2)	0 (0)	38 (100)
총계		6 (1.2)	86 (17.3)	218 (44.0)	157 (31.7)	21 (4.2)	8 (1.6)	496 (100)

카이제곱=14.84 p<.05

사회 인지	1년 미만	11 (2.4)	61 (13.3)	130 (28.4)	210 (46.0)	41 (9.0)	4 (0.9)	457 (100)
	1년 이상	0 (0)	4 (10.5)	14 (36.8)	12 (31.6)	8 (21.1)	0 (0)	38 (100)
총계		11 (2.2)	65 (13.1)	144 (29.1)	222 (44.8)	49 (9.9)	49 (9.9)	495 (100)

카이제곱=9.10 ns

가치 및 태도 영역-인류애)

응답 요인		전혀그 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 다	총계
공동체	1년 미만	3 (0.7)	73 (15.9)	171 (37.3)	164 (35.8)	37 (8.1)	10 (2.2)	458 (100)
	1년 이상	1 (2.6)	2 (5.3)	13 (34.2)	17 (44.7)	5 (13.2)	0 (0)	38 (100)
	총계	4 (0.8)	75 (15.1)	184 (37.1)	181 (36.5)	42 (8.5)	10 (2.0)	496 (100)
카이제곱=7.10 ns								
갈등 평화	1년 미만	1 (0.2)	26 (5.7)	133 (29.0)	210 (45.9)	83 (18.1)	5 (1.1)	458 (100)
	1년 이상	0 (0)	3 (7.9)	10 (26.3)	16 (42.1)	8 (21.1)	1 (2.6)	38 (100)
	총계	1 (0.2)	29 (5.8)	143 (28.8)	226 (45.6)	91 (18.3)	6 (1.2)	496 (100)
카이제곱=1.43 ns								
인류 가치	1년 미만	1 (0.2)	24 (5.3)	109 (23.9)	218 (47.8)	94 (20.6)	10 (2.2)	456 (100)
	1년 이상	0 (0)	2 (5.3)	13 (34.2)	16 (42.1)	6 (42.1)	1 (2.6)	38 (100)
	총계	1 (0.2)	26 (5.3)	122 (24.7)	234 (47.4)	100 (20.2)	11 (2.2)	494 (100)
카이제곱=2.27 ns								
관용 자세	1년 미만	0 (0)	35 (7.6)	123 (26.9)	226 (49.3)	70 (15.3)	4 (0.9)	458 (100)
	1년 이상	0 (0)	2 (5.3)	14 (36.8)	16 (42.1)	6 (15.8)	0 (0)	38 (100)
	총계	0 (0)	37 (7.5)	137 (27.6)	242 (48.8)	76 (15.3)	4 (0.8)	496 (100)
카이제곱=2.25 ns								

가치 및 태도 영역-개방적 태도)

응답 요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다	총계
수용 자세	1년 미만	4 (0.9)	51 (11.1)	187 (40.8)	163 (35.6)	45 (9.8)	8 (1.7)	458 (100)
	1년 이상	0 (0)	5 (13.2)	16 (42.1)	9 (23.7)	7 (18.4)	1 (2.6)	38 (100)
총계		4 (0.8)	56 (11.3)	203 (40.9)	172 (34.7)	52 (10.5)	9 (1.8)	496 (100)
카이제곱=4.53 ns								
감정이입	1년 미만	6 (1.3)	31 (6.9)	166 (36.2)	186 (40.6)	64 (14.0)	5 (1.1)	458 (100)
	1년 이상	0 (0)	4 (10.5)	13 (34.2)	15 (39.5)	5 (13.2)	1 (2.6)	38 (100)
총계		6 (1.2)	35 (7.1)	179 (36.1)	201 (40.5)	69 (13.9)	6 (1.2)	496 (100)
카이제곱=1.96 ns								
배려 가치	1년 미만	3 (0.7)	49 (10.7)	174 (38.1)	175 (38.3)	52 (11.4)	4 (0.9)	457 (100)
	1년 이상	0 (0)	4 (10.5)	12 (31.6)	16 (42.1)	5 (13.2)	1 (2.6)	38 (100)
총계		3 (0.6)	53 (10.7)	186 (37.6)	191 (38.6)	57 (11.5)	5 (1.0)	495 (100)
카이제곱=1.95 ns								
중용	1년 미만	5 (1.1)	29 (6.3)	127 (27.8)	226 (49.6)	65 (14.2)	5 (1.1)	457 (100)
	1년 이상	0 (0)	4 (10.5)	7 (18.4)	17 (44.7)	8 (21.1)	2 (5.3)	38 (100)
총계		5 (1.0)	33 (6.7)	134 (27.1)	243 (49.1)	73 (14.7)	7 (1.4)	495 (100)
카이제곱=8.05 ns								

가치 및 태도 영역-윤리적 태도)

응답 요인		전혀그 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 다	총계
합리 태도	1년 미만	2 (0.4)	51 (11.1)	218 (47.6)	144 (31.4)	29 (6.3)	14 (3.1)	458 (100)
	1년 이상	0 (0)	2 (5.3)	13 (34.2)	17 (44.7)	5 (13.2)	1 (2.6)	38 (100)
총계		2 (0.4)	53 (10.7)	231 (46.6)	161 (32.5)	34 (6.9)	15 (3.0)	496 (100)

카이제곱=6.97 ns

윤리 태도	1년 미만	4 (0.9)	36 (7.9)	188 (41.1)	191 (41.8)	28 (6.1)	10 (2.2)	457 (100)
	1년 이상	0 (0)	4 (10.5)	12 (31.6)	17 (44.7)	5 (13.2)	0 (0)	38 (100)
총계		4 (0.8)	40 (8.1)	200 (40.4)	208 (42.8)	33 (6.7)	10 (2.0)	495 (100)

카이제곱=4.94 ns

가치 및 태도 영역-문화교류)

응답 요인		전혀그 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 다	총계
다양 가치	1년 미만	1 (0.2)	25 (5.5)	110 (24.0)	225 (49.1)	86 (18.8)	11 (2.4)	458 (100)
	1년 이상	1 (2.7)	0 (0)	7 (18.9)	20 (54.1)	9 (24.3)	0 (0)	37 (100)
총계		2 (0.4)	25 (5.1)	117 (23.6)	245 (49.5)	95 (19.2)	11 (2.2)	495 (100)

카이제곱=9.23 ns

상호 작용	1년 미만	1 (0.2)	18 (3.9)	95 (20.7)	247 (53.9)	89 (19.4)	8 (1.7)	459 (100)
	1년 이상	0 (0)	1 (2.6)	7 (18.4)	20 (52.6)	9 (23.7)	1 (2.6)	38 (100)
총계		1 (0.2)	19 (3.8)	102 (20.6)	267 (53.8)	98 (19.8)	9 (1.8)	496 (100)

카이제곱=.81ns

사회적 관계 영역)

응답 요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다	총계
토론 참여	1년 미만	5 (1.1)	77 (16.8)	192 (42.0)	148 (32.4)	31 (6.8)	4 (0.9)	457 (100)
	1년 이상	1 (2.7)	3 (8.1)	15 (45.9)	17 (45.9)	1 (2.7)	0 (0)	37 (100)
총계		6 (1.2)	80 (16.2)	207 (41.9)	165 (33.4)	32 (6.5)	4 (0.8)	494 (100)

카이제곱=5.45 ns

의견 표현	1년 미만	11 (2.4)	80 (17.5)	198 (43.4)	124 (27.2)	38 (8.3)	5 (1.1)	456 (100)
	1년 이상	1 (2.7)	4 (10.8)	14 (10.8)	17 (45.9)	1 (2.7)	0 (0)	37 (100)
총계		12 (2.4)	84 (17.0)	212 (43.0)	141 (28.6)	39 (7.9)	5 (1.0)	493 (100)

카이제곱=7.16 ns

네트워킹	1년 미만	10 (2.2)	108 (23.6)	191 (41.8)	125 (27.4)	18 (3.9)	5 (1.1)	457 (100)
	1년 이상	1 (2.7)	6 (16.2)	13 (35.1)	16 (43.2)	1 (2.7)	0 (0)	37 (100)
총계		11 (2.2)	114 (23.1)	204 (41.3)	141 (28.5)	19 (3.8)	5 (1.0)	494 (100)

카이제곱=4.79 ns

사회적 관계 영역 계속)

합의 도출	1년 미만	6 (1.3)	71 (15.6)	178 (39.1)	168 (35.9)	29 (6.4)	3 (0.7)	455 (100)
	1년 이상	2 (5.6)	1 (2.8)	15 (41.7)	14 (38.9)	4 (11.1)	0 (0)	36 (100)
총계		8 (1.6)	72 (14.7)	193 (39.3)	182 (37.1)	33 (6.7)	3 (0.6)	491 (100)

카이제곱=8.86 ns

응답 요인		전혀그 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잘 모르겠 다	총계
문제 협동	1년 미만	7 (1.5)	62 (13.6)	214 (46.8)	142 (31.1)	22 (4.8)	10 (2.2)	457 (100)
	1년 이상	0 (0)	3 (8.1)	18 (48.6)	12 (32.4)	4 (10.8)	0 (0)	37 (100)
총계		7 (1.4)	65 (13.2)	232 (47.0)	154 (31.2)	26 (5.3)	10 (2.0)	494 (100)

카이제곱=4.54 ns

외어 구사	1년 미만	61 (13.4)	156 (34.2)	132 (28.9)	77 (16.9)	22 (4.8)	8 (1.8)	456 (100)
	1년 이상	0 (0)	2 (5.4)	9 (24.3)	8 (21.6)	18 (48.6)	0 (0)	37 (100)
총계		12.4 (12.4)	158 (32.0)	141 (28.6)	85 (17.2)	40 (8.1)	8 (1.6)	493 (100)

카이제곱=96.17 p<.001

공 백

연구 및 집필진

연구참여진	연구활동 및 집필내용
김선미 (연구책임자)	서론 및 연구방법, 세계시민 자질의 구성요소, 설문지 작성, 연구결과 분석 및 집필, 결론 및 제언 집필
남경희 (공동연구자)	설문지 작성, 연구결과 요약 및 제언 집필
허영식 (집필진)	동서양의 세계시민론, 민족의식과 세계시민의식 집필
황은 (집필진)	연구결과 분석 및 집필, 분석표 작성
조혜윤 (연구조원)	연구보조

연구자문위원

조대훈.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남경희: 서울교육대학교

김왕근: 춘천교대 교수

허영식: 청주교대 교수

문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박영신: 걸스카우트, 기획국제부장

공 백

2003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03-R01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
-청소년 의복문화와 소비-(맹영임·구정화)
- 03-R02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I
-청소년 음식문화와 소비-(조혜영·김선아)
- 03-R03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II
-청소년 소비생활 문제와 대책-(윤철경·조아미·
백지숙·유혜림)
- 03-R04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 -정책제안 요약집-(임지연)
- 03-R05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 실태연구(이종원·유승호)
- 03-R06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김정주·김용대·성기원)
- 03-R07 청소년의 사이버커뮤니티 참여 및 이용실태 연구
(황진구·권태희)
- 03-R08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 방안 연구(최원기·전명기·이주연)
- 03-R09 중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보호대책 연구
(전경숙·노재봉)
- 03-R10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 폭력 대책 연구
(이민희·임영식·이진숙)
- 03-R11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길은배·문성호)
- 03-R12 청소년 리더십 함양을 위한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
모델 개발(우정자·김은경·김형주)
- 03-R13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김영지·이용교·김세진)

- 03-R14 청소년 정보소의 실태 조사 연구(김경준·최선희)
- 03-R15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조사개요보고서
(이경상·김진호·오해섭·김희진)
- 03-R16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과 함양방안 연구(김선미·
남경희)
- 03-R17 가족복지 가출청소년들의 귀가요인 분석 및 가출청소년지도 방안 모색(방은령)
- 03-R18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 정책적 함의(문성호)
- 03-R19 지방정부의 청소년예산결정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김영호)
- 03-R20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유형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청소년의 자아통제 및 부모감독의 중재효과(김희화)
- 03-R21 청소년 진로개발을 위한 방향성 탐구(최동선)
- 03-R22 청소년의 사이버일탈의 원인에 관한 경험연구(이성식)
- 03-R23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지원 방안(노혁)
- 03-R24 거주지역환경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전신현)
- 03-R25 폭주청소년의 위험행동과 예방에 관한 연구(김문섭)
- 03-R26 자살 사이트의 생성 및 이용, 그리고 운영:
심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사례분석(문성원)
- 03-R27 부모를 위한 청소년지도 가이드(신인순 외)
- 03-R28 한·중·일 청소년 정책비교 연구(이종원)
- 03-R29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컴퓨터 활용과 진로선택 경향 연구(김선미)
- 03-R30 2003전국청소년 자원봉사 주관사업 우수활동사례집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1 2003 대한민국 청소년봉사상 우수활동사례집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2 자원봉사 선진지 연수보고서(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3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메뉴얼(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4 일본자원봉사 지원센터 활동사례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5 한중정책세미나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6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수립 공청회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7 청소년 삶의 질 향상 세미나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8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 연구(김영한·서정아)
- 03-R39 학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이재분·박효정·현주)
- 03-R40 일탈·범죄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김은경·이동원)
- 03-R41 근로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손유미·김상호·조정아)
- 03-R42 귀국 및 탈북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조한범·이금순·이우영·전효관)
- 03-R43 여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이춘화·윤옥경)
- 03-R44 서현청소년문화센터 위탁운영 비용산정에 관한 연구
(김영한·김진호·김갑성)
- 03-R4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연구(길은배·한만길·최영표·강영혜·오해섭·김학성)
- 03-R46 학업중단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분석 및 취업지원 방안
(이경상·조혜영·박창남)
- 03-R47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교육시설 특성화방안
(김정주·김진호·소병조)
- 03-R48 월드컵현상을 통해 본 신세대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과
청소년정책의 과제(이종원·이경상·김종길)

- 03-R49 청소년 책임기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이춘화·서정아·김상헌)
- 03-R50 선진국형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
(김영지·전경숙·김민)
- 03-R51 청소년정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9회 청소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수상집 모음집-
(황진구·강명숙·임지수)
- 03-R52 2003특성화 수련거리개발 [3]-청소년마을체험
(윤철경·이은경)
- 03-R53 2003특성화 수련거리 개발 [6]-국제언어캠프
(김선미·김호숙)
- 03-R54 2003특성화 수련거리 개발 [7]-환경음식만들기
(서정아·최경학)
- 03-R55 청소년 단체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맹영임·
이광호·김민·임연희)
- 03-R56 연령대별 외국청소년 정책비교 및 정책 대안
(윤철경·이상오·황성하·서수경)
- 03-R57 청소년 개발 지표개발 및 활용방안(김진호·송병국·
임영식·김진화·오해섭·윤명희·정효진)
- 03-R58 선진 각 국의 청소년 보호체계 사례조사(우정자·
김문섭·최종혁)
- 03-R59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 장기발전계획 수립연구
(함병수·임지인·김종두)
- 03-R60 청소년 국제교류 정보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조혜영·최원기·임지연)
- 03-R61 청소년수련시설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마련
(황진구·김경준·이춘화·최창욱)
- 03-R62 인천시 청소년수련관 운영방식 연구(김경준·함병수·
김영한·최창욱)

연구보고 03-R 16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에 관한 연구

인 쇄 2003년 12월 15일

발 행 2003년 12월 20일

발 행 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 행 인 권 이 중
등 록 1993 10. 23 제21-500호
인 쇄 처 유성인쇄공사 전화 (02) 2265-5540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02-2188-8844(사무국)

ISBN 89-7816-478-1(93330)

공 백

연구보고 03-R 16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 김선미(국립순천대학교)

공동연구자 : 남경희(서울교육대학교)

한국청소년개발원

공 백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내용	4
3. 연구방법	7
II 세계시민의 이론적 배경	9
1. 동서양의 세계시민론	11
1) 서양의 세계시민에 대한 개념 및 논의	11
2) 동양의 세계시민에 대한 개념 및 논의	30
3) 민족의식과 세계시민의식	38
2 세계시민 자질의 영역 및 구성요소	75
III. 연구방법	77
1. 연구방법	79
2. 조사 대상 및 설문조사 방법	80
3. 연구설계	81
4. 설문지 구성	83
IV. 연구결과 및 논의	85
1 세계시민의 자질 요건 및 중요도	87
1) 지식인의 인구구성학적 특성	87
2)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 구성요소 및 중요도	89
3) 지식인의 세계시민의 개념에 대한 인식	99
2. 청소년의 세계시민의 자질 실태	101
1) 청소년의 인구구성학적 특성	101
2)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 실태	103
3) 성별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 실태	112

4) 거주지별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 실태	123
5) 전공별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 실태	137
6) 외국경험별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 실태	149
3. 청소년의 세계시민의 개념에 대한 인식	160
1) 청소년의 세계시민 개념 인식	160
2) 성별 청소년의 세계시민 개념 인식	162
3) 거주지역별 청소년의 세계시민 개념 인식	164
4) 전공별 청소년의 세계시민 개념 인식	167
5) 외국경험별 청소년의 세계시민 개념 인식	169
4. 청소년의 세계시민자질의 중요도와 실태 격차 비교	171
5. 지식인과 청소년의 세계시민의 개념 인식 비교	179
V. 결론 및 제언	183
1. 연구결과의 요약	185
2. 결론 및 제언	199
참고문헌	201
부록	213
설문지	215
설문조사 결과의 기술적 분석표	221